보험동향 2011년 겨울호

ㅣ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ㅣ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오병국 (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원)
ㅣ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황진태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원) 이혜은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ㅣ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 (선임연구원) 영 국 이정환 (선임연구원) 일 본 최 원 (선임연구원) 중 국 왕양비 (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목차

Ⅰ. 테마진단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 1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옵션 정책과 시사점 : TIAA-CREF 전략을 중심으로 / 18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40
2. 국내경제 / 64
3. 금융경제 / 74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81
2. 생명보험 / 84
3. 손해보험 / 103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30
2. 영국 동향 / 137
3. 일본 동향 / 146
4. 중국 동향 / 153

Ⅴ.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64

Ⅵ. 통계표 / 177

Ⅰ. 테마진단

◇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전용식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이혜은 연구원

1. 최근 생명보험산업 M&A 현황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M&A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로 기존 보험회사[1]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존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본고는 향후 보험산업 경쟁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기존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현대차그룹이 녹십자생명을 인수한데 이어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M&A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이 확대되는 양상임.[2]

○ 모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동양그룹이 동양생명의 경영권을 완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외국계 보험회사 가운데서는 ING생명의 매각설이 제기되는 상황임.

- ING생명의 경우 모기업인 ING그룹이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IPO나 제3자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

1) 본고에서는 생명보험회사를 소유 주체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보험회사를 은행계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가 소유한 외국계 보험회사,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를 기존 보험회사로 구분함.

2) 손해보험회사들 가운데서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그린손해보험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M&A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M&A 대상인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임.

○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은행금융 지주회사가 보험업 확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음.3)

- 신한금융그룹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인수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음.
-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생명의 경우 ING그룹이 49%를 투자하고 있어 최근 ING그룹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은행의 해외진출 부진, 은행의 성장 정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보험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은행금융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임.

■ 시장에서는 Prudential, Manulife, Sun Life 등의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4)

■ 대형화를 모색하는 일부 기존 대형 보험회사들도 인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업집단 모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으로 결과는 유동적일 수 있음.

○ 최근 한화그룹이 동양생명 인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가 M&A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에서 은행계,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은행금융그룹의 그룹내 은행-증권-보험 계열사들간, 외국계 보험회사의 모국 보험회사와의 시너지효과, 전문성 측면에서의 강점으로 기존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본고는 생명보험산업 경쟁구도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기존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3) 최근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자들은 인수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도 있으나 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인수설이 확산됨.

4) 매일경제(2011. 12. 8), “미 푸르덴셜, 동양생명 실사 나섰다”.

2. 생명보험산업 경쟁구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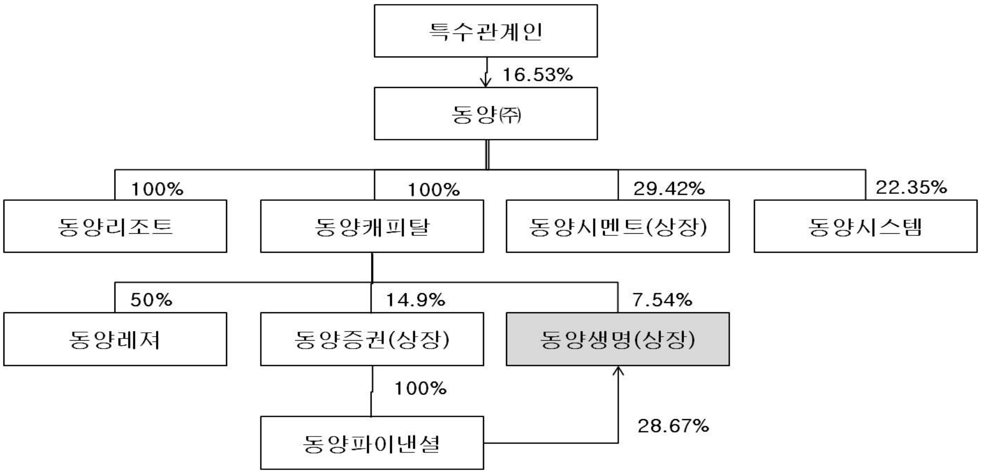
생명보험산업 경쟁구도 변화는 보험회사 M&A를 통한 소유구조의 변화에서 초래될 것임. 본 장에서는 M&A 가능성을 매도측면과 매수측면에서 살펴보았음. 매도측면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두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추가매물 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매수측면에서는 은행금융그룹이 가장 유력한 매수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결국 향후 생명보험산업에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기존 보험회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가. 매각 요인

■ M&A인수대상인 동양생명의 경우 동양그룹의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에서 매물로 나옴.

○ 동양생명은 동양(주)의 완전 자회사인 동양캐피탈이 7.54%를, 동양파이낸셜이 28.7%를 소유하고 있음.

〈그림 1〉 동양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주: 동양생명 지분을 보고펀드에 매각하기 이전의 상태임.

○ 동양그룹의 대주주인 동양(주)과 동양캐피탈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FY2010년 동양(주)과 동양캐피탈은 자본잠식이었으며 동양(주)의 주가는 2009년 8월 대비 84% 하락(2011년 11월 기준)함.

○ 동양그룹은 2009년 10월 동양생명의 기업공개 이후 보고펀드에 지분을 60.7%까지 매각하였으나, 3년 후 30%의 지분을 되사는 조건의 콜옵션을 붙임으로써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음.

○ 최근 동양그룹은 추가적인 재무상태 개선과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콜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ING생명의 모회사인 ING그룹은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악화되어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한국법인을 기업공개 혹은 매각할 것으로 알려짐.

○ ING그룹은 최근 수익성이 회복 중이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 ROA(%): 0.89(2004) → -0.11(2008) → 0.36(2010)

○ ING그룹의 해외진출국 가운데 한국 시장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매각설이 제기되는 동양생명과 ING생명 이외에도 경기회복 지연 시 추가적인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만약 보험회사 모기업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험회사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보험산업에서도 기업계열 소속 보험회사들이 모기업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공개나 매각된 경우가 있음.

- Hartford는 모기업인 ITT그룹의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사한 보험사이며, Genworth Financial의 경우 모기업인 GE가 소비자금융에 전념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통해 분사한 사례임.

■ 현재 보험회사 소유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계열 보험회사를 매각할 정도로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일부 대기업 계열 생명보험회사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함.

○ 생명보험회사 모기업의 주력 산업이 주로 철강, 화학, 건설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자본계열 그룹 소속 4개 생명보험회사의 일부 대주주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A생명과 D생명의 경우 대주주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업계 평균을 하회하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동양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모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건전한 자회사를 매각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음.

〈표 1〉 대기업계열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단위: %)

보험회사	대주주	비율	FY2010	업계 평균
A생명	가	영업이익률	3.20	6.59
		부채비율	186.32	97.45
	나	영업이익률	1.91	4.53
		부채비율	176.36	217.20
B생명	다	영업이익률	7.32	6.09
		부채비율	49.02	93.60
C생명	라	영업이익률	14.42	6.59
		부채비율	30.52	97.45
	마	영업이익률	7.52	6.12
		부채비율	13.96	60.63
D생명	바	영업이익률	2.64	7.58
		부채비율	201.75	63.45
	아	영업이익률	2.12	2.59
		부채비율	129.44	36.04

주: 1) 대주주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임.
2) 업계 평균은 유가증권 상장사 통계를 이용, KRX.
3)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
4)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본
자료: 사업보고서, KRX 통계.

나. 매수 요인

■ 국내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인수의사가 가장 적극적임.

○ 국내 은행금융그룹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생명보험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미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에게 국내 시장은 매력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큼.

○ 기업계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해 매물로 나온 보험회사에 관심을 보일 수 있으나 모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1) 은행금융그룹

■ 경기위축으로 인한 대출수요 감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예대율 규제), 자본규제로 인해 은행업은 성장 정체가 예견됨.

○ 예대율 규제로 은행은 2014년부터 CD를 제외한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함.

- 안전자산 선호현상 지속으로 2011년 2/4분기 말 예대율은 109.3%로 2007년 말 132%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 강화는 기존의 위험가중자산비율(BIS) 8%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2013년까지 보통주 자본비율 3.5%(현재 2.0%), Tier1 비율 4.5%(현재 4.0%), 총자기자본비율 8.0%를 유지해야 함.

- 자본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 등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며 대출위축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나 자본확충에 따른 코스트 부담은 은행의 이익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금융위기시 적정 자본 수준하에서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동성 기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5] 임.

---

5)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최소 100% 수준 유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비율임.

○ 실제로 국내은행의 원화 펀딩갭(원화대출금-원화예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표 2〉 참조).

-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예금 증가 측면도 있으나, 대출증가율이 축소된 데 기인함.

〈표 2〉 국내은행 원화 Funding Gap 추이

(단위: 조 원, %)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원화 예금	624 (6.1)	657 (8.6)	681 (15.2)	715 (17.2)	733 (17.5)	750 (14.1)	770 (13.0)	774 (8.3)	820 (11.9)	865 (15.3)	881 (14.4)	908 (17.2)	929 (13.2)	949 (9.8)
원화 대출	836 (16.3)	873 (16.5)	903 (16.0)	920 (14.3)	940 (12.4)	955 (9.4)	967 (7.1)	962 (4.5)	971 (3.3)	983 (2.9)	991 (2.4)	994 (3.4)	1,016 (4.7)	1,037 (5.6)
펀딩갭	212	215	222	205	206	205	197	188	150	118	110	87	88	88

주: 1) 괄호 안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을 말함.
2) 펀딩갭 = 원화대출금 - 원화예금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러한 대출둔화는 이자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수익원을 다변화하지 않는 한 이자수익 비중이 90% 이상인 국내 은행들의 수익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6)]

〈표 3〉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구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성장성	수익 비중	이자수익	91.60	91.74	91.69	93.02	92.27	91.75
		수수료수익	8.40	8.26	8.31	6.98	7.73	8.25
수익성	이익 비중	이자이익[1)]	86.99	87.24	74.35	87.15	85.97	82.84
		비이자이익	13.01	12.76	25.65	12.85	14.03	17.16
	순이자마진		2.81	2.61	2.44	2.30	1.98	2.32
건전성	고정이하여신 비율		1.22	0.84	0.72	1.14	1.24	1.90

주: 1) 수익은 매출액 개념이고 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6) 미국의 Occupy Wall Street 시위의 영향에 의해 촉발된 은행의 수수료, 예대마진 인하 압력은 향후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신수익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부실 대출의 증가로 은행업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은행금융그룹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나 타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부실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1.9%에 이름.

○ 해외진출의 경우 경험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진출에 따른 리스크가 큼.

-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초국적화지수[7)]는 대부분 30%를 넘지만 국내은행은 2.9%에 불과함.

■ 은행금융그룹의 카드와 증권업 비중에 비해 보험업 비중은 미미한 상황임.

○ 특히 신한지주와 KB지주의 생명보험업 이익비중 확대는 생명보험업의 비중이 미미한 타 금융지주회사의 생명보험업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표 4〉 금융지주사의 생명보험업 비중

(단위: %)

	2008	2009	2010
신한	5.51	9.52	7.51
KB	0.00	0.48	7.33
우리	0.45	0.85	0.17
하나	-3.00	-1.04	-0.95

주: 영업이익 기준임.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 은행업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 빠르고 높게 수익성을 회복한 생명보험업은 은행금융그룹에겐 매력적인 수익다변화 대상이 될 수 있음(〈표 5〉 참조).

○ 특히 FY2010 생명보험업의 ROA는 1.02%에 이르러 0.54%에 그친 은행업과 대비됨.

○ 생명보험업은 수익의 변동이 적어서 은행금융그룹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Trans-nationality index: 자산, 수익, 종업원 각각에 대한 해외비중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에서 사용. '10.6월 기준 UBS 76.5%, Deutsche 75.2%, HSBC 64.7%, 국내은행 평균은 2.9%에 불과함.

■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이 급속한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금융그룹은 보험업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시장 확대로 국내 은행들의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함.

〈표 5〉 업권별 ROA, ROE

(단위: %)

구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은행	ROA	1.27	1.12	1.10	0.48	0.39	0.54
	ROE	18.42	14.64	14.60	7.17	5.76	7.22
보험	ROA	0.93	0.76	0.73	0.18	0.70	1.02
	ROE	12.90	10.66	10.13	2.64	9.40	11.66
증권	ROA	6.18	3.20	3.89	1.45	1.81	1.49
	ROE	20.94	12.57	17.01	6.58	8.79	7.70
카드	ROA	1.16	7.05	6.87	4.05	4.28	5.50
	ROE	10.91	36.70	28.44	16.60	16.49	19.7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6〉 퇴직연금 점유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10
은행	40.55	47.83	48.47	49.62	48.38
생보	42.79	33.94	33.50	26.06	26.36
손보	7.17	6.42	6.20	8.07	7.47
증권	9.49	11.80	11.83	16.25	17.8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외국계 보험회사

■ Manulife, Sun Life 등 국내 미진출 외국 보험회사와 Prudential 등 기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M&A 의향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짐.[8)]

○ 유럽계 보험회사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진출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지만, 북미지역 보험회사들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진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 진출에 적극적인 주된 이유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수익성 때문으로 판단됨.

○ ROE 기준 상위 5개의 생명보험회사 중 4개가 외국계 보험회사임.[9]

〈표 7〉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ROE[1]

	외국계	은행계	기업계[2]
상위 5개사 (15.69, 33.78)[3]	4 (22.31)	1 (22.60)	0
중위 12개사 (3.82, 15.11)	4 (8.18)	1 (9.99)	7 (9.65)
하위 5개사 (3.54, -69.41)	1 (-26.12)	2 (-4.95)	2 (-32.93)

주: 1) 2010년 기준임. 단위: 개, 괄호 안은 %
2) KDB생명(구 금호생명)은 2010년 KDB에 인수되었기에 기업계로 분류함.
3)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영역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말함.
4) 괄호 안의 숫자는 ROE 평균을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성장성 측면에서는 진출 10여년 만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이 20%를 웃돌아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높은 경쟁력은 미진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8) 주요 일간지.

9) 특히 ING 그룹의 경우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중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짐.

〈표 8〉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대형3사[1]	70.76	67.39	64.23	61.21	57.57	55.17	51.98	49.53
외국계	14.08	16.43	18.00	18.83	20.62	19.91	20.79	19.83
은행계	5.64	6.01	7.17	8.64	9.55	11.23	12.78	13.93
기　타	9.32	9.95	10.61	11.31	12.25	13.70	14.45	16.71

주: 1) 대형 3사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3개사를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경쟁구도 변화 전망

■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M&A 매물로 나온 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생명보험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세 가지 유형의 경쟁구도를 전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내 보험회사들 중 대형사들 간의 경쟁, 중소형 보험회사들 간(은행금융그룹 계열과 기존 보험사들)의 경쟁이고, 세 번째는 새롭게 진입한 외국계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구도임.

■ 세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9〉 참조).

○ 은행금융그룹계열 보험회사가 인수할 경우 중상위권(자산순위 4위~10위) 보험회사들, 특히 은행금융그룹계열 보험회사와 기업계열 보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됨.

- FY2010년 동양생명 자산이 약 13조 원으로 은행금융그룹계열이 인수할 경우 인수주체별로 최소 15.5조 원에서 최대 25.5조 원으로 인수보험회사의 자산이 증가함.
- 25.5조 원 자산규모 보험회사가 등장할 경우 교보생명(57조 원)에 이어 업계 4위, 15.5조 원 자산규모 보험사가 등장할 경우 업계 5위임.
-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보험회사가 10개이므로 22개 생명보험회사 중 중상위권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한화그룹(대한생명)이 인수할 경우 대형사 간 경쟁이 심화됨.

- 대한생명의 자산규모가 63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증가하여 교보생명 자산규모와의 격차가 FY2010년 6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음.

○ 외국계 보험회사가 인수할 경우 22개 생명보험회사 중 외국계 보험회사가 10개로 기존 보험회사들과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마케팅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표 9〉 동양생명 인수 가정 시 자산·수입보험료 기준 경쟁구도

(단위: 조 원)

보험사	FY2010 자산규모	동양생명 인수 가정 시	FY2010 수입보험료	동양생명 인수 가정 시
대한생명	63.7(2)	76.6(2)	11.1(2)	14.7(2)
신한생명	12.6(8)	25.5(4)	3.9(6)	7.5(4)
KB생명	3.9(15)	16.8(5)	1.13(16)	4.73(4)
우리아비바생명	2.6(18)	15.5(5)	1.17(15)	4.77(4)
신규 외국계[1)]	-	12.9(7)	-	3.6(7)
동양생명	12.9(7)	-	3.6(7)	-
삼성생명	146.4(1)	-	21.5(1)	-
흥국생명	11.3(10)	-	3.2(8)	-

주: 1) 신규 외국계 보험회사 진입 가정 시
2) 괄호 안의 숫자는 순위를 뜻함.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기업계 보험회사와 은행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10)]

○ 금융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관심증가로 저축성 보험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임.

○ 기업계열 중소형 보험회사들과 은행금융계열 보험회사들의 저축성 보험 비중이 FY2008-FY2010 각각 46%, 59%로 FY2004-FY2010 42%, 53%보다 소폭 증가(〈표 10〉 참조).

- 반면 대형 3사와 외국계 상위 5개사는 보장성 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10) 보험연구원(2011. 12),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3.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기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연금 등 저축성보험 측면에서 은행계와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기존 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 보장성 보험 강화를 위한 자본 조달 능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

■ 기존 보험회사의 장점인 보장성 보험 확대

○ 위험보험료 비중이 적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서는 은행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음.

-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 채널 경쟁력으로 부가보험료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
- 저축보험료의 증가는 운용자산을 증가시키나 투자수익에서는 은행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정함.

○ 보장성 보험은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아 보험영업수익을 개선함.

- 동양생명의 보장성 보험 수익성은 36.3%, 연금보험 7.5%, 저축성보험 13.1%[11)]

○ 보장성 보험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마케팅 측면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강점을 보유함.

-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신상품 마케팅 강화로 FY2010 4/4분기와 FY2011 1/4분기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10%대의 증가율을 시현[12)]함.

■ 보장성 보험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능력, 자본력 강화

○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 비중이 높은 것이 수익성의 원천(〈표 10〉 참조)인 것으로 보임.

- 외국계 5개사의 성장성(초회보험료 증가율,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낮지만 수익성(ROA, ROE)은 높고, 총자본금도 높은 수준임.

---

11) 상장 생보사 중 대형사들의 경우 보장성 보험의 수익성(연납화보험료 대비 수익성)은 약 45%, 연금 11%, 저축성보험 8% 수준. 출처 각사 자료

12) 보험연구원(2011.12),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장성 보험의 상품 · 판매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연금 · 저축성 보험 상품에 비해 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장성 보험의 보험위험(Insurance Risk)을 담보해야 함.
-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아 판매채널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함.
- 기존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연금·저축성 보험을 확대한 원인이 취약한 자본력일 수도 있음.

○ 향후 연금 · 저축성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도 자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 수익이 약정한 수익을 하회할 경우를 대비해야 함.
- 은행계 보험사의 평균 자본이 0.32조 원이고 기존 중소형 보험사의 평균 자본이 0.48조 원이나 자본조달력 측면에서는 기존 중소형 보험회사가 열위에 있음.

〈표 10〉 FY2008-FY2010 계열별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 지표

	대형3사[1]	중소형	은행계[2]	외국계 상위 5사[4]	전체[5]
초회보험료 증가율	18.2 (12.9)	39.5 (37.0)	71.7 (36.0)[3]	14.8 (27.6)	28.4 (45.3)
수입보험료 증가율	0.7 (2.8)	13.5 (18.0)	29.1 (42.2)	1.2 (6.3)	10.6 (22.3)
ROA	0.7 (0.8)	0.3 (0.5)	0.5 (0.7)	1.0 (1.5)	0.4 (0.8)
ROE	9.5 (12.0)	5.3 (11.2)	5.8 (30.5)	10.0 (15.7)	4.5 (13.2)
저축성 비중	24.6 (27.2)	46.1 (41.5)	58.7 (52.6)	28.3 (30.9)	36.7 (34.5)
평균 총자본	6.85	0.48	0.32	1.17	1.42

주: 1) 대형3사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3개사를 말함.
2) KDB생명(구 금호생명)은 2010년 KDB에 인수되어 구분이 어려우므로 제외함.
3) 괄호 안은 FY2004-FY2010 평균, 단위: %, 총자본은 조 원.
4) 외국계5개사는 ING, 메트라이프, 푸르덴샬, 알리안츠, AIA임.
5) 전체는 22개 생보사 대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소비자 신뢰 제고

○ 기존 중소형 보험사들의 평균 민원건수가 21건인데 비해 은행계인 신한생명의 민원건수는 8.4건(〈표 11〉 참조)임.

- 연금보험의 특성으로 소비자 신뢰는 연금 등 저축성상품 판매에도 중요하게 작용[13]함.

〈표 11〉 민원건수

(단위: 건)

보험사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신한생명	**9.6**	**8.4**
우리아비바생명	9.6	13.0
대형사 평균	10.8	10.0
중소형사 평균	**22.1**	**21.2**
외자계 평균	32.0	23.1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특히 소비자 신뢰는 금융 산업 경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의 경쟁력으로 평가됨.

○ 19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산업의 성장정체, 경쟁심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상품지향적 경쟁에서 고객지향적 경쟁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 상품지향적 경쟁은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신규고객 유치를 의미함.
- 고객지향적 경쟁은 기존 고객 유지와 고객만족,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의미함.

○ 국내 생명보험산업 경쟁구도가 은행계 보험회사와 기존 보험회사 간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임.

- HSBC의 은퇴관련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15,000여명 가운데 26%가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 응답자의 34%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함.
- 독일의 보험그룹인 ERGO사는 "To Insure is to Understand"라는 경영원칙을 제시하며 고객관계 강화, 소비자 신뢰제고를 경영전략으로 채택함.[14]

○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고객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상품/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있음.[15]

---

13) 보험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음(보험연구원(2010. 6),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14) 독일의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세스개선과 함께 고객관계 강화(Focus on the Customer)를 전략으로 채택함.

15) CIGNA, Prudential Insurance, ERGO 등의 보험회사와 Chase Bank, 코메르츠방크 등이 고객자문위원회를 운영함.

4. 결론 및 시사점

향후 국내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은행금융그룹계열과 대기업계열 보험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기존 보험회사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제고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특히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고객과 소통하고, 충성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은행금융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M&A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가 은행금융계열 보험회사와 기존 중소형 보험회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제조업 기반의 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모회사 재무사정 악화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 ○ 은행금융그룹 계열,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임.

■ 기존 보험회사는 은행계와 외국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의 장점인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 확충, 상품개발 능력 제고, 소비자 신뢰제고가 중요함.

■ 특히 소비자 신뢰제고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금융서비스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도 소비자 신뢰제고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급선무임.

- ○ ERGO 등 글로벌 금융회사의 소비자 신뢰 제고, 고객관계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벤치마크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신뢰제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0. 20), '11년 6월 말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에 대한 현지화지표 평가결과.

매일경제(2011. 12. 8), "미 푸르덴셜, 동양생명 실사 나섰다".

보험연구원(2010. 6),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보험연구원(2011. 12),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서병호(2011),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Carter. T(2003), "Customer Advisory Board: A Strategic Tool for Customer Relationship Building".

ERGO(2011. 10. 19), Press release.

How Wells Fargo's Targeted Business Services Help Minority Small Business Enterpremeurs, Community Developments, Winter 2003

HSBC Insurance(2009), "The Future of Retirement".

Vesanen, Jari(2005. 11). "What is Personalization? A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 W-391.

◇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옵션 정책과 시사점: TIAA-CREF 전략을 중심으로

이경희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원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정기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부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음. 이에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CREF)의 지급옵션 제공과 가입자의 선택 행동에 대해 소개하고, 정책당국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의 종국적인 목표가 노후소득의 안전성 제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정기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부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음.

○ 적립금을 소득흐름방식으로 수령할 것인가 혹은 일시금방식으로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정책적 개입 없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일임함에 따라 절대 다수가 일시금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1)에서 자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금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사람은 0.2%에 불과함.[16)]

■ 이런 현실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축적된 적립금이 은퇴자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지급단계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에만 일임한다면 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로 귀착될 수 있을 것임.

16)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연금수급 자격(만 55세 이상)을 갖추고 퇴직한 1,570명 중 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함. 연금소득을 선택한 3명 중 2명은 연금지급 기간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형(annuity certain)을 선택하고, 1명만 종신형(whole-life annuity)을 선택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장수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일시금 수령을 일정 부문 제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양한 지급옵션, 정보 제공 및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소득흐름방식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은퇴시점에서 개인의 지급옵션 선택은 정부 정책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제도 설계, 정보 제공, 가입자 교육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Butler and Teppa 2005).

■ 본고에서는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CREF)[17]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급옵션 제공 현황과 이에 따른 가입자의 선택 행동,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TIAA-CREF 가입자의 경우 30% 이상이 적립금 중 일부를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며, 적립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비중도 1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18]

○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급옵션 변화 추이와 실제 가입자의 선택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 중심의 인식 형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관련 정책을 고찰함.

17) TIAA-CREF(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는 포춘 100대 금융서비스회사(2011년 100대 기업 중 87위 차지)로 대학, 연구, 의료 및 문화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은퇴서비스를 제공함. 2010년 말 기준 1만 5천개의 사업체에 속한 3백 70만명 가입자(현역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 중인 자산규모는 4천 5백 30억 달러에 달함. TIAA는 1918년 전통형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로 출범하였으나, 1952년 변액연금을 추가하기 위해 CREF도 설립하였음. TIAA-CREF의 핵심 영역은 은퇴서비스와 연금상품이며, 상당 부문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잉여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됨. TIAA-CREF는 사업대상을 교직원과 같은 특수영역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IRA, 뮤추얼펀드, 연금 및 생명보험, 재정설계(financial planning), 신탁업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8) TIAA-CREF(2010. 4. 30), Re: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for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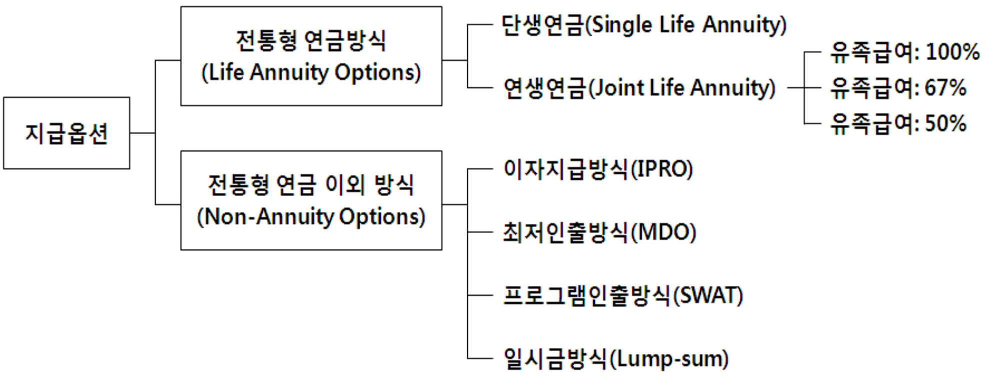
2. 지급옵션 제공

TIAA-CREF는 정부 정책 변경 및 가입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지급옵션의 다양화를 도모해 왔는데, 전통형 연금에서 출발하여 이자지급방식, 최저인출방식을 추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연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인출방식도 제공하였음.

■ 2011년 현재 TIAA-CREF는 전통형 연금방식(life annuity option)과 전통적인 연금방식이 아닌 옵션(non-annuity option)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 전통형 연금방식은 종신토록 소득을 보장하는 옵션으로 연금수급자 수에 따라 단생연금과 연생연금(유족급여 100%, 67%, 50%)[19]으로 구분됨.
- ○ 전통형 연금 이외 방식으로는 이자지급방식(IPRO: Interest Payment Retirement Option), 최저인출방식(MDO: Minimum Distribution Option), 프로그램인출방식(SWAT: Systematic Withdrawal And Transfers) 및 일시금이 제공됨.

<그림 1> TIAA-CREF 지급옵션 구성



자료: Ameriks(2002)를 근거로 저자가 작성함.

19) 단생연금은 연금수급자가 1인, 연생연금은 연금수급자가 2인임. 연생연금에서 두 번째 연금수급자의 급여는 첫 번째 연금수급자 급여의 일정 비율(예: 100%, 67%, 50%)로 설계됨.

■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지급옵션은 정부의 제도 변경 및 가입자의 니즈 변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임(〈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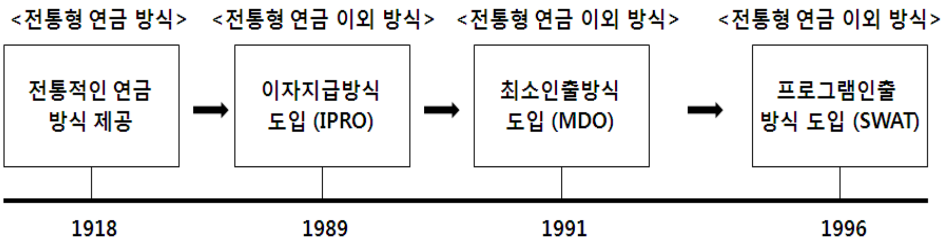
○ 1918년 연금기금이 설립된 이후 1989년까지는 전통형 연금방식을 중심으로 가입자의 적립금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켰음.

○ 전통형 연금방식은 가입 이후 적립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므로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단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989년에는 이자지급방식을 제공함.

○ 국세청에서 최저인출제도(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를 도입함에 따라 TIAA-CREF에서도 1991년 이후 최저인출옵션을 제공하게 됨.[20)]

○ 1996년 이후에는 개인계좌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통제력과 유연성을 크게 개선시킨 프로그램인출방식을 도입함.

〈그림 2〉 TIAA-CREF의 연도별 지급옵션 도입 추이



자료: AON Hewitt(2011)에서 수정 작성함.

가. 전통형 연금방식

■ 전통형 연금방식은 위험단체 내 사망률의 상호보조(mortality cross-subsidy) 기능이 작용하므로 가입자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가장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는 방식임.

20)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축적된 적립금을 노후소득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규정함.

○ 연금급여가 자신의 적립금, 투자수익과 위험단체 내 먼저 사망한 가입자의 잔여 적립금 재원을 활용하여 결정되므로 생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음.

○ 1974년 「ERISA법」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혼자에 대해서는 연생연금을 디폴트옵션으로 규정함에 따라 미국 확정급여형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지급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21)]

나. 전통형 연금 이외 방식

■ TIAA-CREF가 1989년 이후 전통적인 연금방식 외에 비연금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가입자들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소득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됨.

○ 1990년 이후에는 은퇴 직후 현금이 필요한 가입자를 위해 일시금방식도 허용함.

■ IPRO방식은 적립금의 투자수익만 인출하며 원금은 연금전환 시점에서 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인출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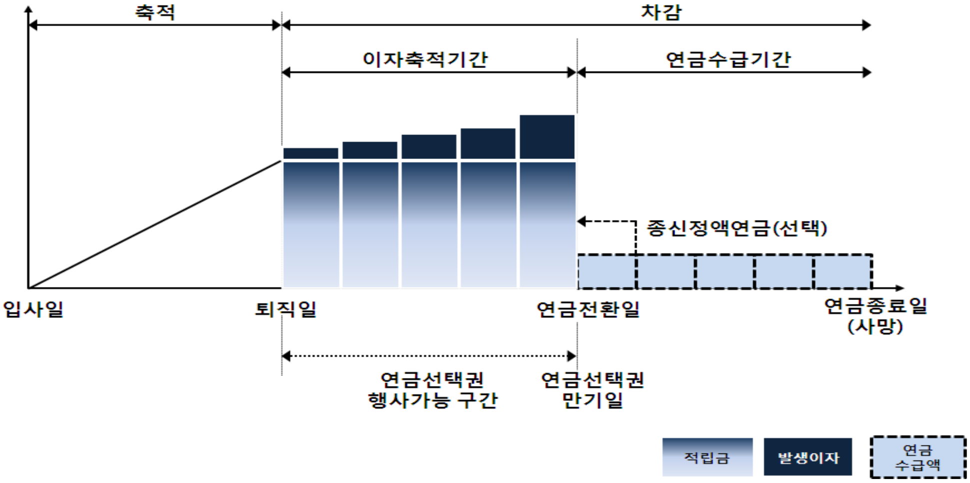
○ 연금전환 시점까지 원금은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인출할 수 있는 소득이 종신연금에 비해 작음(우리나라의 상속형 연금과 유사).

○ 가입자가 장수리스크 관리보다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소득(예: 장기간병비용)을 조달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21) 만약 배우자 있는 기혼자가 자신이 더 높은 연금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단생연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적용제외(opt out)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함.

〈그림 3〉 IPRO방식을 통한 소득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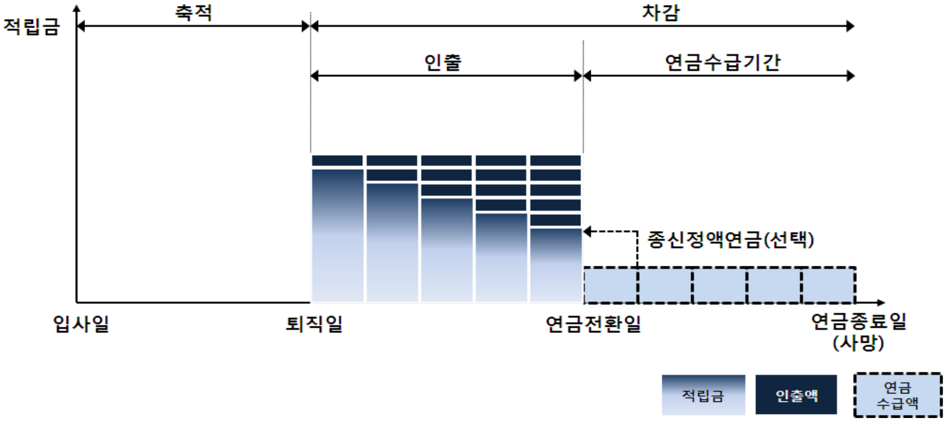


자료: AON Hewitt(2011)에서 수정 작성함.

■ 기대여명을 감안하여 인출 비율을 결정하는 MDO방식은 국세청의 RMD 정책에 따라 401(k)제도 가입자의 디폴트옵션으로 제공됨.

○ 적립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기대여명의 역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인출비율이 높아지고, 기대여명이 높으면 인출비율은 낮아짐(예: 기대여명 10년이면, 인출비율 10% vs. 기대여명 20년이면, 인출비율 5%).

〈그림 4〉 MDO방식을 통한 소득흐름



자료: AON Hewitt(2011)에서 수정 작성함.

■ SWAT방식은 가입자가 사전에 인출하고자 하는 산식을 설정하고, 자신의 적립금에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득을 인출하는 것임.

○ 잔여 적립금이 존재하는 한 소득을 인출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상한 투자수익률보다 실제 투자수익률이 낮아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인출이 정지되거나 인출 산식을 변경해야 함.

■ 일시금(Lump-sum)방식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미국의 확정기여형제도(DC)와 개인퇴직계좌(IRA)에서 디폴트옵션으로 활용되는 방식임.

3. 가입자의 선택 행동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화됨에 따라 실제 선택 행동도 1개 옵션만 선택하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2가지 이상 옵션을 조합하는 혼합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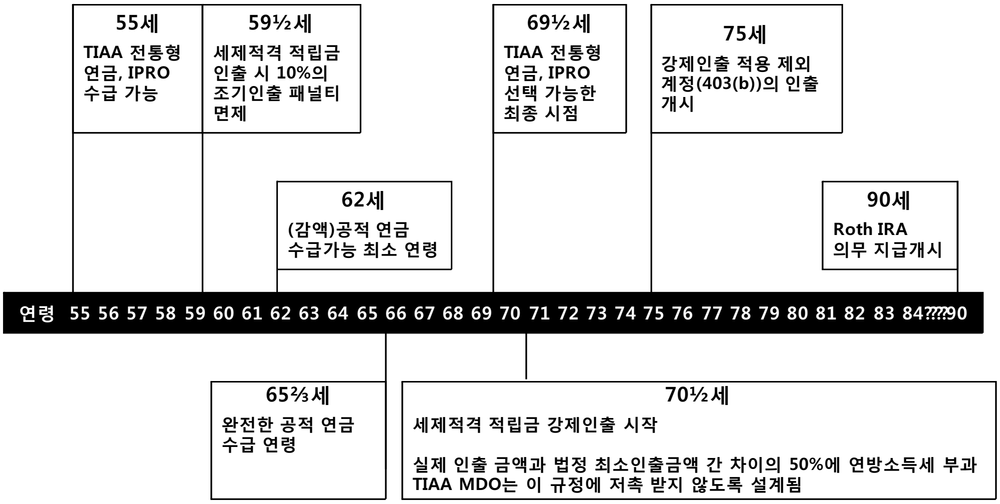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주요 연령대별로 달리 적용되므로 TIAA-CREF도 가입자의 은퇴계획 수립 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적절한 지급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그림 5〉 참조).

○ 전통형 연금과 IPRO는 55세부터 선택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선택 가능한 연령은 69.5세임.

○ 공적연금은 62세부터 감액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완전한 공적연금은 65세 8개월 시점부터 수령할 수 있음.

○ 70.5세부터는 국세청의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TIAA-CREF 가입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된 MDO를 선택할 수 있고, 90세부터는 Roth IRA 가입자에 대해 의무 인출이 적용됨.

〈그림 5〉 주요 연령대별 정부 정책과 TIAA 옵션



자료: TIAA-CREF(2011).

가. 연도별(1975~2001) 선택 행동 변화

1) 지급옵션별 선택 비중 추이

■ Ameriks(2002)는 가입자의 지급옵션 선택 추이를 연도(1975~2001)별로 살펴보았는데, 연금기금에서 제공하는 옵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도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지급옵션이 다양화되기 전에는 종신연금만 선택할 수 있어 모든 가입자가 종신연금만 선택하였고, 이런 추이는 1984년까지 지속되었음.

- 종신연금 내 단생연금과 연생연금 간 선택 행동을 보면, 1984년까지는 단생연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정부에서 디폴트옵션 정책을 강화시킴에 따라 1985년 이후에는 연생연금의 비중이 소폭 증대됨.[22]

22) 1984년 들어 연생연금의 적용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

■ 1989년 이후 전통형 연금 이외 방식으로 지급옵션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종신연금의 선택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체적인 방식의 선택 비중이 크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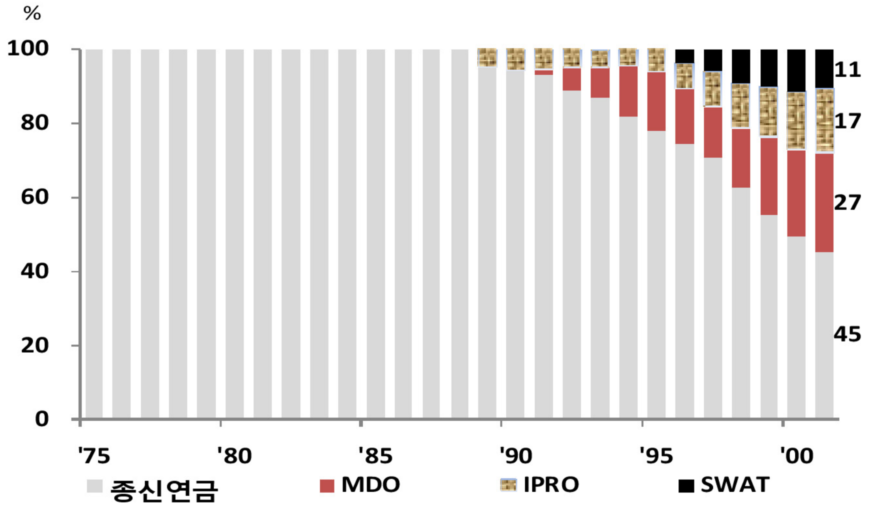
○ 1975~1988년 동안 100%를 차지하던 종신연금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45%(단생연금 22% vs. 연생연금 23%) 수준으로 축소됨.

○ 반면, 1989년 5%에 불과한 MDO의 비중은 2001년 17%로 높아졌으며, IPRO도 1991년 1%에서 2001년에는 27%로 급증함.

○ 1996년에 도입된 SWAT 역시 도입 당시 선택 비중이 4%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11%로 높아짐.

○ 2001년 기준 지급옵션 선택 비중은 종신연금 45%, IPRO 27%, MDO 17%, SWAT 11% 순임.

〈그림 6〉 TIAA-CREF 가입자의 지급옵션 선택 추이



자료: Ameriks(2002)에서 수정 작성함.

을 강화시켰는데, 이러한 조치는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2) 혼합방식 활용

■ 지급옵션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들은 한 가지 옵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및 고용형태에 따라 옵션을 변경하고 혼합할 수 있게 됨.

○ 점진적인 은퇴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은퇴 연령 변화 등에 따라 개인들은 일시에 적립금 전부를 특정한 단일옵션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점진적·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함.

■ 개인별로 연령에 적합한 옵션의 선택이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해짐에 따라 1차 선택 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2차 선택을 하는 경향이 발견됨(〈표 1〉 참조).

○ 1차적으로 종신연금만 선택(IA only)한 사람 중 55.5%만 이 옵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41.1%는 MDO 방식이 결합된 방식으로 변경함.

○ 1차적으로 MDO만 선택(MDO only)한 사람 중 이 옵션을 지속하는 사람은 46.4%이며, 50.1%는 추가적으로 종신연금을 선택함.

- MDO와 종신연금의 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70.5세 이상 연령에서 재취업함에 따라 이전 직장의 적립금은 MDO방식으로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임.

○ 최초에 IPRO만 선택(IPRO only)한 가입자 중 이후에도 이 방식을 고수하는 가입자는 9.1%에 불과하며, 58%는 연금방식을, 20%는 MDO방식을 추가함.

○ 일시금만 선택(Withdrawals only)한 가입자도 이후 종신연금(10.5%), MDO(19.4%), IPRO(13.2%)를 추가하며, 잔여 적립금은 SWAT방식으로 인출함.

〈표 1〉 가입자의 혼합방식 활용 (1989~2001)

(단위: %)

1차 선택 후		2차 선택 후											
		Life Annuity				MDO			Interest Payment		SWAT Only	All Others	Total
		IA Only	+MDO	+IPRO	+SWAT	MDO Only	+IPRO	+SWAT	IPRO Only	+SWAT			
Life Annuity	IA Only	55.5	41.1	1.3	2.0	0	0	0	0	0	0	0	100
	+MDO	0	96.0	0	0	0	0	0	0	0	0	4.0	100
	+IPRO	0	0	74.3	0	0	0	0	0	0	0	25.7	100
	+SWAT	0	0	0	75.0	0	0	0	0	0	0	25.0	100
MDO	MDO Only	0	50.1	0	0	46.4	0	3.2	0	0.0	0	0.3	100
Interest Payments	IPRO Only	0	0	58.0	0	0	20.6	0	9.1	8.7	0	3.5	100
	+SWAT	0	0	0	0	0	0	0	0	72.7	0	27.3	100
Withdrawals Only		0	0	0	10.5	0	0	19.4	0	13.2	55.9	1.0	100

주: 1) IA onl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만 선택
2) Life annuity + MDO: 종신연금과 MDO 혼합 선택
3) Life annuity + IPRO: 종신연금과 IPRO 혼합 선택
4) Life annuity + SWAT: 종신연금과 SWAT 혼합 선택
자료: Ameriks(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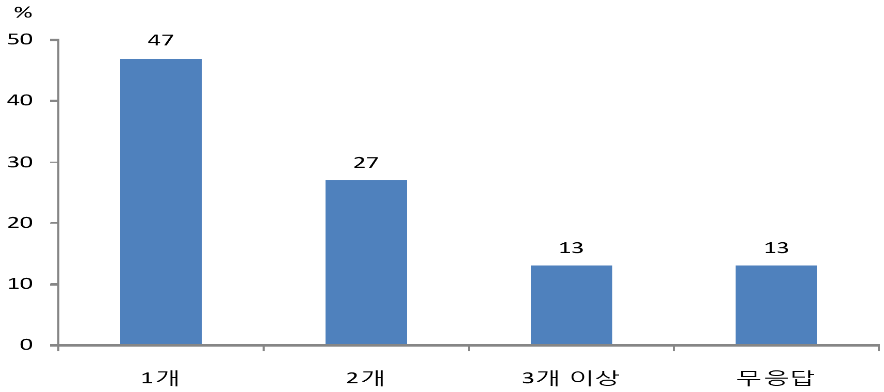
■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Yakoboski(2010년)가 TIAA-CREF의 확정기여형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 행동을 분석한 결과, 혼합옵션을 선택한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 옵션 1개만 선택한 사람은 47%이며, 2개 선택한 사람은 27%, 3개 이상 선택한 사람 비중도 13%에 달함.

○ 연금전환을 선택한 사람 중 53%는 연금급여가 확정된 정액방식을 선택하였고, 연금급여가 변동할 수 있는 변동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26%이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선택한 사람도 21%에 달함.

○ 기혼자의 82%는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연생연금을 선택하였음.

〈그림 7〉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지급옵션 선택 개수(2010)



주: 은퇴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자, DC형과 IRA제도를 통한 자산 축적이 $200,000 이상, DB형을 통한 연금소득이 월 $200 미만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함.
자료: Yakoboski(2010).

나. 성별 · 연령 · 계층별 특징

■ 1995~2001년 동안 TIAA-CREF 가입자의 지급방식 선택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단생연금 중심으로 남자는 연생연금 중심으로 선택함.

- ○ 여자가 선택한 단생연금은 순수 종신형은 감소하고 생사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보증형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 남자 역시 순수 생존형의 선택 비중은 감소하고, 생사와 무관하게 10년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10년 보증형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

〈표 2〉 최초 종신연금 가입자의 옵션 선택 추이

(단위: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여자								
연금 옵션	단생	67.6	66.6	65.7	67.2	67.5	69.3	68.0
	연생	32.4	33.4	34.2	32.8	32.5	30.7	32.0
	합계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단생 연금 옵션	순수종신	33.7	32.5	31.5	30.3	30.0	30.8	28.4
	10년보증	30.5	27.8	29.6	32.1	31.2	29.7	33.9
	15년보증	14	16.4	15.9	16.5	18.1	18.4	15.7
	20년보증	21.2	22.7	22.3	20.9	20.7	21.1	21.9
	환급형	0.6	0.6	0.7	0.2	0	0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연금 옵션	단생	25.9	26.3	26.7	27.3	28.5	29.0	29.5
	연생	74.1	73.7	73.3	72.7	71.5	71.0	7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생 연금 옵션	순수종신	35	36.4	33.8	34.7	31.4	35.5	32.3
	10년보증	24.1	26.5	25.6	26.5	26.1	26.1	30.5
	15년보증	16.2	14.3	16.3	17.6	19.2	16.8	14.3
	20년보증	23.9	22.1	23.5	21	23.2	21.5	22.9
	환급형	0.8	0.7	0.8	0.2	0.1	0.1	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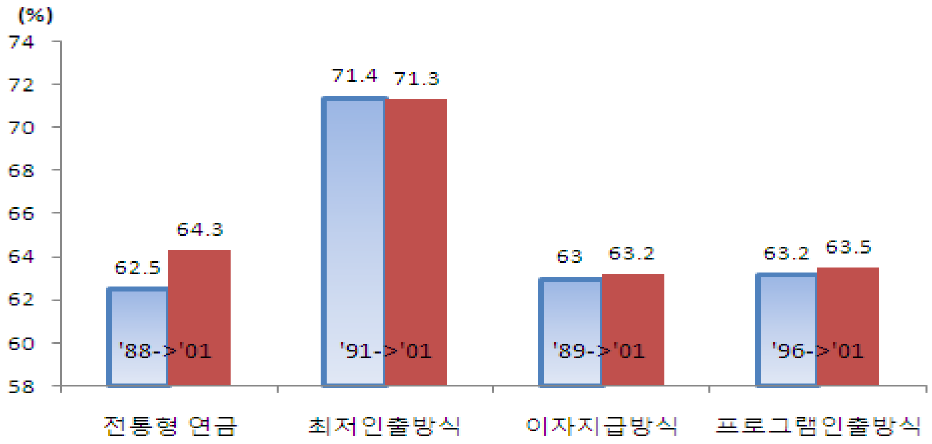
자료: Ameriks(2002).

■ 지급옵션을 1개만 선택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옵션별 평균 선택 연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형 연금의 가입연령이 늦어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발견됨(〈그림 8〉 참조).

○ IPRO와 SWAT을 선택하는 연령은 60대 초반(63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MDO도 71세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음.

○ 이에 비해 은퇴 시점이 늦추어지고, 연금 이외 다양한 지급옵션의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연령(1988년: 62.5세 → 2001년: 64.3세)은 뚜렷하게 높아짐.

〈그림 8〉 지급옵션별 최초 선택 연령 추이



자료: Ameriks(2002)를 근거로 저자가 작성함.

4. 소득흐름방식 선택 유도 정책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부 일시금이 아닌 정기적인 소득방식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립단계에서부터 은퇴 후 수령 가능한 소득흐름으로 표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전환을 투자보다는 소비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인식하도록 소비자의 "인식 틀(frame)"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가. 소비 중심 인식 형성

■ 종신형 연금상품은 가입 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소비(consumption)로 인식하는가 혹은 투자(investment)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리 나타남(Brown et al., 2008).

○ 소비자 대상 실험 결과, 연금상품을 종신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소득흐름으로 설명하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리스크와 수익에 초점을 둔 투자 중심으로 설명하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남(〈표 3〉 참조).

- 연금상품은 조기 사망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령한 연금소득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초점을 두면 이를 원본손실 리스크로 인식하게 됨.

○ 월 650 달러를 종신 동안 지급하는 연금상품을 소비에 초점을 두고 표현하면, 저축계좌에 비해 연금 선호 비율이 72%에 달하나, 투자에 초점을 두고 표현하면 선호 비율이 21%로 낮아짐.

〈표 3〉 표현방식에 따른 종신연금 선호도(소비 vs. 투자)

구분	소비 중심 (consumption frame)	투자 중심 (investment frame)
종신연금(월 $650 지급)에 대한 선호 비율		
4% 이자지급, 저축계좌	72%	21%
월 $650 지급, 20년 확정형연금	77%	48%
월 $500 지급, 35년 확정형연금	76%	40%
월 $400 영구 지급, 국채	71%	27%
원본 보전 연금 (월 $625)에 대한 선호 비율		
4% 이자지급, 저축계좌		47%
응답자 수	352명	321명

주: 1) 소비와 관련된 용어는 "소비(spend)" 와 "지급(payment)", 투자 관련 용어는 "투자(invest)"와 "소득(earnings)"임.
2)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3) 지급 후 잔여 적립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Brown et al.(2008)에서 수정 작성함.

■ TIAA-CREF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에 대해 가입자가 소비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현행 「ERISA법」에서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명세서에 적립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가입자들은 적립금을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퇴직시점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런 부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IAA-CREF에서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은퇴소득 추정치(Retirement Income Proje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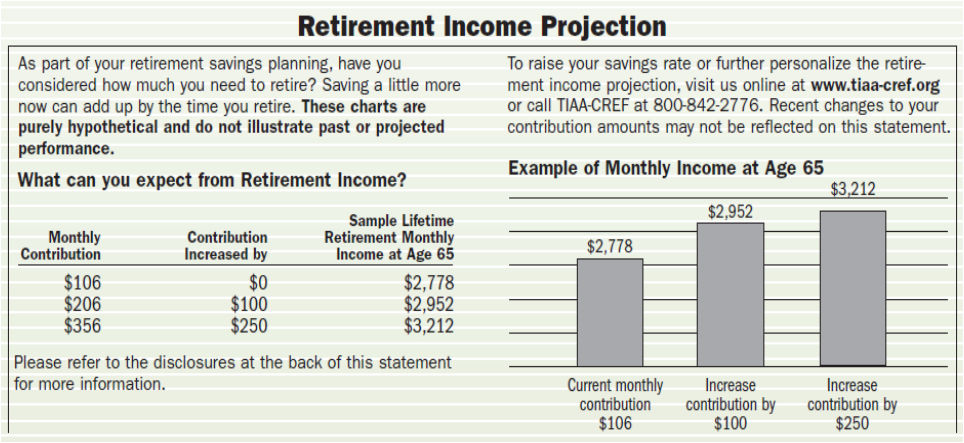
○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제공되는 급여 명세서에 은퇴 후 수령 가능한 소득 추정치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입자에게 소득흐름 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킴.

○ 월 연금급여 추정 시 공적연금 수령 시점(65세: 8개월)에서 단생연금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며, 현재 적립금 및 기여금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또한, 월 기여금을 $100 또는 $250 증가시킬 경우 수령 가능한 연금급여 수준도 추가적으로 예시함.

○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가 아닌 소비 중심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가입자의 소득흐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함.

〈그림 9〉 TIAA-CREF 은퇴소득 추정 예시(급여 명세서)



Retirement Income Projection

As part of your retirement savings planning, have you considered how much you need to retire? Saving a little more now can add up by the time you retire. **These charts are purely hypothetical and do not illustrate past or projected performance.**

What can you expect from Retirement Income?

Monthly Contribution	Contribution Increased by	Sample Lifetime Retirement Monthly Income at Age 65
$106	$0	$2,778
$206	$100	$2,952
$356	$250	$3,212

Please refer to the disclosures at the back of this statement for more information.

To raise your savings rate or further personalize the retirement income projection, visit us online at **www.tiaa-cref.org** or call TIAA-CREF at 800-842-2776. Recent changes to your contribution amounts may not be reflected on this statement.

Example of Monthly Income at Age 65

자료: TIAA-CREF, Quarterly Retirement Portfolio Statement.

■ 설문조사 결과, TIAA-CREF의 확정기여형제도 가입자는 연금상품을 정기적인 소득 확보와 은퇴에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정기적인 소득 확보 27%, 노후에 적합한 안전 상품 22%, 재정자문가(advisor)의 권유 21%, 종신소득보장 16% 등으로 조사됨.

〈표 4〉 확정기여형제도 가입자의 연금옵션 선택 이유

구분	비중
정기적 월 소득 확보	27%
노후에 적합한 안전한 상품	22%
재무자문가의 연금구매 권유	21%
종신 기간 동안 보증되는 소득원	16%
사용자에 의해 제공(선택사항 아님)	9%
다른 소득원을 보완	8%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자산	4%
기타	5%
모름	9%

주: 1) 은퇴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자, DC형과 IRA제도를 통한 자산 축적이 $200,000 이상, DB형을 통한 연금소득이 월 $200 미만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함.
2) 복수응답 허용.
자료: Yakoboski(2010).

■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소득흐름 중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금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TIAA-CREF의 확정기여형제도 가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1%가 은퇴소득 추정치를 접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60%는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기여금을 늘리겠다고 응답함.

○ 2009년 12월 3일 일부 상원의원[23)]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퇴시점에 수령 가능한 종신소득 개념으로 전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S.2862: Lifetime Income Disclosure Act)을 발의함.

■ TIAA-CREF의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지급단계에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적립단계에서부터 자산운용 시 연금상품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연금전환 비중을 높임(Yakoboski 2010).

○ 적립단계에서 연금상품을 투자포트폴리오로 편입한 가입자는 은퇴시점에서 실제 연금전환 비중도 높게 나타남.

23) Jeff Bingaman, Johnny Isakson, Herb Kohl.

○ 자산축적단계에서 구입한 연금상품은 가입 시점의 위험률이 적용되므로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적립금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데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음.

○ 자산축적단계와 지급단계가 통합 운영되면 퇴직시점에서 연금전환으로 자연스러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및 역선택 비용도 축소시킬 수 있음.

나. 정보제공 및 교육

■ 은퇴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지급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의사결정(informed choice)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수적임.

○ 정보제공 단계에서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갖는 장단점, 보장성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TIAA-CREF는 전화, 대면방식의 일대일 상담, 은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지급방식을 설명하는 인쇄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
- 관련 정보를 실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은퇴임박 시점이 아니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충분히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 교육단계에서는 관련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선택 가능한 방법과 이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식을 배양시켜야 함.

■ 노후소득은 공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A, 개인저축 등 모든 자산에서 창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은퇴계획 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

○ TIAA-CREF는 연금소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분 연금전환을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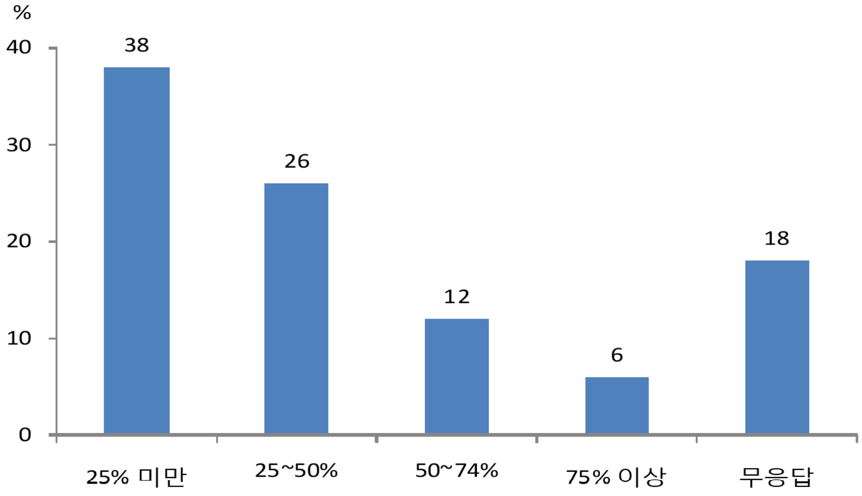
○ 다만, 부분 연금전환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금방식 이외의 지급옵션 선택 시 초기 인출률을 높게 설정하면 생존 중에 적립금이 소진될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TIAA-CREF의 확정기여형제도에서 연금전환 옵션을 선택한 사람은 전부 연금전환보다 부분 연금전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10〉 참조).

○ 연금전환을 선택한 가입자 중 64%가 적립금의 50% 미만을 연금으로 전환시킴(25% 미만: 38% vs. 25~50%: 26%).

○ 적립금의 50~74%, 75% 이상을 연금으로 전환시킨 사람은 전체 연금전환을 선택한 사람의 12%, 6%에 불과함.

〈그림 10〉 연금전환 선택 시 적립금 대비 연금전환 비중



주: 은퇴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자, DC형과 IRA제도를 통한 자산 축적이 $200,000 이상, 확정급여형제도를 통한 연금소득이 월 $200 미만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함.
자료: Yakoboski(2010).

■ Yakoboski(2010)의 분석에 의하면, 재정자문가를 통한 정보 획득과 연금에 대한 개인의 지식도 연금전환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 연금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중 50%는 재정자문가의 조언에 따라 연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연금전환을 선택한 사람 중 71%는 재정자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금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중 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6%에 불과하며, 3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관련 정보가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 가격경쟁력

■ TIAA-CREF에서 제공하는 연금상품은 경쟁상품인 뮤추얼펀드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0년대 연금전환과 관련된 판매수수료는 6~10%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3~5% 수준으로 낮아짐.

○ 뮤추얼펀드의 판매수수료가 5~8%에 달하고, 매년 판매보수 1%를 부과하기 때문에 경쟁상품 대비 연금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됨.

5. 시사점

> 현재 전부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정부는 일시금 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도 지급옵션을 다양화하여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소비 중심의 인식 형성 및 정보제공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전부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시금 제한 정책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지급옵션 제공이 필요함.

■ 정부는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한함으로써 은퇴 초기에는 유연성을 높이되 장수 리스크가 커지는 은퇴 후기에는 안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함.

○ 퇴직 시점에서 적립금 전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되, 은퇴 초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식(예: 일시금, 프로그램인출 등)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장수리스크에 취약한 소규모 적립금 소유자 및 고연령자에게는 높은 소비수준이 가능한 종신연금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양한 지급옵션을 개발하고, 혼합방식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지급옵션을 상품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개인계좌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연금선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립금 전부를 일시에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전략보다는 연금전환 시점과 방식을 분산시키는 부분 연금전환 전략이 더 바람직함.

- 부분 연금전환은 전부 연금전환 시 포기해야 하는 자산에 대한 통제력과 재무적 유연성 저하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연금 선택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지급방식에 대한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장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입자의 인식을 투자보다는 소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며, 적립단계에서부터 소득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연금전환에 대한 가입자 교육과 객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정책당국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AON Hewitt(2011. 9. 1),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활용.

Ameriks, J.(2002), "Recent Trends in The Selection of Retirement Income Streams among TIAA-CREF Participants", Research dialogue, TIAA-CREF Institute.

Brown, J., Kling, J., Mullainathan, S., and Wrobel, M.(2008), "Why don't the People Insure Late Life Consumption? a Framing Explanation of the Under-Anuitization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8(2).

Butler, M. and Teppa, F.(2005), "Should You Take a Lump-Sum or Annuitize?", Swiss Pension Funds Working Papers.

TIAA-CREF, Company History(http://tiaa-cref.org/about/press/about_us/history.html).

TIAA-CREF, Quarterly Retirement Portfolio Statement(http://tiaa-cref.org/public/about/news/gen0906_178.html).

TIAA-CREF(2010. 4. 30), Re: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for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

TIAA-CREF(2011), "TIAA-CREF Retirement Strategies-Helping You Reach Your Retirement Savings Goals", TIAA-CREF financial series.

Yakoboski, P.(2010), "Retirees, Annuitization and Defined Contribution Plans", Trends and Issues, TIAA-CREF Institute.

Ⅱ.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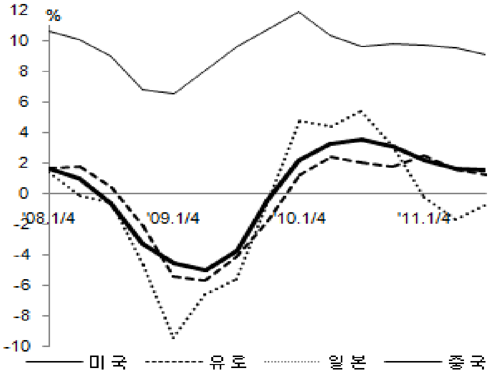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011년 3/4분기 들어 일본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사라지고 국제유가 급등세가 꺾였으나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택경기 부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됨.

■ 3/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부진으로 전분기에 이어 성장률이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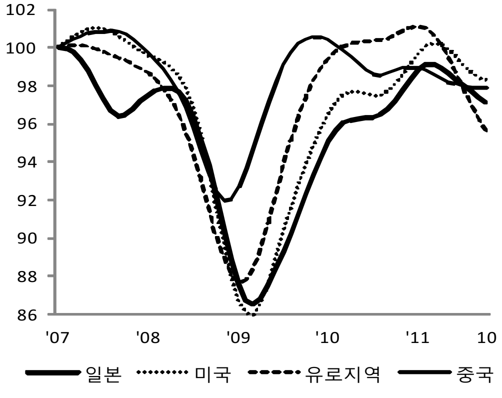
- ○ 선진국 경제는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재정긴축 강화,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이 경기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 ○ 신흥국 경제는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둔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중국의 금융긴축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됨.
- ○ 경기선행지수가 주요국 모두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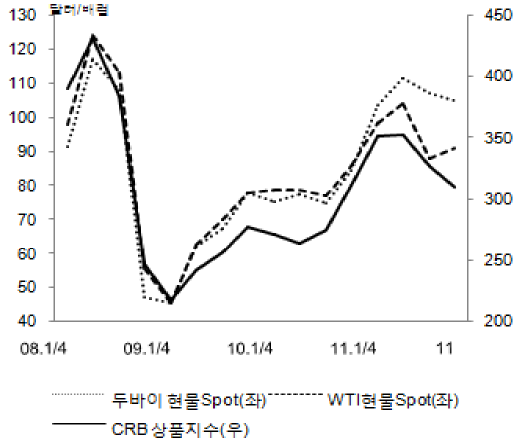
주: 2007.1=100
자료: OECD.

■ 3/4분기 들어 국제유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세가 꺾임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됨.

○ 두바이 국제유가는 2/4분기에 배럴당 평균 111.5달러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상승했으나 3/4분기에는 107.2 달러로 하락했으며 CRB지수[1])도 2/4분기에 352.9에 도달한 후 3/4분기에 327.6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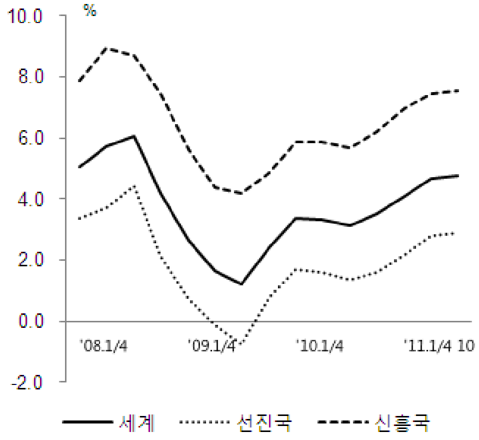
○ 선진국과 신흥국의 2/4분기 소비자물가[2])상승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6%p 상승했으나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2%p 상승에 그침.

〈그림 3〉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주: CRB 상품지수 1967=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IMF.

■ 3/4분기 세계무역액은 경기둔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선진국 무역액 감소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4분기에 24.3%까지 높아졌으나, 3/4분기에는 20.0%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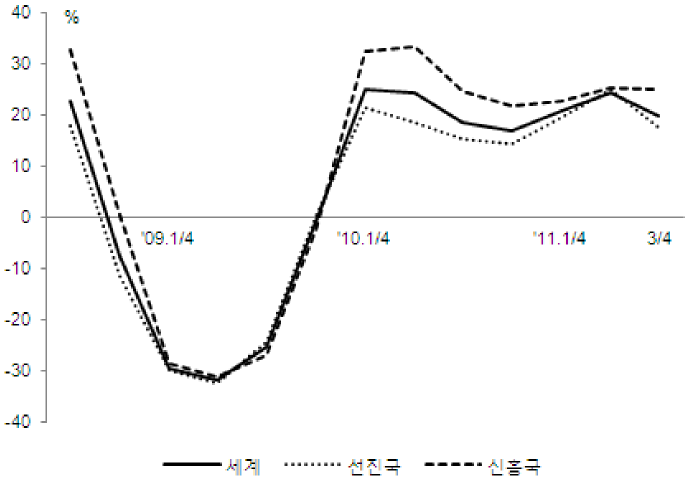
---

1)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IMF.

○ 3/4분기 신흥국의 무역액 증가율(25.1%)은 2/4분기(25.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선진국의 무역액 증가율은 2/4분기보다 7.4%p 낮은 17.6%를 기록함.

〈그림 5〉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MF.

가. 미국경제

2011년 3/4분기 미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전분기대비 1.8%(연율) 성장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미국경제는 대내외 부문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1.8%(연율) 성장함.

○ 민간소비의 경우 실질임금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서비스부문 지출이 전분기대비 1.9% 증가했고 재화부문 지출이 1.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 늘어남.

○ 설비투자 지출은 기계류와 장비 모두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15.7% 늘어났으나, 2/4분기 중 4.2% 증가했던 주택투자 지출은 3/4분기 들어 1.3% 증가에 그침.

○ 수출은 전분기대비 1.1%p 늘어나 4.7% 증가했고, 수입은 전분기대비 0.2%p 감소하여 1.4% 증가함.

○ 정부지출은 주정부지출 감소세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0.1% 감소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연율,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3.0	1.7	3.8	3.9	3.8	2.5	2.3	0.4	1.3	1.8
민간소비	2.0	2.3	0.4	2.7	2.9	2.6	3.6	2.1	0.7	1.7
서비스	0.9	-0.1	0.4	1.0	2.5	1.6	1.3	0.8	1.9	1.9
재화	4.3	7.6	0.5	6.4	3.8	4.8	8.3	4.7	-1.6	1.4
설비투자	4.4	-3.3	-3.7	6.0	18.6	11.3	8.7	2.1	10.3	15.7
주택투자	-4.3	17.8	-3.8	-15.3	22.8	-27.7	2.5	-2.4	4.2	1.3
수출	11.3	13.9	23.5	7.2	10.0	10.0	7.8	7.9	3.6	4.7
수입	12.5	16.3	17.4	12.5	21.6	12.3	-2.3	8.3	1.4	1.2
정부지출	0.7	1.3	-0.9	-1.2	3.7	1.0	-2.8	-5.9	-0.9	-0.1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1.1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3])는 고용여건 개선 부진, 주택경기 부진, 긴축재정, 은행의 신용 제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1~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 FOMC는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종전(6월)의 2.7~2.9%에서 1.6~1.7%로, 3.3~3.7%에서 2.5~2.9%로 하향 조정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12])(%)	9.6	9.7	9.6	9.6	9.6	8.9	9.1	9.1	9.0	8.6
(u-6)[11])(%)	16.8	16.7	16.7	16.8	16.9	15.9	16.0	16.3	16.2	15.6
비농업취업자 증감[1])(천 명)	1,018	196	543	-137	416	361	290	441	100	120
실업수당 청구자수[14])(만 명)	45.9	47.2	46.7	46.3	43.6	40.7	42.6	41.4	40.5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2])(%)	1.6	2.4	1.8	1.2	1.3	2.1	3.4	3.8	3.5	3.4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3	0.9	0.9	0.7	1.1	1.5	1.9	2.1	2.2
생산자물가 상승률[2])(%)	4.2	4.9	4.4	3.8	3.8	4.9	6.9	6.8	5.9	5.7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1.2	1.0	1.1	1.5	1.4	1.8	2.2	2.6	2.8	2.9
소매판매 증가율[3]) (%)	6.8	2.1	1.6	0.9	3.2	2.6	1.1	1.1	0.7	-
소비자신뢰지수[7])	54.5	51.7	58.2	50.9	57.0	66.9	61.8	50.3	40.9	56.0
주택착공호수 증가율[5])(%)	6.6	8.3	-2.1	-2.9	-7.8	10.1	3.7	0.1	0.7	5.4
주택가격지수[6])	145.6	146.3	147.4	146.1	142.8	141.3	141.1	140.2	138.6	-
산업생산지수 상승률[9])(%)	5.3	2.0	1.7	1.6	0.8	1.2	0.2	1.5	0.3	0.1
산업생산가동률[13])	74.5	72.3	74.0	75.5	76.1	76.8	76.7	77.6	78.0	77.8
ISM제조업PMI	57.2	58.2	57.6	55.2	57.9	61.1	56.4	51.0	50.8	52.7
출하대비 재고율[10])(%)	1.32	1.32	1.32	1.33	1.33	1.31	1.33	1.33	1.33	-
경기선행지수[8])	109.8	108.4	109.8	109.7	111.3	113.4	114.7	116.1	117.4	118.0

주: 1)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감,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5)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6)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정조정, 2000. 1=100, 7) 1985=100, 8) 2004=100, 9) 전분기대비 상승률,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12) 16세 이상, 계절조정, 13) 2007=100, 1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3) FOMC(2011. 12),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고용과 물가〉

■ 3/4분기 중 비농업 취업자는 전분기대비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자는 감소했으나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으로써 고용 상황은 다소 혼재된 모습임.

○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와 같은 9.1%를 기록했으나, 구직자 포기와 임시직을 포함하는 포괄적 실업률(U-6)[4]은 2/4분기 16.0%에서 16.3%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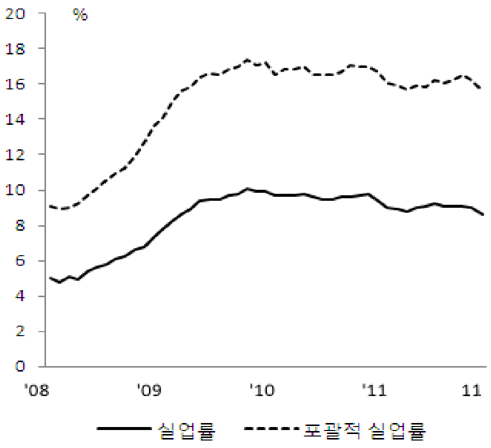
○ 2/4분기에 29만 명 증가했던 비농업취업자 수는 3/4분기에 44만 1천명으로 증가함.

○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월 평균)는 2/4분기 42만 6천 명에서 3/4분기 41만 4천 명으로 감소함.

■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식료품가격, 근원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3.8%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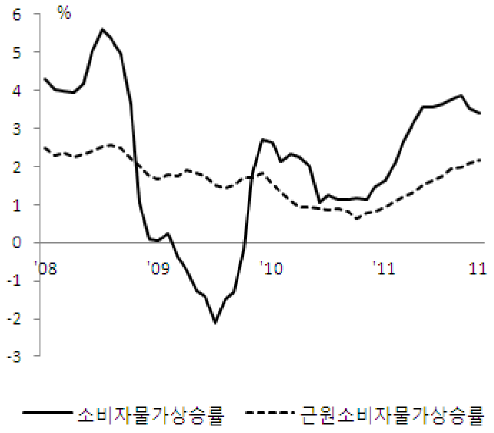
○ 3/4분기 중 에너지가격과 식료품가격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6%, 4.3% 상승했고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함.

〈그림 6〉 실업률 추이



주: 포괄적 실업률 = U-6
자료: U.S. Census Bureau.

〈그림 7〉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U.S. Census Bureau.

4) 구직포기자 ·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를 반영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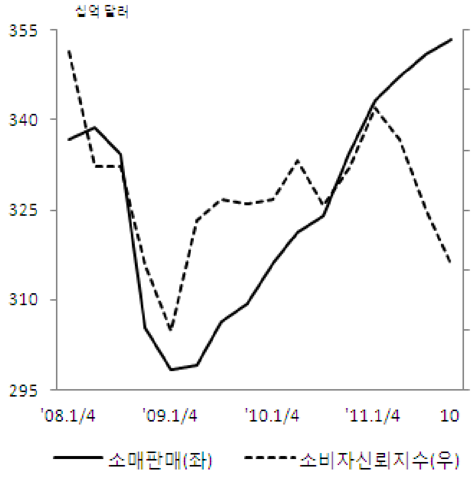
■ 3/4분기 중 소매판매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소비자 체감경기 악화와 주택경기 부진 지속으로 내수부문은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임.

○ 소매판매는 2/4분기(1.1%)에 이어 3/4분기에도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61.8을 기록한 후 3/4분기에 50.3으로 크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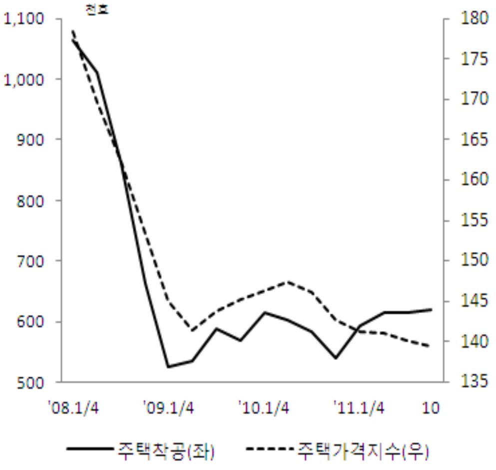
○ 3/4분기 주택착공은 전분기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주택가격 수준은 유질처분(foreclosure)이 증가하는 가운데 3/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함.

〈그림 8〉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비자신뢰지수는 1985=100
자료: U.S. Census Bureau, Conference Board.

〈그림 9〉 주택시장 추이



주: 주택가격은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S&P/Case-Sh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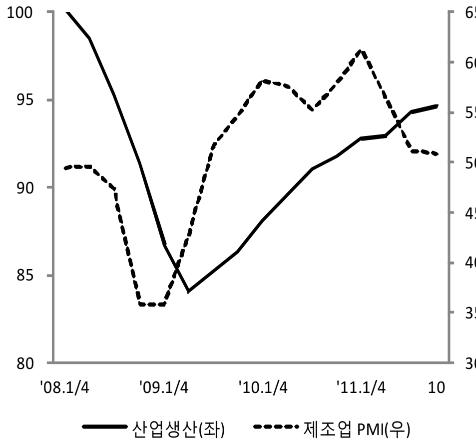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는 3/4분기 들어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빠른 하락세를 시현함으로써 향후 생산부문에서 둔화세가 예상됨.

○ 2/4분기 중 정체 또는 하락하였던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은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각각 1.5%, 1.8%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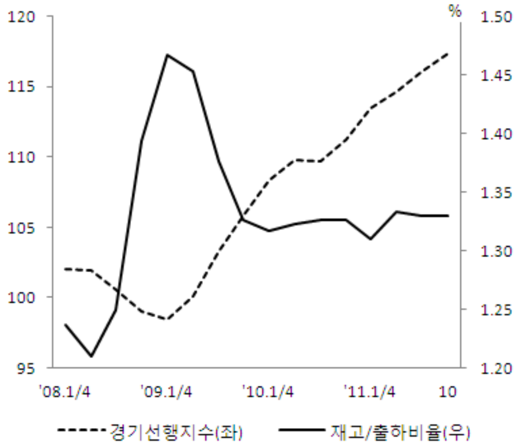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4분기 56.4에서 3/4분기 51.0으로 빠르게 하락함.

〈그림 10〉 산업생산지수와 제조업 PMI



주: 산업생산지수는 2007=100
자료: U.S. Census Bureau,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그림 11〉 경기선행지수와 출하대비재고율



주: 경기선행지수는 2004=100
자료: Conference Board,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11년 3/4분기 유로경제는 재정긴축, 신용 제한, 해외수요 감소가 경기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대내외 부문이 모두 부진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유로경제는 소비, 투자, 정부 부문, 수출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1.4%(연율) 성장하였고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함.

○ 민간소비는 소비자체감경기 악화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0.3% 증가에 그쳤고, 고정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전분기와 같은 1.6% 증가에 그침.

○ 정부지출은 재정긴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0.1% 감소함.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분기대비 5.5%, 3.6% 증가하여 2/4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입의 둔화폭이 커 순수출은 소폭 증가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EA17 GDP	1.9	-4.1	-2.1	0.8	2.0	2.0	2.0	2.4	1.7	1.4
민간소비	0.9	-1.3	-0.5	0.4	0.7	1.0	1.1	1.0	0.3	0.3
고정자본	-0.7	-11.4	-8.7	-4.8	-0.6	0.6	1.2	3.7	1.6	1.6
정부지출	0.4	3.0	2.0	1.1	0.7	0.3	-0.2	0.3	0.1	-0.1
수출	11.1	-13.6	-5.2	7.0	12.7	11.7	11.5	9.7	6.2	5.5
수입	9.3	-12.4	-7.0	3.6	11.0	10.5	10.7	8.1	4.4	3.6

자료: 유럽중앙은행.

■ 2/4분기 부진한 성장에 그쳤던 독일과 프랑스는 3/4분기에도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감.

○ 독일은 3/4분기 중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0.8% 증가하고, 고정자본투자는 전분기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0.5% 성장함.

○ 프랑스는 3/4분기 중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0.3% 증가하고, 고정자본투자와 수출이 각각 0.4%, 0.7% 증가하면서 0.4% 성장함.

〈표 4〉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독일 GDP	3.7	0.8	0.7	0.5	1.9	0.8	0.5	1.3	0.3	0.5
민간소비	0.6	-0.7	-0.2	-0.0	0.8	0.4	0.5	0.5	-0.6	0.8
고정자본	5.5	0.6	-0.0	0.2	5.7	1.6	-0.2	4.1	0.4	0.9
수출	13.7	5.1	2.1	3.2	7.5	2.2	1.3	1.6	3.5	2.0
수입	11.7	6.0	-1.0	5.4	6.3	1.8	1.4	1.2	3.6	3.2
영국 GDP	1.4	0.2	0.7	0.2	1.1	0.6	-0.5	0.4	0.1	0.5
민간소비	0.8	0.3	1.0	-0.1	0.7	-0.1	-0.1	-0.6	-0.6	0.0
고정자본	3.0	1.2	0.3	4.3	-2.1	1.1	-0.5	-2.8	1.7	-0.2
수출	5.3	0.9	3.7	-0.3	3.7	0.2	3.9	1.5	-1.3	-1.0
수입	8.5	1.1	4.1	2.3	2.8	2.6	1.6	-2.9	-0.3	0.3
프랑스 GDP	1.4	0.2	0.6	0.2	0.5	0.4	0.3	0.9	-0.1	0.4
민간소비	1.3	0.2	0.8	0.1	0.1	0.7	0.4	0.3	-0.8	0.3
고정자본	-1.4	-1.3	-0.6	-1.2	1.2	0.8	0.4	1.2	0.6	0.4
수출	9.3	1.2	0.7	4.7	3.1	2.1	0.2	1.3	0.5	0.7
수입	8.3	-0.3	3.5	1.8	3.4	4.2	-0.3	3.1	-1.2	0.3

자료: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 유럽중앙은행(ECB)[5]은 추가 재정 긴축, 신용 제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 ECB는 2011년과 2012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을 각각 1.6%, 0.8%로 하향 조정함.

○ 3/4분기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는 전분기대비 6.9p 감소한 98.8을 기록하여 5분기 만에 경기침체 경계인 100 이하로 하락했으며 10월에는 94.8, 11월에는 93.7로 하락함.

5) ECB(2011. 11), Monthly Bulletin November.

〈표 5〉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EA17										
ESI[1]	100.9	96.6	99.2	102.3	105.7	107.4	105.7	98.8	94.8	93.7
실업률[2](%)	10.1	10.1	10.2	10.1	10.1	10.0	10.0	10.1	10.3	-
소비자물가 상승률[3](%)	1.6	1.1	1.6	1.7	2.0	2.5	2.7	2.7	3.0	3.0
소매판매 증가율[4](%)	0.6	0.7	-0.2	0.4	-0.3	-0.1	-0.3	0.0	-0.1	-
소비자신뢰지수[5]	-14.0	-16.8	-16.7	-12.1	-10.4	-10.6	-10.4	-15.6	-19.9	-20.4
산업생산 증가율[6] (%)	7.1	2.3	2.6	1.6	1.7	1.0	0.2	0.6	-0.3	-
제조업기대지수[5]	11.5	7.5	10.2	11.3	16.8	19.0	13.4	5.3	-0.1	-
독일										
ESI[1]	107.2	97.8	105.5	110.7	115.2	116.1	114.9	108.2	104.1	104.0
실업률[2](%)	6.9	7.5	7.2	7.0	6.7	6.3	6.0	5.8	5.5	-
소비자물가 상승률[3](%)	1.2	0.8	1.0	1.2	1.6	2.2	2.5	2.7	2.9	2.8
소매판매 증가율[4](%)	0.1	-0.2	0.6	0.8	-0.9	0.8	-0.5	1.2	0.0	-
소비자신뢰지수[5]	-3.2	-16.1	-8.4	2.6	9.1	8.7	8.9	2.2	-3.3	-2.9
산업생산 증가율[6] (%)	11.1	2.3	5.0	2.0	2.6	1.8	1.6	1.9	-0.8	-
제조업기대지수[5]	17.9	12.0	17.3	18.5	23.5	24.0	17.2	6.0	-0.9	1.1
프랑스										
ESI[1]	100.7	99.7	99.8	101.7	105.7	109.3	107.8	100.5	105.9	93.2
실업률[2](%)	7.8	9.9	9.8	9.8	9.7	9.7	9.7	9.8	9.8	-
소비자물가 상승률[3](%)	3.3	1.5	1.8	1.8	1.9	2.0	2.2	2.3	2.5	2.7
소매판매 증가율[4](%)	4.1	1.6	0.6	2.4	-0.4	1.2	-0.2	0.8	0.3	-
소비자신뢰지수[5]	-18.7	-17.2	-21.0	-19.3	-17.2	-19.1	-18.0	-24.3	-24.3	-30.9
산업생산 증가율[6] (%)	4.9	2.7	0.8	0.1	0.1	1.5	-0.8	0.6	-0.6	-
제조업기대지수[5]	5.4	1.4	1.4	5.5	13.4	20.6	14.4	10.0	4.5	-1.6
영국										
ESI[1]	101.4	99.1	101.2	101.5	100.7	101.8	100.5	93.6	89.5	88.9
실업률[2](%)	9.8	7.9	7.8	7.7	7.8	7.7	7.9	8.2	-	-
소비자물가 상승률[3](%)	1.7	3.3	3.4	3.1	3.4	4.1	4.4	4.7	5.0	4.8
소매판매 증가율[4](%)	0.6	-2.1	1.2	1.1	-0.2	-0.1	0.3	0.2	0.5	-
소비자신뢰지수[5]	-11.6	-4.1	-8.9	-15.7	-17.5	-22.4	-18.6	-20.0	-24.0	-23.5
산업생산 증가율[6] (%)	2.4	1.6	1.2	0.2	0.9	-0.1	-1.4	0.2	-0.1	-
제조업기대지수[5]	19.4	8.3	16.2	11.4	19.4	23.6	18.1	10.3	-7.7	-3.1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증가율,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1. 7);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고용과 물가〉

■ 프랑스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3/4분기 유로지역 평균 고용 상황은 전분기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은 10.1%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평균은 전분기대비 0.1% 감소함.

○ 3/4분기 실업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한 국가는 독일, 북유럽 4개국[6], 오스트리아 등에 불과하며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남유럽[7] 국가의 실업률은 상승함.

- 독일(6.0% → 5.8%), 북유럽 4개국(6.5% → 6.4%), 오스트리아(4.1% → 3.8%)의 실업률은 하락함.
- 프랑스(9.7% → 9.8%), 영국(7.9% → 8.2%), 남유럽(14.6% → 15.2%)의 실업률은 상승함.

■ 3/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의 경우 상승한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 하락하여 평균적으로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하여 전분기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전년동기대비 에너지가격은 12.0%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0.5%p 높아졌고, 근원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0.3%p 낮아짐.

○ 독일(2.5% → 2.7%), 프랑스(2.2% → 2.3%), 영국(4.4% → 4.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높아진 반면, 북유럽(2.4% → 2.3%), 남유럽(3.3% → 2.7%), 동유럽[8] (3.9% → 3.2%)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됨.

---

6)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7)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8)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크공화국,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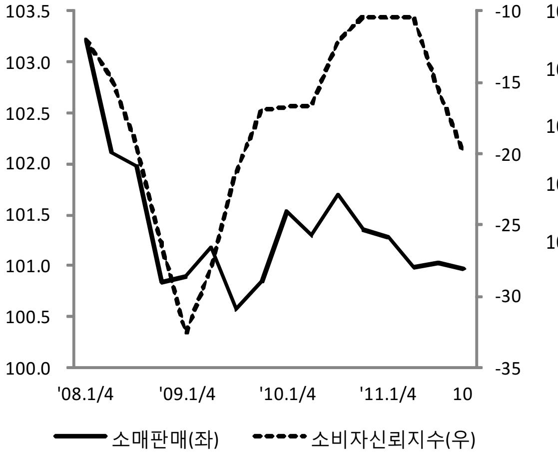
〈내수부문〉

■ 3/4분기 소매판매는 0.0% 증가하여 정체되었으며, 소비자 체감경기는 전 유로지역에 걸쳐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중 독일, 프랑스의 소매판매는 각각 1.2%, 0.8%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의 소매판매는 하락하여 유로지역 평균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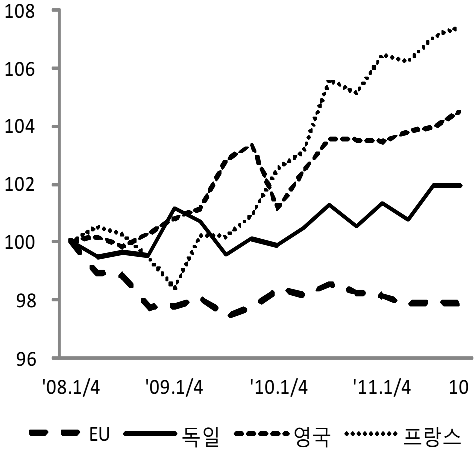
○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에 -15.6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5.2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유로지역 모든 국가에서 나타남.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지수는 2005=100, 소비자신뢰지수 장기평균= -12.0
자료: eurostat(2011. 9).

〈그림 13〉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주: 각국의 소매판매지수(2005=100)를 2008년 1/4분기=100으로 환산함.
자료: eurostat(2011. 9).

〈생산부문〉

■ 3/4분기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생산부문의 경기체감지수는 빠른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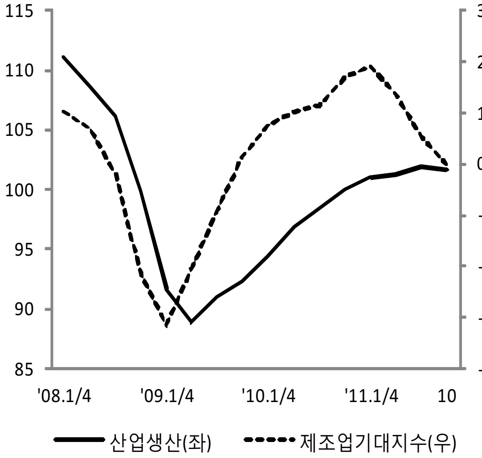
○ 3/4분기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0.6% 증가하여 둔화세가 지속됨.

- 특히 10월에는 독일(-0.8%), 프랑스(-0.6%), 영국(-0.1%)을 비롯한 대부분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이 전분기대비 감소함.

○ 유로지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2/4분기 13.4, 3/4분기 5.3, 10월 -0.1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하락세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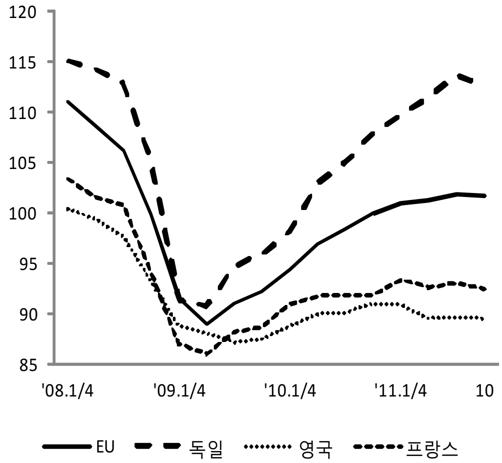
-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2/4분기에 각각 17.2, 14.4, 18.1을 기록하여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3/4분기에는 각각 6.0, 10.0, 10.3으로 낮아졌고 10월에는 각각 -0.9, 4.5, -7.7로 하락함.

〈그림 14〉 유로지역의 산업생산과 제조업기대지수



주: 산업생산은 2005=100, 제조업기대지수 장기평균=6.4
자료: eurostat(2011. 12).

〈그림 15〉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주: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eurostat(2011.12).

다. 일본경제

2011년 3/4분기 일본경제는 일본지진으로 인한 여파가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내수 역시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일본경제는 전분기대비 5.6%(연율) 성장했으나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며 전년동기대비로는 -0.7% 성장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3.0%,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됨.

- 내구재(28.7%) 지출이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서비스(0.6%)와 비내구재(-1.7%) 지출은 부진함.

○ 설비투자(전분기대비 -1.6%)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에 그침에 따라 여전히 부진했고, 주택투자(전분기대비 22.4%)는 호조세를 보임.

○ 수출은 해외수요 감소,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2.7%,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분기대비 14.9%,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4.4	-0.8	7.8	6.5	4.6	2.0	0.1	-6.6	-2.0	5.6
민간소비	2.6	-0.2	6.2	2.9	0.7	1.4	1.4	-4.9	1.1	3.0
설비투자	0.5	-4.7	3.6	-5.6	20.2	2.0	-2.8	-3.5	-2.1	-1.6
주택투자	-4.3	-26.7	-14.5	13.4	6.2	2.3	12.0	7.3	-7.8	22.4
정부지출	2.1	4.9	2.0	-1.6	6.2	1.3	1.4	1.9	2.9	0.9
수출	24.2	38.1	29.9	28.9	25.7	2.7	-0.5	-0.2	-21.7	32.7
수입	11.1	22.4	6.6	10.0	26.9	6.8	0.7	4.5	1.7	14.9

자료: 일본 내각부.

■ 일본중앙은행(BOJ)[9]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엔화 강세, 해외수요 감소, 제한된 지진피해 복구 등을 감안하여 2011~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BOJ는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0.4%에서 0.3%로, 2012년 경제성장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2.2%로 하향 조정함.

〈표 7〉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5.0	5.1	5.3	5.1	4.8	4.7	4.6	4.4	4.5	4.5
비농업취업자 증감[2](만 명)	15	29	-27	15	-2	-55	-205	68	87	100
소비자물가 상승률[1](%)	-0.7	-0.9	-0.7	-1.0	-0.3	-0.5	-0.4	0.1	-0.2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1.2	-0.8	-1.2	-1.5	-1.2	-1.4	-0.9	-0.5	-1.0	-
소매판매 증가율[9](%)	2.5	3.8	3.7	3.2	-0.3	-2.7	-1.6	-1.0	1.9	-2.3
소비자신뢰지수[3]	41.4	40.7	42.1	41.8	41.0	40.5	34.2	37.5	38.6	38.1
주택착공호수 증가율[4](%)	3.3	-6.6	-1.1	14.1	6.9	3.5	4.2	8.1	-5.8	-0.3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8](%)	7.7	1.1	8.4	15.5	6.4	8.7	9.3	5.1	1.2	-
광공업생산 증가율[5](%)	16.6	27.6	20.5	13.3	6.8	-2.5	-7.0	-2.0	0.1	-4.0
- 가동률지수 증가율[6](%)	20.3	36.8	25.1	14.8	8.0	-3.8	-10.4	-1.3	3.0	-
- 재고율지수 증가율[7](%)	-17.6	-29.0	-21.9	-12.6	-3.3	0.6	11.9	7.5	0.9	7.5

주: 1) 2010=100,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3) 기준치=50, 4)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6) 2005=100,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 계절조정, 8) 변동성이 큰 선박 · 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9)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3/4분기 실업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함으로써 고용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3/4분기에 4.4%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0.2%p 하락함.

9) IMF(2011. 9), *World Economic Outlook*.

○ 비농업취업자 수는 3/4분기에 전분기대비 68만 명 증가했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87만 명, 100만 명 증가함.

■ 소비자물가는 3/4분기 중 소비심리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됨.

○ 전년동기대비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분기 -0.9%에서 3/4분기 -0.5%로 상승함에 따라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함.

- 식료품가격(-0.3%), 주거(-0.2%), 보건 · 의료비(-0.7%)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으나, 계절적인 요인 또는 대중교통비 인상 등으로 광열 · 수도(3.5%), 교통 · 통신비(1.7%), 의류비(0.3%)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3/4분기 들어 축소되었고, 소비자체감지수의 경우 상승 기미를 보임.

○ 2/4분기 1.6% 감소했던 소매판매는 3/4분기에 1.0% 감소했으며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함.

- 3/4분기 소매판매는 의류(1.1%), 식료품(1.4%)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자동차(-12.6%)와 각종 상품(-2.3%)부문에서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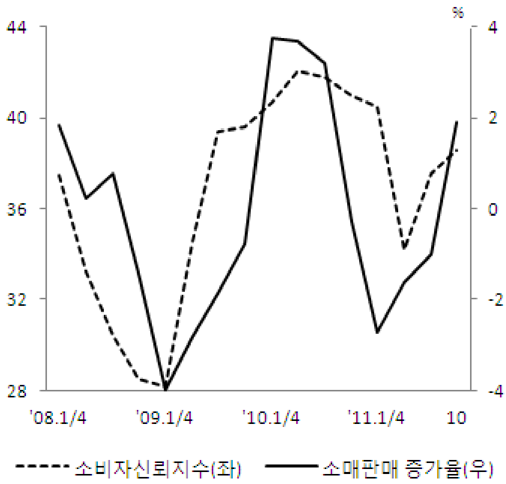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에 34.2를 기록하여 2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으나 3/4분기에는 37.5, 10월에는 38.6으로 소폭 상승함.

■ 3/4분기 민간기계수주는 2/4분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주택착공은 전분기보다 증가함.

○ 선박 · 전력을 제외한 3/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여 증가율이 2/4분기(9.3%)보다 낮아졌으며 10월에는 1.2%로 더욱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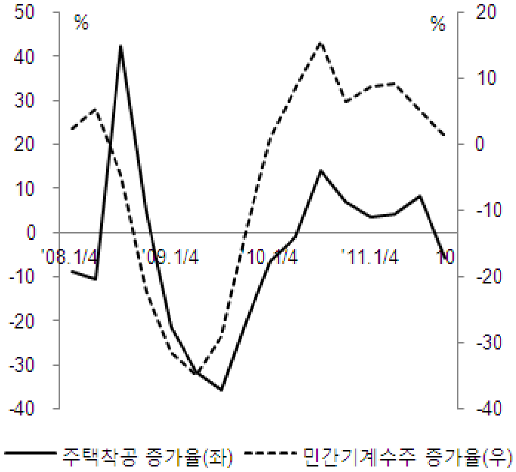
○ 주택착공호수는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2/4분기보다 3.9%p 증가함.

〈그림 16〉 소비자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그림 17〉 주택착공 및 민간기계수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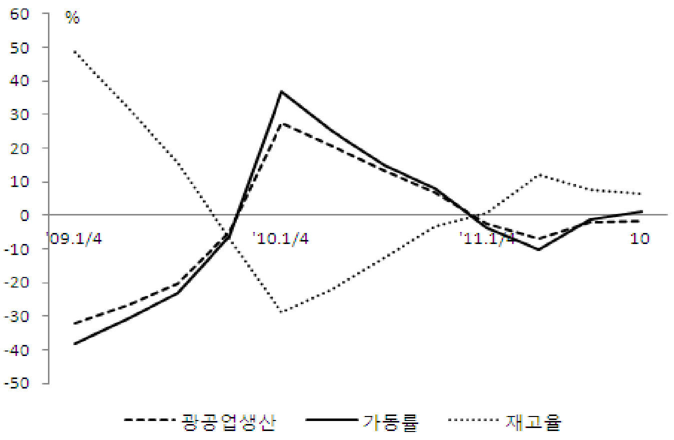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생산부문〉

■ 2/4분기 중 감소세가 확대되었던 광공업생산은 3/4분기 들어와 감소폭이 축소되는 한편 재고율도 전분기보다 낮아짐에 따라 생산부문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남.

〈그림 18〉 광공업생산, 가동률 및 재고 지수



주: 2005=100.
자료: 일본 내각부.

○ 3/4분기 광공업생산지수와 광공업가동률지수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0%, 1.3% 하락했으나 하락세는 2/4분기(-7.0%, -10.4%)에 비해 축소됨.

- 특히, 10월 들어 광공업생산지수(0.1%)와 광공업가동률지수(3.0%)는 증가세로 전환됨.

○ 3/4분기 출하대비 재고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여 2/4분기(11.9%)보다 하락하였고 10월(0.9%)에는 더욱 하락함.

라. 중국경제

2011년 3/4분기 중국경제는 물가불안으로 인한 통화 긴축, 부동산시장 과열방지, 해외수요 감소가 경기하방 리스크로 작용했으나 내수부문이 버팀목이 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최근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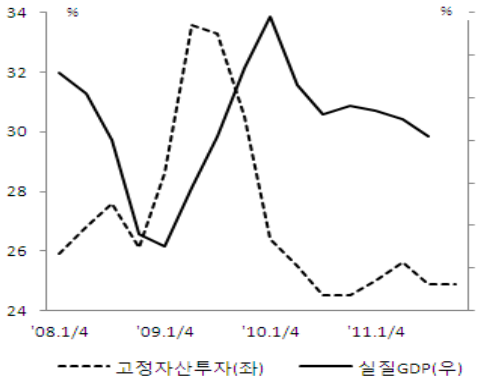
■ 3/4분기 중국의 실질 GDP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아직까지는 버팀목이 되어 전년동기대비 9.1%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 투자와 소비는 실질GDP 성장에 대한 기여를 여전히 유지함.

- 고정자산투자(누적기준) 증가율이 2/4분기 25.6%에서 3/4분기 24.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매판매증가율은 3/4분기에 17.3%를 기록하여 전분기(17.2%) 수준을 유지함.
- 소비의 기여도는 전분기(4.6%p, 누적기준)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투자의 기여도는 4%대를 기록하여 전분기(5.9%p, 누적기준)보다 다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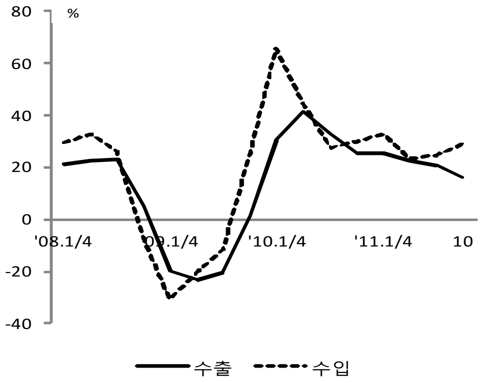
○ 수입은 늘어난 반면 유럽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실질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전분기(-0.5%p → -1.0%p)보다 하락함.

〈그림 19〉 실질 GDP와 고정자산투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20〉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전문가[10])들은 물가불안으로 현재의 통화긴축정책이 고수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련 내수 부진, 수출부진 지속 등으로 인해 2011년 4/4분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신뢰지수가 2/4분기 106.8에서 3/4분기 104.6로 낮아졌고, 기업의 체감경기지수가 2/4분기 132.4에서 3/4분기 129.4로 하락함으로써 4/4분기 내수부문의 둔화를 예상함.

○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2011년 4/4분기에 15~20%로, 2012년 1/4분기에 10~15%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2011년 4/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5%로 하향 조정함.

〈표 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 GDP(%)[2)]	10.3	11.9	10.3	9.6	9.8	9.7	9.5	9.1	-	-
고정자산투자[1)](%)	24.5	26.4	25.5	24.5	24.5	25.0	25.6	24.9	24.9	24.5
수출 증가율(%)	32.3	30.3	41.0	32.5	25.2	25.3	22.4	20.7	15.9	13.8
수입 증가율(%)	14.6	65.4	44.0	27.3	29.5	32.6	23.2	24.7	28.7	22.1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2.2	2.9	3.5	4.7	5.1	5.7	6.3	5.5	4.2
생산자물가 상승률(%)	5.5	5.2	6.8	4.5	5.7	7.0	6.9	7.1	5.0	2.7
소매판매 증가율(%)	18.4	18.4	18.5	18.4	18.8	16.3	17.2	17.3	17.2	17.3
소비자신뢰지수	105.5	105.6	107.7	106.4	102.4	102.4	106.8	104.6	100.5	-
산업생산 증가율(%)	14.5	19.8	16.0	13.5	13.3	14.9	13.9	13.8	13.2	12.4
구매자관리지수[3)]	53.8	54.3	53.9	52.2	54.6	52.8	51.9	50.9	50.4	49.0

주: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0) LI & Fung Research Center(2011. 10), LI & Fung China trade Quarterly.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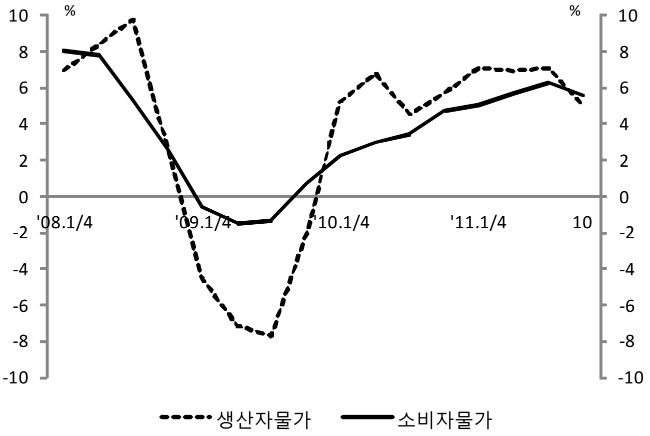
■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과 비식료품가격 모두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10월부터는 상승세가 둔화됨.

○ 3/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11.0% → 13.9%), 의류(1.8% → 2.8%), 담배 및 주류(2.6% → 3.0%) 등의 가격 상승으로 2/4분기보다 0.6%p 높은 6.3%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들어 5.5%로 낮아졌고, 11월에는 4.2%로 더욱 낮아짐.

- 식품가격의 안정,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통화 긴축 기조에 힘입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화될 기미를 보임.

〈그림 21〉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주: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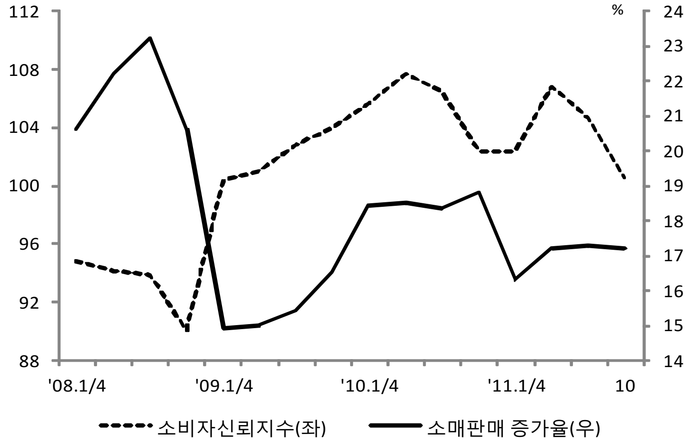
〈내수부문〉

■ 소비자체감경기 악화, 경기과열 방지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개선[11] 효과로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함.

○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17.2%)은 소득수준 개선의 효과가 통화긴축 및 소비진작 정책 효과 소진을 상쇄하면서 전분기보다 0.1%p 높아짐.

○ 2/4분기에 106.8을 기록한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들어와 104.6으로 하락하였고 10월에는 100.5로 더욱 낮아짐.

〈그림 22〉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3/4분기 중 주택착공 투자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12]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주택착공투자 증가율은 26.1%로 전분기보다 0.7%p 하락함.

---

11) 2010년에 전년동기대비 11.3%, 13.1% 증가한 도시 및 농촌의 명목가계소득은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각각 13.7%, 20.7% 증가함.

12) M2의 증가율은 2/4분기 15.4%에서 3/4분기 13.7%로 하락함.

○ 3/4분기 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38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상승했고, 20개 도시에서는 하락했으며, 17개 도시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부문〉

■ 산업생산의 경우 3/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분기 연속하여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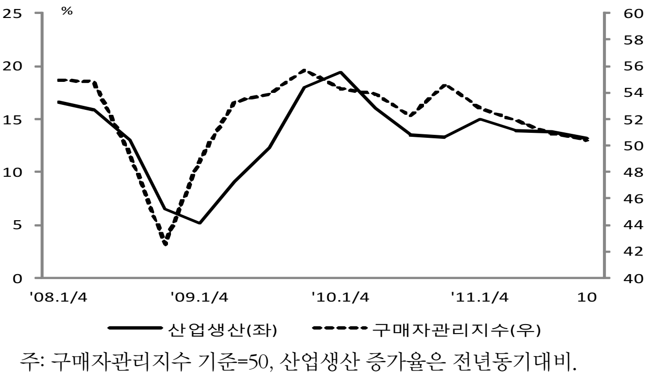
○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안정적인 소비수요와 지방정부의 공공건축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걸림돌[13]로 인해 전분기대비 0.1%p 감소(13.9% → 13.8%)함.

■ 3/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14]는 생산부문 경기침체 기준이 되는 50에 근접함.

○ 3/4분기 PMI(51.9 → 50.9)는 전분기보다 1.0p 감소했으며 11월(49.0)에는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0을 하회함.

- 3/4분기 국내 신규주문(52.2 → 51.2), 수출주문(51.0 → 49.9), 부품구매(53.0 → 51.6)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며, 11월에는 각각 47.8, 45.6, 49.8로 더욱 낮아짐.
-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금융긴축정책, 해외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그림 23〉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



주: 구매자관리지수 기준=50,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3) 통화 및 신용 긴축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부족, 임금비용 상승, 유럽의 경기부진 등은 산업생산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1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 2011년 3/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3.5% 성장하였음.

■ 2011년 3/4분기 실질 GDP는 2/4분기에 이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였으나 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4분기보다 0.1%p 상승한 3.5% 성장함.

○ 민간소비는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하락이 지속되면서 2.0% 늘어나는데 그침.

〈표 9〉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8.5 (2.1)	7.5 (1.4)	4.4 (0.6)	4.7 (0.5)	6.2	4.2 (1.3)	3.4 (0.9)	3.5 (0.8)
- 민간소비	6.6	3.5	3.6	2.9	4.1	2.8	3.0	2.0
- 설비투자	29.1	30.5	26.6	15.9	25.0	11.7	7.5	1.0
- 건설투자	4.3	-2.3	-3.1	-2.9	-1.4	-11.9	-6.8	-4.6
- 재화수출[3)]	20.8	14.7	11.6	16.9	15.8	18.7	11.5	10.5
- 재화수입[3)]	21.6	20.4	16.0	15.5	18.2	13.7	10.1	7.9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국민소득」.

○ 설비투자는 1.0% 증가에 머물렀으며,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2/4분기(-6.8%)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4.6% 증가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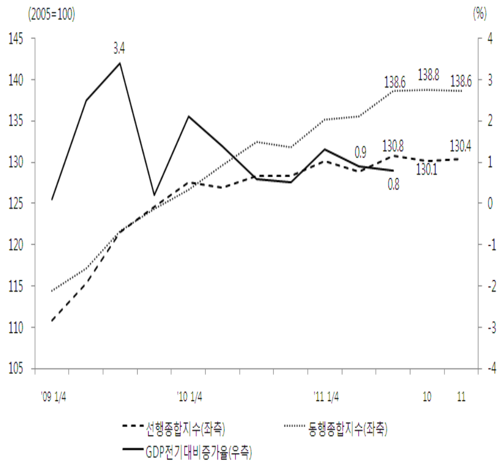
○ 재화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10.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7.9% 늘어났으나, 수출과 수입의 증가세는 2/4분기보다 모두 둔화됨.

■ 11월 경기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데 반해 선행지수는 상승하였으며, 특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과 11월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면서 9월 이후 계속해서 100p를 하회함.

○ 경기동행지수는 11월 138.6을 기록하면서 전월 138.8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6p 하락한 99.2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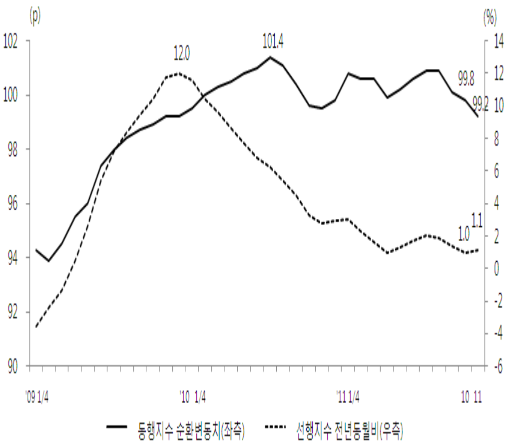
○ 11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0.3p 상승한 130.4로 나타났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개월 만에 전월보다 0.1%p 늘어남.

〈그림 24〉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5〉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10~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평균 1.4% 상승함.

○ 컴퓨터 ·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4% 늘어났으며, 10~11월에는 승용차, 컴퓨터 · 통신기기 등의 수요 증가로 월 평균 4.4% 증가함.

○ 의복 및 오락 · 취미 ·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5% 늘어났고 10월에도 3.7% 증가하였으나 11월에 2.4% 감소함.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3/4분기에 2.0%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10~11월에 월 평균 1.4% 늘어남.

〈표 10〉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4.9	7.5	5.1	6.6	5.1	5.7	4.4	2.2	0.5
- 내구재	5.6	17.0	10.6	14.9	12.9	17.5	10.4	2.9	5.8
* 승용차	-2.1	12.0	0.1	11.1	10.2	13.0	8.3	-7.7	-10.9
- 준내구재	6.2	6.6	11.1	6.8	6.1	5.6	4.0	3.7	-2.4
- 비내구재	3.3	3.0	-0.7	2.2	0.8	-0.4	2.0	3.0	-0.2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수주가 늘어났으나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5% 하락하였음.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기타기기 등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였고, 10월에는 일반기계류 등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10.7%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11월 들어 4.7%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됨.

○ 운송장비의 경우 3/4분기 3.2% 감소하였고 10월에도 기타운송장비 등의 투자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14.5%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0.8% 증가로 반전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3/4분기에 13.1% 증가하였고. 10월에 공공부문에서 일반산업용기계, 원동기 및 발전기 등과 민간부문에서 통신기계, 특수산업용기계 등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17.7% 증가하였으며, 11월에 들어서도 원동기 및 발전기 등의 발주가 대폭 늘어나면서 36.2%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표 11〉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설비투자지수	29.5	29.3	13.6	25.1	6.6	4.8	-3.5	-11.4	-3.7
- 기계류	37.1	37.4	17.1	30.5	6.8	7.0	-3.5	-10.7	-4.7
- 운송장비	2.8	-0.1	-1.2	4.3	5.6	-5.7	-3.2	-14.5	0.8
국내기계수주	19.5	-4.6	16.3	8.9	20.9	11.5	13.1	17.7	36.2
건설투자	-2.3	-3.1	-2.9	-1.4	-11.9	-6.8	-4.6	-	-
- 건설기성	-4.3	-6.8	-4.3	-3.3	-12.6	-6.6	-8.4	2.7	-8.6
건축	-7.7	-12.3	-8.5	-7.1	-15.2	-8.4	-8.2	2.4	-7.1
토목	0.6	1.9	1.2	2.2	-9.2	-4.3	-4.3	3.0	-10.5
- 국내건설수주	-6.7	-3.6	-40.2	-18.7	-12.8	-3.3	0.9	56.3	15.0
건축	55.3	-1.3	-46.4	-9.9	-9.7	-4.0	8.6	38.4	20.6
토목	-49.7	-7.0	-29.9	-29.5	-17.0	-1.5	-11.0	113.4	4.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3/4분기의 건설기성은 민간 및 공공부분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8.4% 감소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건축건설과 민간부문의 토목건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0.9% 늘어남.

○ 10~11월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의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들면서 3/4분기(−8.4%) 감소세에 이어서 평균 3.0% 감소함.

○ 건설기성 발주자별로는 3/4분기에 공공부문이 0.9%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4.9%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10~11월의 평균 실적은 공공부문이 0.2% 감소하고 민간부문은 4.7%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3/4분기에 공공부문의 건축과 민간부문의 토목공사가 모두 크게 늘어나면서 0.9%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10~11월에도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수주량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월 평균 35.7% 증가함.

- 10~11월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68.9%, 25.8%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은 10월에만 93.7% 증가하여 호조세를 나타냄.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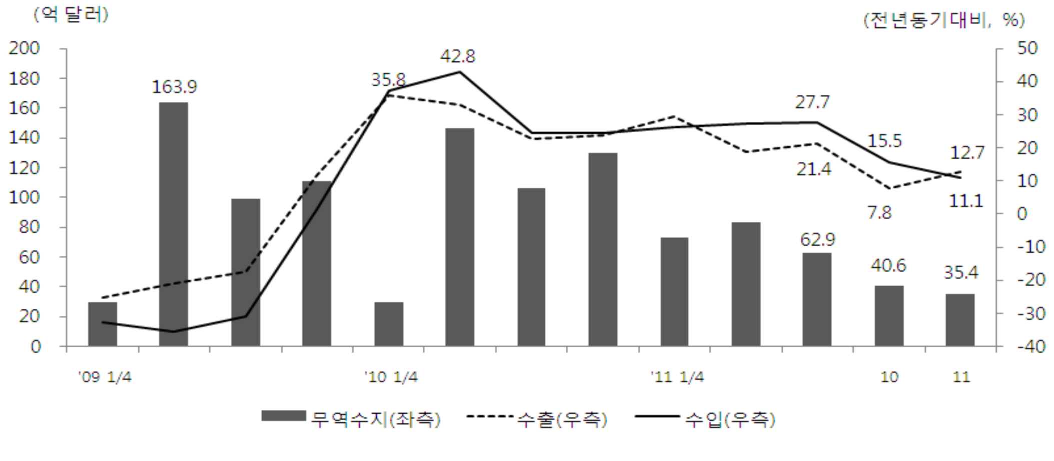
■ 2011년 11월 수출(확정치)은 12.7%, 수입은 11.1% 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3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 수출은 승용차(30.0%), 석유제품(46.0%)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정보통신기기(−23.3%) 등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함.
- ○ 수입은 원유(24.6%), 곡물(44.0%)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냈고, 반도체(−6.2%) 등은 감소하였음.

■ 2011년 11월 지역별 수출입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 반면 EU는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캐나다, 중동, EU 등에서 늘어남.

- ○ 지역별 수출은 미국(21.2%), 일본(27.6%)을 비롯한 선진국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호주(44.6%)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높았음.
- ○ 지역별 수입은 중남미(10.8%), 중동(23.2%), 캐나다(52.2%) 등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중국(7.0%), 미국(8.5%), EU(20.7%) 등의 수입도 증가함.

〈그림 26〉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산업생산〉

■ 2011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전기장비 등이 부진하였으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자동차 등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5.1% 높아졌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4.2% 상승하였음.

○ 2011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제조업(23.7%), 안경 및 사진장비(30.5%), 자동차(16.2%) 등의 호조로 5.1%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6.3%, 5.6% 늘어남.

○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4.4%), 금융 및 보험업(9.0%), 출판 · 영상 · 방송통신(5.4%) 등의 호조에 따라 4.2%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4%, 2.6% 늘어났으나 증가세가 둔화됨.

〈표 12〉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	19.3	11.0	12.0	16.6	10.8	7.4	5.1	6.3	5.6
- 제조업	19.3	11.2	12.0	16.7	10.9	7.4	5.1	6.5	5.9
- 자동차	32.1	11.3	10.2	23.1	16.1	12.1	16.2	12.0	14.4
- ICT	26.7	19.1	15.2	25.2	14.3	10.5	5.4	17.1	13.4
서비스업	4.2	2.3	3.2	3.9	2.7	4.1	4.2	3.4	2.6
- 도매 및 소매업	5.6	5.0	4.7	5.7	4.0	5.6	3.3	3.4	2.2
- 운수업	14.3	10.1	10.0	12.0	7.2	4.2	4.4	1.6	2.1
- 숙박 및 음식점업	0.7	1.3	1.7	1.2	-0.6	2.0	1.3	0.5	1.0
- 금융 및 보험업	2.5	1.4	8.2	4.6	7.2	12.8	9.0	7.5	5.2
- 부동산 및 임대업	-2.4	-15.9	-24.2	-8.6	-17.7	-12.1	-3.4	-4.6	-5.6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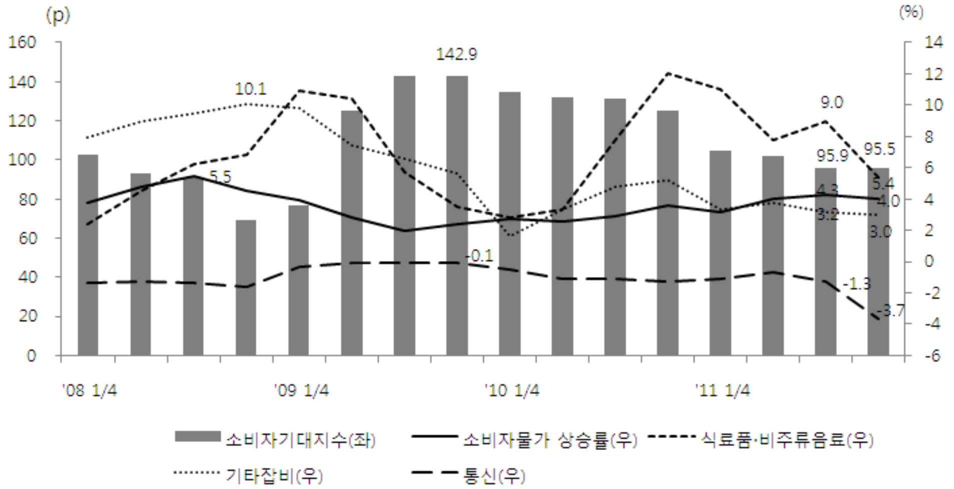
2011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대의 상승률을 지속했으며,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3/4분기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함.

■ 2011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등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기보다 0.3%p 낮아진 4.0%(전년동기대비)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냄.

○ 4/4분기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5.4%, 주류 및 담배는 1.2%, 의복 및 신발은 4.6%, 주거 및 수도광열은 5.8%,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은 3.9%, 교통은 7.8%, 기타잡비는 3.0%, 통신은 −3.4% 등으로 나타남.

■ 2011년 4/4분기 소비자 기대지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불안심리가 반영되면서 3/4분기보다 0.4p 하락한 95.5를 기록함.

〈그림 27〉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및「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1년 3/4분기뿐만 아니라 10~11월 기간 중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실업률이 하락함.

○ 2011년 3/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2.1%, 2.0% 늘어남.

- 청년 취업자 수는 3/4분기에 전년동기수준을 유지했으나, 10월에 0.5% 증가한 후 11월에 0.9% 감소로 반전함.

○ 3/4분기 고용률은 59.5%를 나타냈고, 10월 59.9%, 11월 59.7%를 기록함.

○ 실업률은 3/4분기에 3.1%를 나타냈고, 10월 2.9%, 11월 2.9%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지속함.

- 3/4분기 이후 10~11월 기간에도 서비스업 고용이 개선되면서 고용환경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청년실업률도 3/4분기에 6.7%를 나타낸 후 10월 6.7%, 11월 6.8%로서 2/4분기(7.9%) 이후 지속적으로 6%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

■ 10~11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SOC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3/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했으며, 10월 1.8%, 11월 0.7% 감소세를 지속함.

○ 3/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1.4%, 2.2% 감소함.

○ 도소매 · 음식 · 숙박,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하여 3/4분기에 이어서 10~11월 기간에도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3.2% 늘어남.

-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 취업자 수는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으나, 10~11월 기간에 평균 3.0% 증가세로 반전됨.

〈표 13〉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1.8	1.6	1.5	1.4	1.8	1.7	1.5	2.1	2.0
- 청년취업자	-1.4	-1.1	-1.5	-1.1	-1.2	-1.9	0.0	0.5	-0.9
고용률	59.6	59.3	58.9	58.7	57.4	59.9	59.5	59.9	59.7
실업률	3.5	3.5	3.3	3.7	4.2	3.4	3.1	2.9	2.9
- 청년실업률	7.7	7.6	7.1	8.0	8.8	7.9	6.7	6.7	6.8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4.6	-2.5	-2.2	-5.0	-2.3	0.2	-2.9	-1.8	-0.7
광공업	4.4	6.8	6.9	4.9	5.8	2.7	-0.5	-1.4	-2.2
- 제조업	4.5	6.9	7.0	5.0	5.8	2.8	-0.3	-1.3	-2.1
SOC 및 기타서비스업	1.9	0.9	0.7	1.2	1.2	1.6	2.4	3.2	3.2
- 건설업	2.5	5.4	3.3	1.9	-0.2	-2.3	-2.0	2.3	3.7
- 도소매음식숙박	-1.3	-1.2	-1.3	-1.2	-1.1	-0.1	1.0	2.2	1.8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4	2.3	1.9	2.7	1.6	3.6	6.6	5.6	5.7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9	0.9	1.0	2.2	3.0	2.8	2.8	3.3	3.1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1년 3/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감소함.

○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0만 2,599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했으며, 실질소득의 경우도 1.5% 늘어남.

- 경상소득은 6.1% 증가했고 비경상소득도 13.6% 늘어났으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6.3%, 사업소득이 4.4%, 재산소득이 11.5%, 이전소득이 8.4% 증가함.

○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13만 7,30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도 2.0% 늘어남.

- 세부항목별로는 교통(9.8%), 의류 · 신발(8.4%), 식료품 · 비주류음료(7.4%) 등의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짐.

〈표 14〉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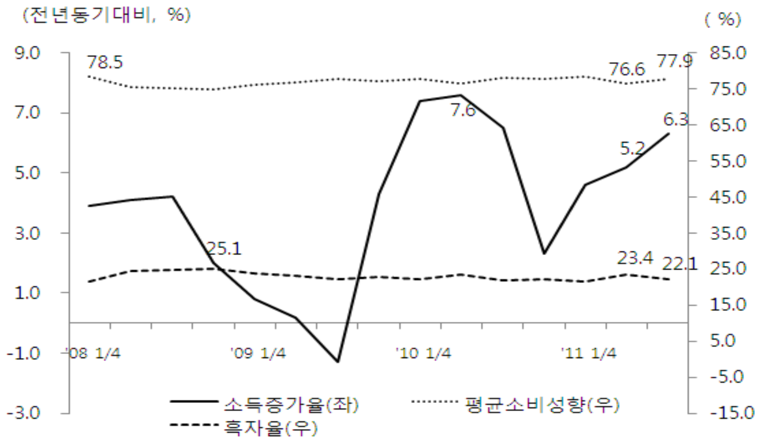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소득	7.2	7.6	6.5	2.3	5.8	4.6	5.2	6.3
(실질소득)	4.3	4.9	3.5	-1.3	2.8	0.2	0.9	1.5
- 경상소득	7.2	7.7	6.7	3.1	6.1	5.4	5.1	6.1
* 근로소득	5.0	6.1	7.3	3.3	5.4	6.8	5.4	6.3
* 사업소득	13.1	11.7	5.4	2.1	7.9	2.8	3.2	4.4
* 재산소득	-6.4	-9.5	-10.9	30.5	-0.7	3.1	4.0	11.5
* 이전소득	10.0	9.8	6.1	3.1	7.2	3.1	7.2	8.4
- 비경상소득	7.2	5.9	1.4	-17.1	-0.5	-8.7	7.7	13.6
소비지출	9.4	6.7	5.6	3.6	6.3	5.2	5.1	5.8
(실질소비지출)	7.0	4.5	3.1	0.7	3.8	1.4	1.7	2.0

자료: 통계청,「가계동향」.

○ 3/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74만 4,439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60만 7,13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남.

- 3/4분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이 77.9%로 전년동기보다 1%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1%p 상승함.

〈그림 28〉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1 -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4/4분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가 경기둔화 우려로 3.25%에서 동결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확대, 외국인의 채권시장 자금 유입 등으로 저금리 환경이 유지됨.

■ 4/4분기 중 기준금리는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3.25%에서 동결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확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이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6월 말 이후 3.25%로 동결되었던 기준금리를 4/4분기에도 동결함.

○ 유럽중앙은행, 호주중앙은행 등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 완만한 물가 하락,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 둔화로 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동결'에서 '동결 또는 인하'로 변화됨.

■ 4/4분기 중 국고채(3년) 금리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 안전자산 선호 확대,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3.30~3.50% 범위에서 움직임.

○ 국고채 금리는 10월 초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15]하다가 중순 이후 유로존 위기 해결 도출 기대로 소폭 반등[16]했으나 상승폭은 제한됨.

○ 11월 국고채 금리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확산과 실물경기 둔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부각[17]으로 하락 압력이 지속됨.

○ 12월에도 국내 경기지표 악화, 국고채 바이백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저금리 환경이 유지됨.

---

15) 환율 안정에 따른 외국인 채권 매도 우려 완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10월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함.

16) 안정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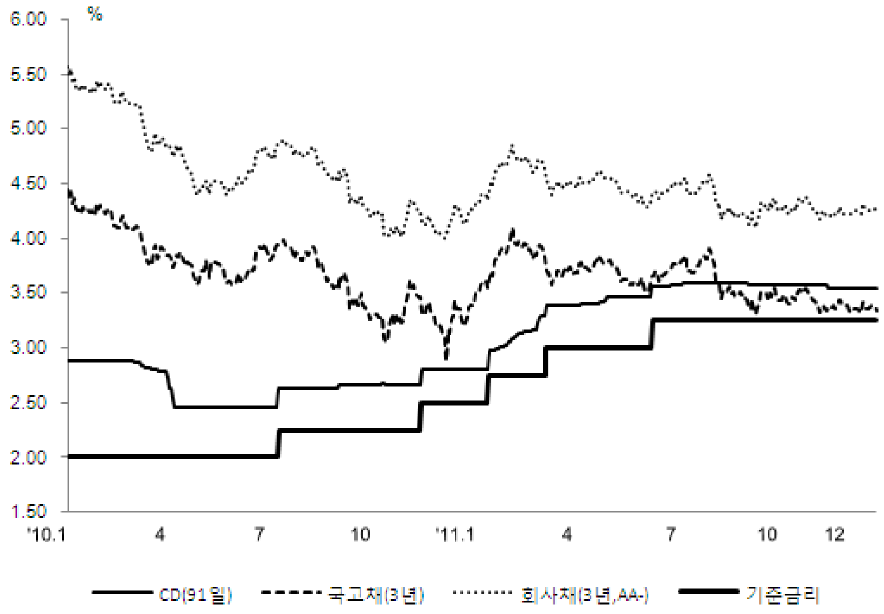
17)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채권시장 이탈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상승 압력이 존재했으나 아시아계 자금의 유입 확대로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가 국고채(3년) 금리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4/4분기에도 지속되었으며, 회사채(AA-, 3년) 금리의 경우 공급물량 증대로 4/4분기 중반부터 상승압력이 증대함.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가 기준금리 동결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됨.

○ 회사채는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발행에 따른 만기 차환발행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 우위 시장이 점차 본격화됨.

〈그림 29〉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환율〉

4/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관련 뉴스와 북한 정정 불안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분기 평균 1,144.5원을 기록함.

■ 4/4분기 중 달러 대비 원화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둘러싼 소식에 한때 1,200원을 상회한 후 안정되었다가 후반기에는 북한 리스크 증대로 1,150원대까지 상승함.

○ 10월 초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18]가 고조되면서 1,200원을 돌파했으나 10월 말 유로존이 포괄적인 해결책[19]을 제안하면서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

○ 11월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해결책의 구체성 결여,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및 경제개혁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하여 한때 1,160원을 기록함.

○ 1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통합 노력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1,130원대로 하락했으나 월말에는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의 위기감 고조로 1,150원대로 다시 상승함.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안전통화로 여겨지는 엔화는 4/4분기 초반 초강세를 보였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루어진 이후 후반기에는 달러 대비 77엔대에서 보합세를 보임.

○ 10월 중 엔/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강세를 보여 사상 최저치인 75엔대까지 하락함.

○ 11월에는 일본 당국이 2011년 8월 4일 이후 다시 엔화 매도 개입을 단행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77엔대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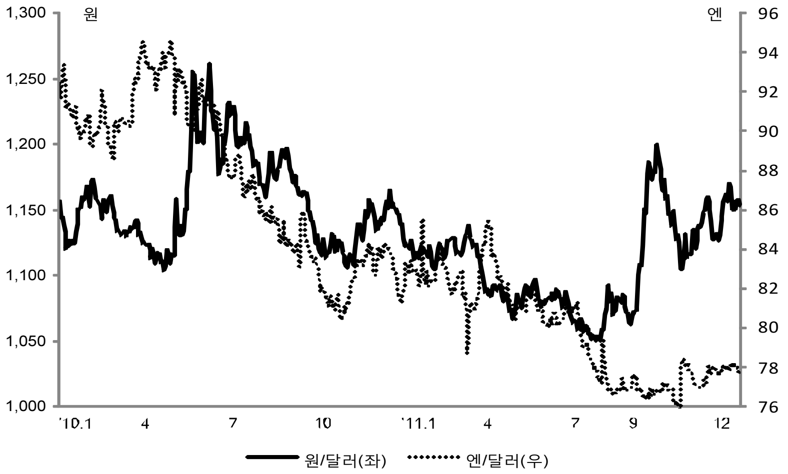
○ 12월에는 안전통화로 여겨지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었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77엔대에서 보합세를 보임.

---

18) 그리스 재정적자 목표 달성 실패 및 1차 구제금융 6차분 지원 연기.

19) 그리스 국채 헤어컷 상향 조정, EFSF 규모 확대, 은행 자본확충 등에 대한 논의 합의.

〈그림 30〉 환율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가지수〉

> 4/4분기 초 코스피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조정 과정을 거친 후 1,900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가 억제되어 분기 평균 1,850을 기록함.

■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9월말 1,600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코스피지수는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되면서 4/4분기 평균 1,850을 기록했으나 8월 초의 2,000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함.

○ 10월 초 1,700대 초반에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월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어 1,900대를 넘어서면서 전월대비 2.0% 상승함.

- 같은 기간 중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월평균대비 3.3%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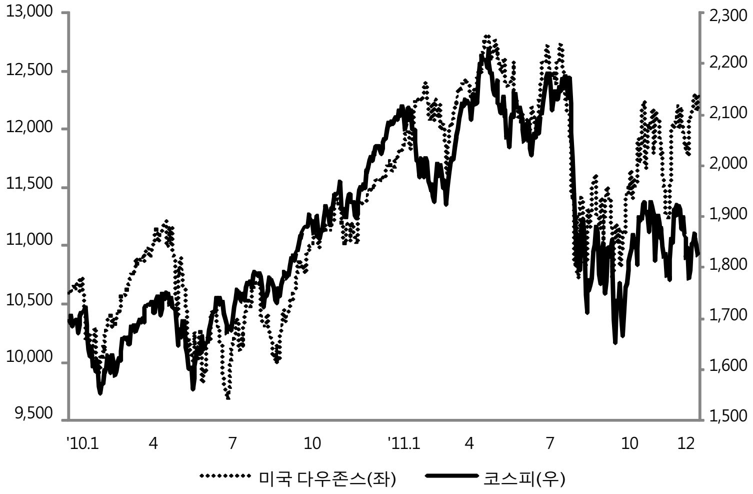
○ 11월 중 코스피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일시적으로 1,800대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1,800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전월평균대비 1.8% 상승함.

- 같은 기간 중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1.9% 상승함.

○ 12월에는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커다란 악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 및 독일의 경제지표 개선이 호재로 작용했으나 북한 리스크 증대는 악재로 작용하여 코스피지수는 전월평균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침.

- 12월 중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전월평균대비 2.5% 상승함.

〈그림 31〉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 2011년 3/4분기 보험권의 경우 생명보험의 수신 호조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했으며 기타 금융권에서도 종금을 제외한 은행, 증권, 투신의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증가세로 전환됨.

■ 3/4분기(CY 기준)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손해보험의 순수신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순수신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7.3% 증가함.

○ 3/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의 경우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전분기대비 각각 1.7%, 11.4% 감소했으나 수입보험료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순수신은 14.7% 증가함.[20]

○ 3/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의 경우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이 전분기대비 각각 4.3%, 9.1% 증가했으나 원수손해액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1.1% 감소함.[21]

■ 3/4분기 중 은행, 증권, 투신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종금의 순수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미국 경기둔화 우려 및 유럽 재정위기 문제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부동자금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함.

〈표 15〉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 생 보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 손 보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은 행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 일 반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 신 탁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증 권	-44,842	45,027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투 신	-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종 금	-7,191	38,000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2,093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20)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수입보험료가 7.7%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4.7% 증가하여 순수신은 11.9% 증가함.

21)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원수보험료가 15.5% 증가하고 원수손해액은 18.6% 증가하여 순수신은 4.7% 증가함.

○ 증권사의 경우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증가, 대기성 자금의 신규설정으로 인한 고객예탁금 증가 등으로 인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함.

○ 투신권에서는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시중 대기성자금이 MMF와 주식형펀드로 유입되면서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증가함.

○ 종금사의 경우 발행어음과 기업어음 발행 여건이 여전히 호전되지 못하면서 순수신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1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34조 8,926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하락함.

■ FY2011 2/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34조 8,926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이 고성장하면서 7.7% 증가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4.6	9.8	7.1	4.4	10.8	7.9	9.5	7.7
손해보험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9	20.8	16.5	21.8	17.5	19.2	16.5	16.0
합계	1,207,891	313,231	314,552	379,739	344,996	1,352,518	351,340	348,926
	8.8	13.8	10.6	10.5	13.3	12.0	12.2	10.9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과 연금부문을 비롯한 전 종목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16.0% 증가함.

나. 총자산

FY2011 2/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특별계정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5% 증가에 그친 546조 원을 기록하였음.

■ FY2011 2/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특별계정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5% 증가에 그침.

○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 감소로 전분기대비 1.0% 증가에 그침.

○ 손해보험 총자산의 경우에도 특별계정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3.3%에 그쳐 FY2011 1/4분기보다 7.0%p 하락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373	381	397	408	417	417	425	429
	13.5	2.5	4.1	2.8	2.0	11.8	2.0	1.0
손해보험	86	90	94	99	102	102	113	116
	16.4	4.8	4.7	4.8	3.3	18.7	10.3	3.3
합계	459	471	491	507	519	519	538	546
	14.2	2.7	4.2	3.2	2.3	13.0	3.7	1.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1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에서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이익 감소로 낮은 자본이익률이 시현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1.9%를 기록함.

■ FY2011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하면서 0.5%p 하락한 1.9%로 나타남.

- ○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증가로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1.3%를 기록하는데 그침.
- ○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손실이 완화되고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3.4%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3)]	1/4	2/4	3/4	4/4	연간[3)]	1/4	2/4
생명보험	9.9	4.1	2.5	2.5	2.6	12.4	2.9	1.3
손해보험	13.9	4.0	2.2	1.1	3.5	11.3	5.9	3.4
합계	10.9	4.1	2.4	2.2	2.8	12.1	3.6	1.9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22개,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20조 6,953억 원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이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7.5%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로 상쇄되면서 전체적으로 12.5% 증가함.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주가지수 하락으로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0%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11년 8월 이후 유럽 재정위기 악화의 영향으로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특별계정 자산은 3.2% 감소하였으며, 운용자산 중 주식 자산 증가율도 소폭 둔화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4.6	9.8	7.1	4.4	10.8	7.9	9.5	7.7
총 자 산	3,725,247	3,816,622	3,974,875	4,084,952	4,166,520	4,166,520	4,250,375	4,293,992
	13.5	2.5	4.1	2.8	2.0	11.8	2.0	1.0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 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1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기저효과로 인한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진 반면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이 고성장하면서 7.5% 증가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적으로 0.3%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사망보험 중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6%의 증가세를 유지함.

-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신상품 출시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FY2011 2/4분기에도 23.9% 증가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비적격 일반연금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인해 1.0%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소득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1%의 증가율을 나타냄.

- 일반연금 수입보험료는 FY2009 3/4분기부터 FY2010 3/4분기까지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FY2011 1/4분기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소득공제한도 확대(300만 원 → 400만 원)로 FY2011 1/4분기부터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경쟁력 약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14.5% 증가하며 두 분기 연속 10%대로 증가율이 축소되었음.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8월 이후 유럽재정위기 확대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20.0%의 고성장세를 이어감.

- FY2011 1/4분기 말 2,100.69 포인트를 기록하던 종합주가지수는 2/4분기 말 1,769.65 포인트로 15.8% 하락하였으나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수입보험료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음.

■ FY2011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신규가입 증가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2.5% 증가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36.9% 증가한 반면,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은 각각 2.8%, 60.4%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53,119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40,937	43,061
	증가율	8.8	17.2	12.9	8.6	8.8	11.6	1.5	3.1
	구성비	19.9	21.0	21.7	19.0	21.0	20.6	19.4	20.8
사망	보험료	289,498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71,520	71,649
	증가율	-1.7	-0.2	-1.1	-1.0	-1.0	-0.8	-0.3	-0.3
	구성비	37.6	37.3	37.4	30.8	33.8	34.6	34.0	34.6
생사혼합	보험료	82,052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27,350	28,489
	증가율	23.6	33.6	28.7	28.8	23.1	28.2	13.1	14.5
	구성비	10.7	12.6	12.9	11.7	13.6	12.7	13.0	13.8
변액보험	보험료	171,882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52,972	54,714
	증가율	-2.3	10.0	8.3	14.0	18.9	12.9	17.8	20.0
	구성비	22.3	23.4	23.7	21.7	25.0	23.4	25.2	26.4
개인계	보험료	696,551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192,778	197,913
	증가율	2.8	9.7	7.6	8.4	9.2	8.7	6.4	7.5
	구성비	90.5	94.2	95.8	83.2	93.3	91.2	91.5	95.6
단체	보험료	73,017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17,839	9,040
	증가율	25.7	12.6	-3.1	-11.9	38.6	-0.5	59.9	12.5
	구성비	9.5	5.8	4.2	16.8	6.7	8.8	8.5	4.4
합계	보험료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증가율	4.6	9.8	7.1	4.4	10.8	7.9	9.5	7.7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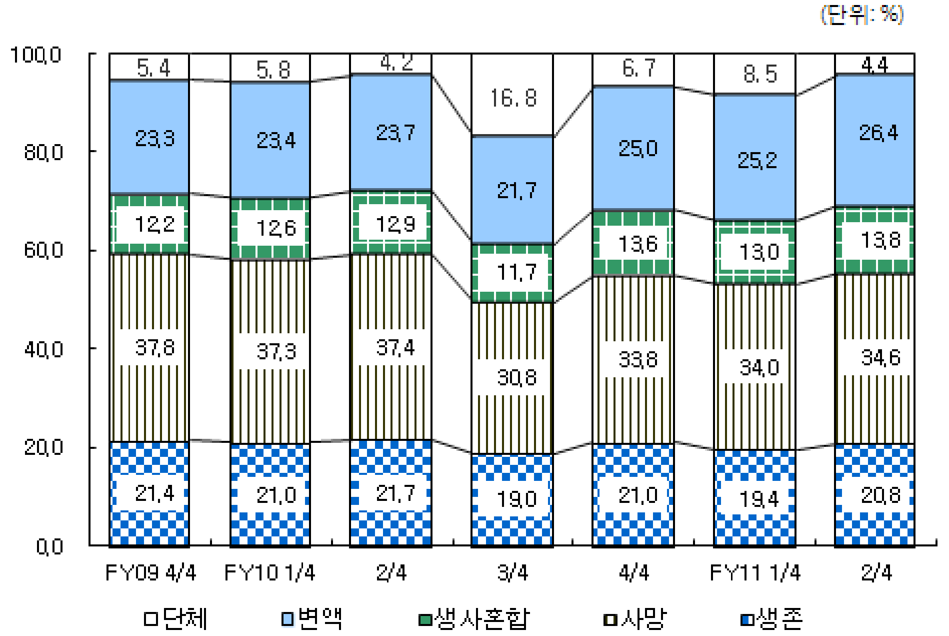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1/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사망 및 생존보험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증가함.

○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사망보험의 비중은 2.8%p 감소한 34.6%로 나타났으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생존보험의 비중도 0.9%p 감소한 20.8%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단체보험은 모두 두 자릿수의 수입보험료 증가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p, 2.7%p, 0.2%p 증가한 13.8%, 26.4%, 4.4%의 비중을 나타냄.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유지함.

○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p 상승한 29.1%로 나타남.

- FY2011 2/4분기 전체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3.1% 증가에 그쳤으나 국내중소형사의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19.3%로 크게 증가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상위3사의 비중이 높은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낮아진 50.8%를 기록함.

○ 외국사의 점유율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0.9%p 하락한 20.8%를 나타냄.

■ FY2011 2/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029 감소한 0.1136으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54.1	52.3	51.7	54.1	51.0	52.3	52.7	50.8
국내중소형사	24.8	26.4	26.6	27.3	28.2	26.9	27.3	29.1
외 국 사	21.1	21.3	21.7	18.5	21.2	20.8	20.3	20.8
허핀달지수	0.1263	0.1186	0.1165	0.1253	0.1141	0.1186	0.1219	0.1136

주: 1) 퇴직보험 · 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1년 6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1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지급률이 상승한 반면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7%p 낮아진 56.6%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해지환급금 증가로 9.5%p 상승한 60.8%로 나타났으며, 사망보험 지급률은 사망 및 입원급여 증가로 1.9%p 상승한 53.0%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만기도래 감소로 4.6%p 하락한 45.7%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지급률은 해지환급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14.9%p 하락한 48.0%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17.7%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3%p 낮아진 5.3%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 지급률	61.6	58.8	58.3	70.6	69.4	64.7	62.9	56.6
개 인 계	55.4	52.1	54.0	62.8	57.8	56.8	54.0	52.3
- 생 존	55.6	51.0	51.3	61.2	58.8	55.7	54.5	60.8
- 사 망	51.6	50.2	51.1	51.1	52.8	51.3	50.4	53.0
- 생사혼합	86.0	49.7	50.3	68.6	51.7	55.3	44.8	45.7
- 변 액	47.3	57.5	62.9	77.6	67.2	66.6	63.3	48.0
단 체	119.9	166.7	157.1	109.4	230.3	147.2	158.4	152.5
사 업 비 율	16.6	16.8	16.7	14.2	17.4	16.2	16.5	17.7
해 지 율	11.3	3.0	5.6	8.2	10.5	10.5	2.8	5.3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8.2% 감소한 5,195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수익이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로 1.2% 증가하고, 보험영업비용이 지급보험금과 사업비 증가로 4.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0.3% 감소함.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수익이 이자수입 증가로 43.6% 증가하고, 투자영업비용이 주식시장의 침체와 해외채권 평가손실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2% 늘어남.

〈표 8〉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562,962	143,720	146,201	149,339	151,443	590,702	144,384	147,885
	투자영업	185,863	51,080	38,169	47,279	54,683	195,936	52,471	54,812
	영업외	33,471	12,470	8,831	8,969	9,481	39,752	8,977	9,034
	소 계	782,296	207,269	193,202	205,587	215,606	826,390	205,831	211,731
총비용	보험영업	484,636	111,152	111,572	122,808	121,772	467,305	108,640	116,832
	투자영업	48,228	9,784	-3	6,776	7,313	28,596	10,439	16,571
	영업외	5,982	1,594	1,560	1,381	2,031	6,566	1,763	2,377
	소 계	538,846	122,531	113,130	130,965	131,115	502,466	120,842	135,780
수지차	보험영업	78,326	32,567	34,629	26,530	29,671	123,398	35,744	31,053
	투자영업	137,635	41,296	38,172	40,503	47,370	167,340	42,032	38,241
	영업외	27,489	10,876	7,271	7,588	7,450	33,186	7,213	6,657
	소 계	243,450	84,739	80,072	74,622	84,491	323,923	84,989	75,951
책임준비금전입		210,586	68,042	69,018	61,545	71,183	269,789	71,277	69,426
법 인 세		8,315	3,846	2,652	3,785	3,659	13,942	2,807	1,335
당기순이익		24,549	12,850	8,402	9,292	9,649	40,193	10,906	5,195

주: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1 2/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5.2%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도 0.5%p 하락한 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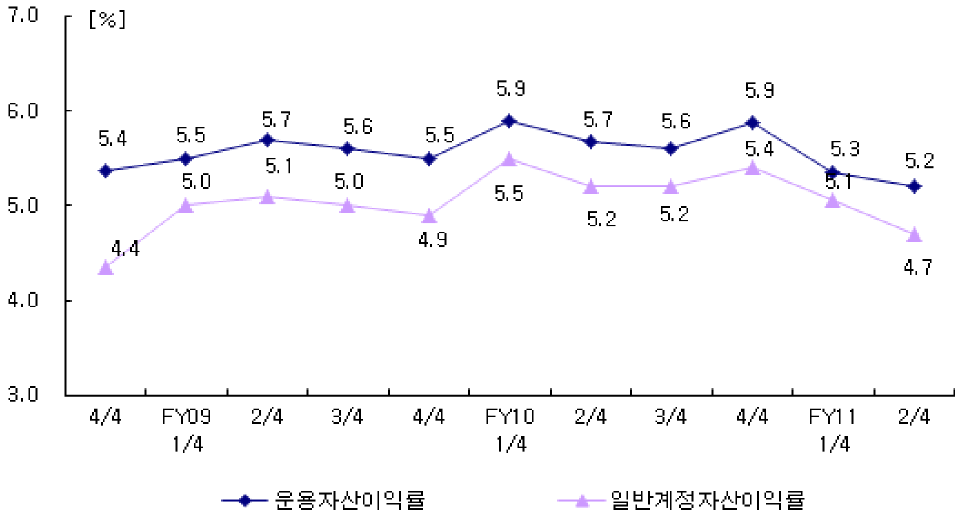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0.1%p 하락한 4.8%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당기손익인식증권 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임.

○ 부동산 이익률은 0.8%p 상승한 3.8%로 나타났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1.9%p 하락한 7.2%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6.0%, 대출채권 19.5%, 현금과예금 3.8%, 부동산 3.7%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의 비중은 각각 0.4%p, 1.2%p 증가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4	3.1	3.7	3.1	3.5	3.6	4.0	3.2	3.8	3.9
유 가 증 권	64.8	4.9	65.0	5.0	65.7	5.4	65.5	5.0	66.0	4.8
○ 당기손익인식증권	1.3	3.4	1.1	3.1	1.2	3.1	1.9	2.5	1.9	-3.0
- 주 식	0.0	4.6	0.0	8.5	0.0	16.2	0.1	-1.8	0.1	-35.9
- 채권 등	0.2	5.6	0.2	3.1	0.4	2.9	0.8	3.5	0.8	-1.6
- 수익증권	1.1	3.0	0.9	3.0	0.8	3.0	1.0	2.2	1.0	-0.6
○ 매도가능증권	49.3	4.8	49.2	4.9	49.5	5.4	49.8	5.1	50.2	5.0
- 주 식	4.6	1.9	5.4	1.5	5.3	2.0	4.8	1.7	4.4	1.5
- 채권 등	41.2	5.1	40.1	5.3	41.0	5.3	42.3	5.0	43.2	5.1
- 수익증권	3.5	4.4	3.7	4.7	3.1	12.7	2.7	12.2	2.6	9.1
○ 만기보유증권	13.3	5.3	13.7	5.3	14.1	5.3	12.8	5.2	13.0	5.1
- 채권 등	13.3	5.3	13.7	5.3	14.1	5.3	12.8	5.2	13.0	5.1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0.9	6.9	0.9	12.5	0.9	10.5	1.1	3.6	0.9	1.7
대 출 채 권	20.3	9.1	20.1	8.4	19.9	8.2	19.4	7.1	19.5	7.2
부 동 산	3.7	3.0	3.7	3.1	3.6	3.0	3.8	3.5	3.7	3.8
운 용 자 산 계	92.3	5.7	92.4	5.6	92.7	5.9	92.6	5.3	93.0	5.2
비 운 용 자 산	7.7	-0.3	7.6	0.2	7.3	0.1	7.4	1.6	7.0	-1.5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0.4)	5.2	100.0 (80.7)	5.2	100.0 (80.4)	5.4	100.0 (80.9)	5.1	100.0 (81.7)	4.7
특 별 계 정 자 산	19.6	8.5	19.3	9.5	19.6	8.7	19.1	1.2	18.3	-5.8
총 자 산	100.0	5.8	100.0	6.0	100.0	6.0	100.0	4.3	100.0	2.7
총 자 산 규 모	3,974,875		4,084,952		4,166,524		4,250,375		4,293,992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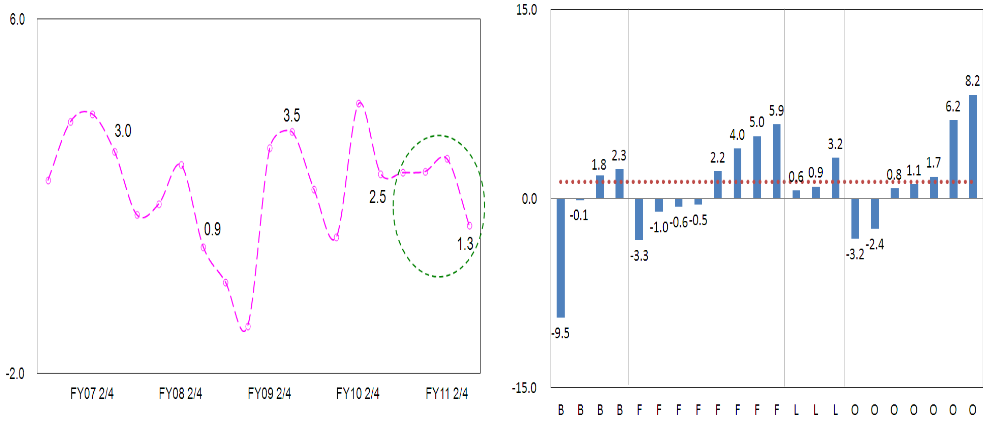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1)]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1.3%를 기록함.

○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일부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4%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회사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이 2.1%로 전년동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등 총 22개 회사임.

○ 중소형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2.3%p 하락함.

○ 방카사 자본이익률은 -0.3%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7%p 하락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5%p 개선됨.

○ 한편,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각각 1.2%, 1.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6%p씩 하락, 전분기대비 각각 1.4%p, 1.6%p 하락한 수치임.

〈표 10〉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2]	1/4	2/4	3/4	4/4	연간[2]	1/4	2/4
대형사	11.0	4.5	2.8	2.5	3.1	13.6	2.6	1.2
중소형사	0.1	3.3	0.1	1.9	0.3	5.7	4.4	2.1
외국사	12.9	3.4	3.1	3.6	2.1	13.1	3.1	1.5
방카사	4.4	0.4	0.4	-0.3	2.8	3.7	-0.8	-0.3
전체	9.9	4.1	2.5	2.5	2.6	12.4	2.9	1.3

주: 1)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전분기 자본 + 당분기 자본) × 0.5]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당분기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가운데 레버리지 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모두 하락함.

○ 중소형사만이 매출이익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개선된 반면, 대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두 매출이익률이 각각 3.8%p, 2.3%p, 0.4%p 하락하면서 낮은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전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방카사 자본이익률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는 방카사의 마이너스 매출이익률이 완화되었기 때문임.

〈표 11〉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대형사	9.2	8.5	8.7	4.6	4.7	4.7	6.7	6.5	2.9
중소형사	12.6	12.5	12.5	8.7	8.7	8.7	0.1	4.1	2.0
외국사	7.6	7.5	7.3	7.4	6.8	6.6	5.5	6.2	3.2
방카사	13.7	11.0	11.3	14.5	9.6	9.8	0.2	-0.8	-0.2
전체	9.4	8.9	9.0	5.9	5.8	5.8	4.6	5.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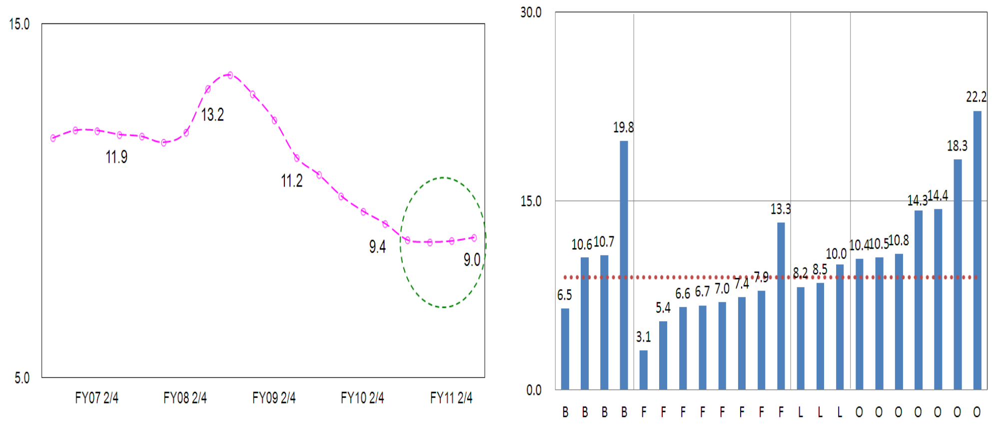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9.0배로 1/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함.

〈그림 4〉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FY2010 3/4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안정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대형사 및 방카사의 전분기대비 레버리지비율 상승이 생명보험회사 전체 레버리지비율의 소폭 상승을 주도함.

○ 외국사의 레버리지비율은 FY2010 1/4분기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함.

〈표 12〉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형사	13.2	9.5	9.2	8.7	8.5	10.8	8.5	8.7
중소형사	17.4	13.1	12.6	12.0	12.4	15.9	12.5	12.5
외국사	11.2	7.9	7.6	7.4	7.5	10.7	7.5	7.3
방카사	18.9	15.0	13.7	11.8	11.3	16.8	11.0	11.3
전체	13.4	9.7	9.4	8.9	8.8	11.4	8.9	9.0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2)] 자산은 전분기대비 2.3% 증가한 반면, 자본이 1.1% 증가에 그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함.

○ 특히, 대형사의 자본은 전분기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분기대비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각각 0.2%p, 2.6%p 상회함.

■ 한편,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4.8%p 상회함에 따라 동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함.

2) IBK 연금보험은 제외됨.

〈표 13〉 생명보험회사 자산[1]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7.8	1.6	13.5	-0.2
중소형사	17.9	4.0	18.7	4.2
외국사	11.6	1.3	16.0	3.9
방카사	33.5	6.0	61.5	3.0
전체	10.5	2.3	15.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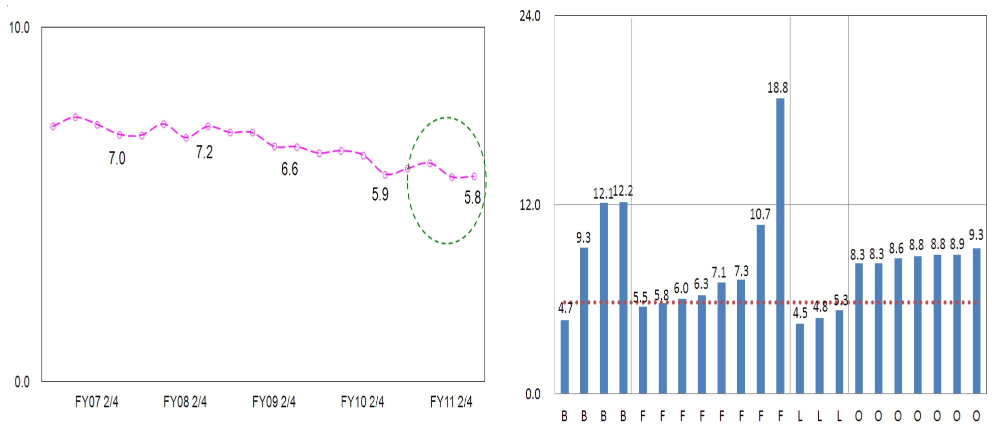
주: 1) IBK 연금보험을 제외한 22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중소형사 및 방카사의 높은 자산회전율에 힘입어 5.8%를 기록함.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자산회전율은 각각 8.7%, 9.8%를 기록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4.7%, 6.6%를 나타냄.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4.2%, 1.6%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높은 자산회전율은 주로 보험영업회전율이 높았기 때문임.

○ 한편, 방카사의 경우 여전히 높은 보험영업회전율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년동기대비 기준 보험영업회전율 감소폭은 4.7%p에 달함.

〈표 14〉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대형사	4.6	4.7	4.7	3.4	3.1	3.1	1.4	1.5	1.6
중소형사	8.7	8.7	8.7	7.4	7.0	7.1	1.5	1.7	1.6
외국사	7.4	6.8	6.6	6.1	5.2	5.1	1.5	1.5	1.4
방카사	14.5	9.6	9.8	13.1	8.3	8.4	1.2	1.2	1.4
전체	5.9	5.8	5.8	4.7	4.2	4.2	1.5	1.5	1.6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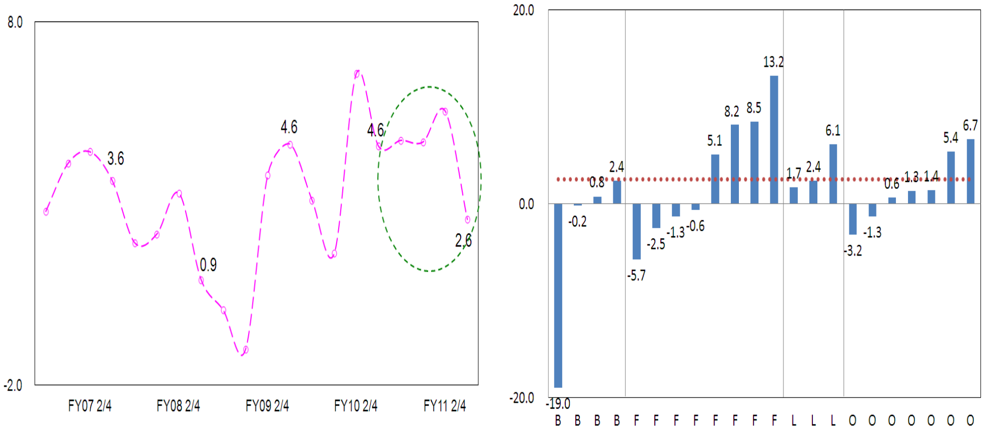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매출이익률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2.6%에 그침.

○ 대형사의 매출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3.8%p, 전분기대비 3.6%p 하락하였고, 외국사도 각각 2.3%p, 3.4%p 하락함.

〈그림 6〉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은 모두 부진하여 각각 14.8%, 19.0%에 그침.

-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중소형사와 외국사가 각각 28.1%, 45.3%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 투자영업이익률은 대형사가 23.0%, 외국사가 16.9%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방카사도 투자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 전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매출이익률이 완화됨.

〈표 15〉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대형사	6.7	6.5	2.9	9.9	10.7	7.6	28.1	26.3	23.0
중소형사	0.1	4.1	2.0	27.0	28.6	28.1	10.7	15.6	12.9
외국사	5.5	6.2	3.2	22.1	17.2	9.5	15.9	17.0	16.9
방카사	0.2	-0.8	-0.2	57.5	49.2	45.3	8.8	12.0	12.9
전체	4.6	5.6	2.6	18.7	17.9	14.8	20.7	21.4	19.0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1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설계사 비중이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 대리점 비중은 감소함.

- ○ 임직원 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12.7%를 나타냈으며, 설계사 비중 또한 변액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2.3%p 증가한 29.5%를 나타냄.
- ○ 방카슈랑스 비중은 고성장을 지속하던 방카슈랑스의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면서 3.1%p 감소한 50.0%로 나타났으며, 대리점 비중은 0.4%p 감소한 7.3%로 나타남.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 직 원	27.0	14.1	11.5	26.2	25.2	21.0	22.7	12.7
설 계 사	27.1	26.5	27.2	29.1	21.8	26.1	27.0	29.5
대 리 점	7.0	7.2	7.7	6.1	6.8	6.8	9.5	7.3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38.6	51.9	53.1	37.6	45.4	45.5	40.3	50.0
기 타	0.2	0.3	0.4	0.9	0.8	0.7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851	24,407	25,053	44,342	40,993	134,794	33,748	29,400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임직원 및 설계사 수가 증가하고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622명 증가한 27,339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사에서 임직원 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2,490명 증가하였으며, 전속설계사는 3,450명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는 960명 감소함.

-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와 외국사의 여성 전속설계사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교차설계사는 모든 집단에서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1개, 98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9개가 감소한 9,511개로 나타남.

- 대형사 및 중소형사 대리점 수가 감소한 반면 외국사의 대리점 수는 증가함.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6,693	26,566	26,230	26,481	26,586	26,717	27,339
설 계 사	162,687	159,512	153,778	149,140	146,065	147,671	150,161
- 전속	140,461	137,945	137,027	133,763	132,117	134,574	138,024
- 교차	22,226	21,567	16,751	15,377	13,948	13,097	12,137
대 리 점	13,244	11,679	10,659	10,359	9,846	9,610	9,511
- 개인	8,702	7,548	7,186	6,876	6,364	6,177	6,176
- 법인	4,542	4,131	3,473	3,483	3,482	3,433	3,335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1],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0% 늘어난 14조 1,973억 원을 기록함.

- ○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고성장에 힘입은 장기손해보험 증가세와 노후소득 관심 증대에 따른 연금부문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19.4% 증가한 9조 1,539억 원을 나타냄.
-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차량 대형화 · 고급화 등에 힘입어 8.3% 증가한 3조 3,128억 원을 시현함.
-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특종보험이 고성장함에 따라 14.2% 증가한 1조 7,307억 원을 기록함.

■ FY2011 2/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자산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116조 4,544억 원에 달함.

- ○ 특별계정자산의 경우 개인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판매 감소로 전분기대비 6.9% 감소하였으나, 일반계정자산의 경우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3.7% 증가함.

---

1)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9	20.8	16.5	21.8	17.5	19.2	16.5	16.0
- 장기성	267,629	75,524	76,673	97,426	85,787	335,411	91,137	91,539
	26.4	30.1	22.9	27.7	21.0	25.3	20.7	19.4
- 자동차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33,128
	2.6	7.6	8.3	12.7	13.8	10.6	9.1	8.3
- 일반손해	58,470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17,608	17,307
	8.7	8.4	4.8	9.5	7.5	7.6	10.1	14.2
총 자 산	861,222	902,218	944,143	989,680	1,022,151	1,022,151	1,127,714[3)]	1,164,544
	16.4	4.8	4.6	4.8	3.3	18.7	10.3	3.3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1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 등에 힘입은 저축성, 상해 · 질병, 재물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6.9% 늘어난 8조 1,166억 원을 시현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판매 급증에 힘입어 35.0% 증가하고 해지율 안정화로 계속보험료도 35.3% 증가함에 따라 전체 35.3% 증가한 2조 988억 원을 기록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신규수요 부진으로 초회보험료가 마이너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갱신 효과 등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각각 10.3%, 11.3% 증가한 2조 151억 원과 1조 5,484억 원을 기록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제도 개선[2] 효과 등에 힘입어 초회보험료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42.1% 증가한 7,444억 원을 기록함.

■ FY2011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신규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한 6,025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신규 상품 출시 및 판매 확대 등으로 35.0% 증가한 4,694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됨.

○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7.8%, 26.1% 감소한 424억 원, 236억 원을 나타낸 반면,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73.3% 증가한 448억 원을 기록하여 고성장을 지속함.

2) 2009년 5월「실화법」개정과 2010년 3월「화보법」개정.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64,069	17,671	18,263	18,976	19,616	74,527	20,363	20,151
		증가율	28.9	17.5	16.7	15.6	15.6	16.3	15.2	10.3
	운전자	보험료	20,621	5,571	5,611	5,636	5,719	22,537	5,749	5,711
		증가율	-1.4	11.2	12.4	9.2	4.8	9.3	3.2	1.8
	재 물	보험료	18,635	5,002	5,240	5,604	5,945	21,791	6,264	7,444
		증가율	2.9	9.9	15.2	19.2	22.9	16.9	25.2	42.1
	질 병	보험료	49,853	13,525	13,914	14,405	14,770	56,614	15,261	15,484
		증가율	47.7	28.0	7.1	10.8	11.1	13.6	12.8	11.3
	저축성	보험료	39,119	14,020	15,515	16,540	16,466	62,541	17,882	20,988
		증가율	32.0	65.3	71.6	66.7	41.0	59.9	27.5	35.3
	통합형	보험료	39,719	10,595	10,624	10,733	10,798	42,749	11,077	11,188
		증가율	9.1	13.6	7.0	6.0	4.5	7.6	4.5	5.3
	자산 연계형	보험료	973	267	292	257	239	1,055	222	201
		증가율	210.5	140.1	93.2	120.5	-59.8	8.5	-17.2	-31.2
	소 계	보험료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증가율	23.4	25.5	21.2	21.4	16.5	21.0	15.3	16.9
초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266	518	460	517	551	2,046	460	424
		증가율	-4.2	-19.7	-42.0	48.0	15.4	-9.7	-11.2	-7.8
	운전자	보험료	650	127	108	103	201	540	66	65
		증가율	53.2	4.6	-8.6	-50.8	0.8	-16.9	-48.0	-39.8
	재 물	보험료	692	223	259	302	314	1,098	355	448
		증가율	11.2	29.6	98.6	51.6	65.0	58.7	59.5	73.3
	질 병	보험료	1,796	239	320	294	345	1,197	310	236
		증가율	1.9	-53.3	-57.5	3.6	39.8	-33.3	29.6	-26.1
	저축성	보험료	5,056	2,971	3,477	3,202	2,574	12,224	2,851	4,694
		증가율	110.3	172.3	201.5	192.4	50.0	141.8	-4.0	35.0
	통합형	보험료	750	104	106	97	102	409	102	157
		증가율	-11.9	-42.4	-67.1	-11.9	-25.7	-45.5	-2.4	48.1
	자산 연계형	보험료	362	-7	-	0	0	-7	0	0
		증가율	-	-	-	-100.6	-100.0	-101.9	-99.7	-95.0
	소 계	보험료	11,572	4,176	4,730	4,516	4,087	17,509	4,145	6,025
		증가율	37.3	53.3	44.6	98.3	23.8	51.3	-0.7	27.4
계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61,803	17,153	17,804	18,458	19,065	72,480	19,902	19,727
		증가율	31.3	19.2	19.8	14.9	15.6	17.3	16.0	10.8
	운전자	보험료	19,971	5,444	5,503	5,533	5,518	21,997	5,683	5,646
		증가율	-2.5	11.4	12.9	11.8	4.9	10.1	4.4	2.6
	재 물	보험료	17,943	4,779	4,981	5,302	5,631	20,692	5,909	6,996
		증가율	2.6	9.2	12.8	17.8	21.2	15.3	23.6	40.4
	질 병	보험료	48,057	13,286	13,594	14,111	14,425	55,417	14,951	15,248
		증가율	49.0	32.1	11.1	11.0	10.6	15.3	12.5	12.2
	저축성	보험료	34,063	11,049	12,038	13,338	13,892	50,317	15,031	16,293
		증가율	25.1	49.6	52.6	51.1	39.5	47.7	36.0	35.3
	통합형	보험료	38,969	10,491	10,518	10,636	10,696	42,340	10,975	11,031
		증가율	9.6	14.7	9.5	6.2	4.9	8.7	4.6	4.9
	자산 연계형	보험료	611	274	292	258	239	1,062	222	201
		증가율	94.9	146.0	93.4	196.8	-8.8	73.9	-19.1	-31.2
	소 계	보험료	221,416	62,475	64,729	67,636	69,464	264,304	72,672	75,141
		증가율	22.7	24.0	19.8	18.3	16.0	19.4	16.3	16.1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2/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6.4%를 기록함.

○ 재물보험의 경우 신계약 급증으로 효력상실액과 해지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지율이 2.2%p 상승한 반면, 다른 종목은 모두 하락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2/4
상 해	3.8	6.8	9.7	12.4	3.2	5.6
운전자	4.1	7.1	10.3	14.3	3.0	5.8
재 물	5.0	8.6	12.1	14.8	5.0	10.8
질 병	3.8	6.7	9.4	11.9	3.2	6.1
저축성	4.6	8.4	11.8	14.7	3.7	7.1
통합형	3.0	5.3	7.7	9.9	2.3	4.4
계	4.0	7.1	10.1	12.9	3.3	6.4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연금부문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40.9%, 93.2% 성장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40.9% 증가한 8,200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효과 등에 힘입어 93.2% 증가한 2,169억 원을 시현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개인 연금	보험료	17,841	5,527	5,818	6,444	6,908	24,697	7,586	8,200
	증가율	38.8	51.3	43.7	29.6	33.6	38.4	37.2	40.9
	구성비	51.5	62.3	80.6	25.5	56.5	46.1	53.0	79.0
퇴직 보험	보험료	8,680	960	273	3,940	111	5,284	516	4
	증가율	27.5	26.7	-47.5	-42.3	-80.7	-39.1	-46.3	-98.6
	구성비	25.1	10.8	3.8	15.6	0.9	9.9	3.6	0.0
퇴직 연금	보험료	8,119	2,385	1,123	14,890	5,218	23,616	6,218	2,169
	증가율	144.4	346.4	107.4	194.9	161.7	190.9	160.7	93.2
	구성비	23.4	26.9	15.6	58.9	42.6	44.1	43.4	20.9
합계	보험료	34,641	8,873	7,214	25,275	12,236	53,598	14,320	10,373
	증가율	50.7	79.4	41.2	50.0	58.2	54.7	61.4	43.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1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수입차와 대형차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3조 3,128억 원을 기록함.

○ 수입차와 대형차 비중 확대 등에 따른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낮아짐.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반면,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11.3% 증가함.

○ 대인배상Ⅰ 원수보험료의 경우 비중이 큰 개인용 물건이 2.8% 감소함에 따라 1.7% 감소한 8,584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로 대물 담보가 16.4%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11.3% 증가한 2조 3,148억 원을 기록함.

- 자차 담보의 경우 증가세는 유지되었으나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효과 등으로 증가율은 9.4%로 둔화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34,210	8,539	8,730	8,798	8,545	34,613	8,502	8,584
		-4.1	0.0	-0.8	1.9	3.6	1.2	-0.4	-1.7
종합보험	대인 II	12,386	3,187	3,249	3,266	3,211	12,914	3,247	3,402
		4.1	5.8	4.0	3.4	3.9	4.3	1.9	4.7
	대물	29,481	7,839	8,189	8,801	8,851	33,679	8,979	9,535
		9.0	12.0	11.2	16.2	17.3	14.2	14.5	16.4
	자차	27,082	7,393	8,003	8,735	9,042	33,173	8,575	8,754
		4.1	14.2	20.0	28.3	26.8	22.5	16.0	9.4
	자손	3,988	1,054	1,078	1,137	1,125	4,394	1,115	1,177
		3.6	10.7	7.6	11.7	10.7	10.2	5.8	9.2
	무보험	1,110	280	288	290	282	1,139	272	279
		1.3	3.8	1.6	2.4	2.8	2.6	-2.9	-3.0
	소계	74,047	19,752	20,807	22,229	22,512	85,299	22,188	23,148
		5.9	11.6	12.8	18.0	18.1	15.2	12.3	11.3
외화표시		108	27	20	34	20	102	27	30
		-14.6	-16.4	-0.9	-2.0	-0.6	-5.9	0.4	47.8
이륜자동차		510	157	145	138	128	569	173	164
		14.4	9.5	5.8	16.1	16.5	11.6	10.3	13.0
기타		3,349	831	878	904	938	3,552	1,087	1,202
		3.2	0.8	3.0	5.4	15.2	6.0	30.7	36.8
합계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4	31,977	33,128
		2.6	7.6	8.3	12.7	13.8	10.6	9.1	8.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IFRS 도입으로 사업비 항목이었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 항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차 담보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소폭 상승(전년동기대비 0.7%p)에 그친 83.2%를 기록함.

○ 대인배상Ⅰ 손해율의 경우 개인용 · 업무용 차량의 발생손해액이 각각 6.8%, 10.9% 증가함에 따라 5.3%p 상승한 80.4%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차 담보 손해율이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등 손해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 13.1%p나 하락한 79.0%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 1.6%p 하락한 84.1%를 나타냄.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Ⅰ		71.1	71.4	75.1	81.1	65.9	73.5	73.2	80.4
종합보험	대인Ⅱ	66.9	70.5	74.1	74.5	80.0	74.6	86.5	88.9
	대물	81.3	83.1	87.2	93.7	80.7	86.1	87.5	89.6
	자차	81.6	78.3	92.1	90.4	84.0	86.5	78.7	79.0
	자손	70.9	74.8	75.4	82.3	77.9	77.2	66.0	72.5
	무보험	40.5	17.3	46.3	33.3	42.9	34.6	47.6	60.6
	소계	77.8	77.8	85.7	88.0	81.2	83.2	82.3	84.1
외화표시		54.4	64.7	81.9	67.5	71.7	71.5	71.9	84.4
이륜자동차		85.5	97.3	72.3	98.0	64.4	85.4	89.2	92.2
기타		75.7	67.1	86.0	82.9	84.4	81.0	74.4	85.1
합계		75.7	75.7	82.5	85.9	77.1	80.3	79.6	83.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1 2/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해상, 보증, 특종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1조 7,307억 원을 나타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공장물건이 기저효과 등으로 1.1%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일반물건이 각각 0.1%, 3.5% 감소함에 따라 전체 0.7% 감소한 598억 원을 기록함.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2,763	622	602	779	657	2,660	624	598
	증가율	-2.5	-5.0	-4.7	-2.4	-3.2	-3.7	0.4	-0.7
	구성비	4.7	3.9	4.0	4.6	4.4	4.2	3.5	3.5
해 상	보험료	8,049	2,084	1,970	1,939	1,728	7,721	2,393	2,138
	증가율	-5.4	-5.9	-2.0	4.4	-12.1	-4.1	14.8	8.5
	구성비	13.8	13.0	13.0	11.5	11.5	12.3	13.6	12.4
보 증	보험료	12,287	3,194	2,978	3,417	3,483	13,074	3,547	3,634
	증가율	6.6	0.9	3.1	10.0	11.4	6.4	11.0	22.0
	구성비	21.0	20.0	19.7	20.4	23.3	20.8	20.1	21.0
특 종	보험료	33,293	9,665	9,030	9,955	8,469	37,120	10,409	10,270
	증가율	14.3	15.8	7.2	11.6	11.4	11.5	7.7	13.7
	구성비	56.9	60.4	59.6	59.3	56.6	59.0	59.1	59.3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078	433	568	702	623	2,326	636	667
	증가율	16.7	13.1	13.6	6.2	16.6	11.9	46.9	17.4
	구성비	3.6	2.7	3.7	4.2	4.2	3.7	3.6	3.9
합계	보험료	58,470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17,608	17,307
	증가율	8.7	8.4	4.8	9.5	7.5	7.6	10.1	14.2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적하보험이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4.4% 증가하고 선박보험도 선박수주량 증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1.3%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2,138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이행보증보험 증가와 더불어 통신 관련 신용보험이 고성장함에 따라 22.0% 증가한 3,634억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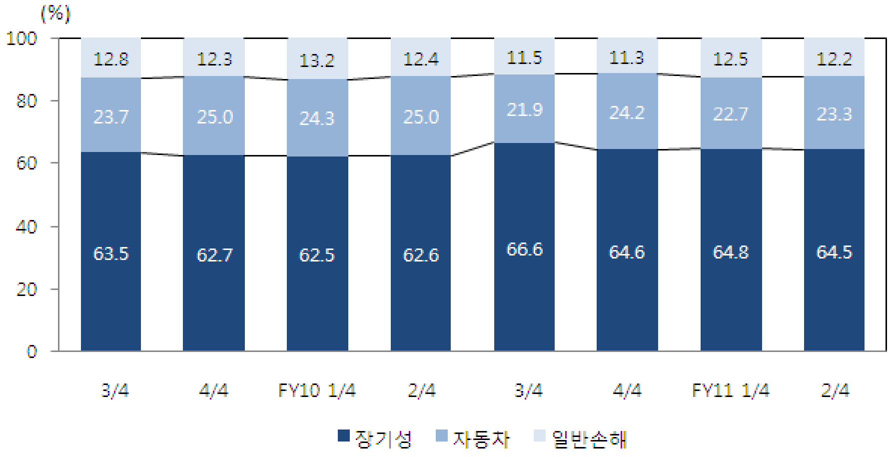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13.7% 증가한 1조 270억 원을 시현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기계 및 조립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건설보험이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1.6% 감소한 876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른 단체상해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10.6% 증가한 3,103억 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수요 확대로 가계 및 기업성 물건이 각각 1.0%, 14.5%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3.6% 늘어난 3,817억 원을 기록함.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1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종목별 구성비의 경우 장기성보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은 축소되었으며,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성보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고성장으로 원수보험료가 19.4% 증가함에 따라 1.9%p 늘어난 64.5%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자차 및 대물을 중심으로 8.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성보험 고성장으로 1.7%p 축소된 23.3%를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보증 및 특종을 중심으로 한 원수보험료 고성장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한(0.2%p 축소) 12.2%를 나타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4사, 전업사의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기타 국내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허핀달 지수는 0.0026 증가한 0.1488으로 나타남.

○ 상위 4사의 경우 연금부문 증가에 따라 18.5%의 고성장을 나타내 시장점유율도 1.5%p 확대된 70.8%를 시현함.

○ 기타 국내사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하여 증가율이 둔화(FY2010 2/4 15.1%, FY2011 2/4 9.9%)됨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1.3%p 축소된 23.8%를 나타냄.

○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 고성장으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0.2%p 높아진 2.6%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3.9%의 저성장을 나타내면서 점유율도 0.3%p 하락한 2.9%를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4사	68.8	69.1	69.3	70.8	70.3	69.9	71.2	70.8
국내 기타사	25.2	25.2	25.1	24.3	24.2	24.7	23.6	23.8
전업사	2.8	2.7	2.4	2.3	2.6	2.5	2.5	2.6
외국사	3.2	3.0	3.2	2.6	2.8	2.9	2.7	2.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2	3.0	3.2	2.6	2.8	2.9	2.6	2.8
허핀달지수	0.1436	0.1459	0.1462	0.1500	0.1461	0.1471	0.1520	0.1488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Ⅰ, Ⅱ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IFRS 도입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소폭(1.4%p) 상승에 그친 80.7%를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고성장세로 인한 경과보험료 증가(17.3%)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에 따른 발생손해액 증가(19.1%)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1.3%p 상승한 82.6%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가 경과보험료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11.0%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이 IFRS 도입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2.0% 증가에 그치면서 소폭 상승한(0.8%p) 83.3%를 기록함.

■ FY2011 2/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함과 동시에 IFRS 도입에 따른 손해조사비 항목조정으로 자동차보험 사업비율도 하락함에 따라 4.1%p 낮아진 18.2%로 개선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보유보험료 증가율(17.0%)이 순사업비 증가율(10.3%)을 상회하면서 1.0%p 낮아진 16.8%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보유보험료가 8.0% 증가한 데다 IFRS 도입으로 순사업비가 29.8%나 감소함에 따라 10.9%p 하락한 20.2%로 개선됨.

■ FY2011 2/4분기 합산비율의 경우 손해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7%p 하락한 98.9%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79.8	81.3	81.3	81.6	80.5	81.2	81.7	82.6
	자동차보험	75.7	75.7	82.5	85.9	77.1	80.3	79.6	83.3
	화재보험	32.0	21.2	50.1	-7.2	300.2	38.8	47.4	61.0
	해상보험	77.4	36.1	55.2	143.6	109.6	83.7	58.7	42.2
	보증보험	58.0	-98.2	70.9	27.8	33.8	9.2	43.9	43.0
	특종보험	62.4	52.8	66.4	62.2	66.4	62.2	61.6	69.2
	해외원보험	32.7	42.6	36.1	43.8	41.9	41.1	43.5	56.6
	해외수재보험	59.3	71.8	51.1	82.3	69.9	68.4	54.4	78.5
	전체	76.0	72.8	79.3	80.2	77.8	77.6	78.2	80.7
사업비율		23.8	21.9	22.3	21.7	22.3	22.0	18.3	18.2
합산비율		99.8	94.6	101.6	101.9	100.1	99.6	96.5	98.9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부문의 흑자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4.7% 증가한 6,482억 원의 흑자를 시현함.

- ○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장기성보험의 성장 지속으로 보험영업수익이 16.1%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12.3% 증가하여 보험영업수지는 5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408,165	111,904	117,324	121,779	125,138	476,145	128,987	136,235
	투자영업	42,559	11,239	11,210	12,610	12,336	47,396	14,387	16,461
	기타	21,181	4,901	2,883	13,794	11,876	33,455	2,442	2,554
	소계	471,905	128,044	131,418	148,183	149,351	556,996	145,815	155,250
총비용	보험영업	417,530	109,492	121,789	127,437	127,308	486,025	126,513	136,765
	투자영업	11,146	2,247	2,013	2,831	2,959	10,050	4,199	6,928
	기 타	22,515	4,719	2,365	14,105	12,319	33,508	2,676	2,787
	소계	451,192	116,458	126,167	144,373	142,585	529,583	133,389	146,480
수지차	보험영업	-9,365	2,412	-4,464	-5,658	-2,169	-9,879	2,474	-530
	투자영업	31,413	8,992	9,197	9,778	9,377	37,345	10,187	9,533
	기타	-1,335	182	518	-311	-442	-53	-235	-233
	소계	20,713	11,586	5,251	3,810	6,766	27,413	12,427	8,770
법인세		5,299	2,717	1,315	1,195	1,871	7,098	2,798	2,288
당기순이익		15,414	8,870	3,936	2,614	4,895	20,314	9,629	6,482

주: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영업비용이 244.2%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 및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투자영업수익도 46.8% 증가하여 투자영업수지는 3.7% 증가한 9,53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자산운용〉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 일반계정자산에서 각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 49.9%, 대출채권 18.5%, 현금과 예금 5.7%, 부동산 5.4% 순임.

○ 유가증권 내 구성비는 매도가능증권 41.6%, 당기손익인식증권 4.0%, 만기보유증권 3.0%,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2% 순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된 모습이나, 현금과 예금, 대출채권의 비중은 확대됨.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은 현금과예금 및 부동산의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0.4%p 하락한 4.7%를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투자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하락함에 따라 0.8%p 하락한 4.7%의 이익률을 기록함.

- 당기손익인식증권의 경우 주식의 이익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0.7% 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전체 운용자산 중 동 자산의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운용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1.9%p 상승한 5.3%를 시현한 반면, 대출채권 이익률은 0.5%p 하락한 5.6%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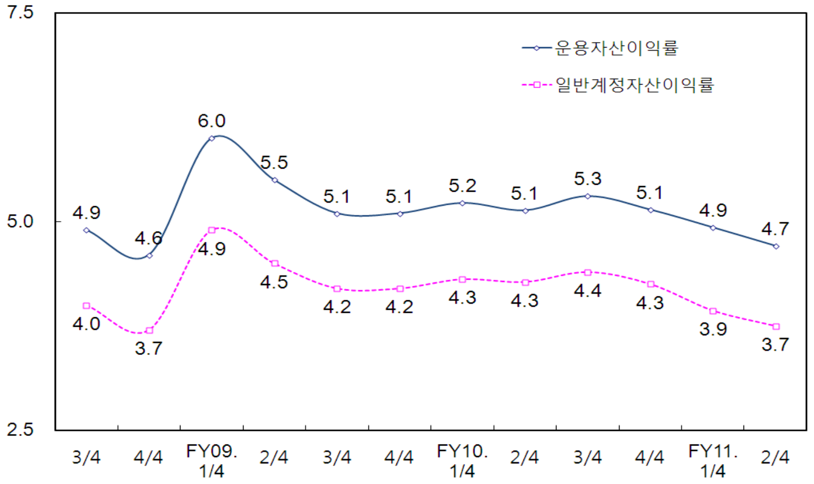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예금	5.4	3.4	5.1	3.4	5.4	3.1	5.8	2.6	5.7	5.3
유가증권	53.8	5.5	54.0	5.7	53.4	5.6	50.2	5.3	49.9	4.7
○ 당기손익인식증권[3)]	4.6	5.0	3.9	5.5	4.8	4.6	3.9	2.8	4.0	-0.7
- 주　식	0.3	10.0	0.4	14.2	0.3	14.9	0.5	-4.1	0.3	-32.4
- 채 권 등	0.6	9.9	0.8	4.5	1.3	3.6	1.2	4.7	1.4	8.0
- 수익증권	3.6	3.7	2.7	4.7	3.2	4.0	2.2	3.1	2.4	-0.3
○ 매도가능증권	44.0	5.5	46.3	5.7	44.7	5.8	41.9	5.4	41.6	5.2
- 주　식	4.3	6.6	4.6	7.5	4.5	7.6	4.1	6.1	3.7	2.1
- 채 권 등	28.3	5.4	30.7	5.5	29.6	5.5	28.9	5.2	28.8	5.7
- 수익증권	11.4	5.2	10.9	5.7	10.5	5.7	9.0	6.0	9.1	5.1
○ 만기보유증권	4.0	5.5	2.6	6.2	3.0	5.4	3.1	5.1	3.0	5.4
- 채 권 등	3.7	5.7	2.4	6.3	2.8	5.5	2.9	5.2	2.8	5.4
- 수익증권	0.3	2.5	0.2	4.8	0.2	3.6	0.2	4.1	0.3	6.2
○ 투자주식[4)]	1.3	6.0	1.3	4.1	0.9	2.0	1.3	7.2	1.2	4.4
대출채권	18.0	6.1	18.1	6.1	18.4	5.9	17.6	5.8	18.5	5.6
부동산	5.9	1.1	5.8	0.9	5.7	0.9	5.6	1.5	5.4	1.4
운용자산	83.1	5.1	83.0	5.3	83.0	5.1	79.1	4.9	79.6	4.7
비운용자산	16.9	0.2	17.0	0.1	17.0	0.1	20.9	0.0	20.4	-0.1
일반계정자산	100	4.3	100	4.4	100	4.3	100	3.9	100	3.7
일반계정자산	96.4	4.3	96.7	4.4	96.4	4.3	96.3	3.9	96.7	3.7
특별계정자산	3.6	-	3.3	-	3.6	-	3.7	-	3.3	-
총자산	100	4.1	100	4.2	100	4.0	100.0	3.7	100	3.6
총자산 규모	944,143		989,680		1,022,151		1,127,714		1,164,544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변경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FY2011 2/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함한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3.7%로 나타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단위: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3)]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3.4%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2.5%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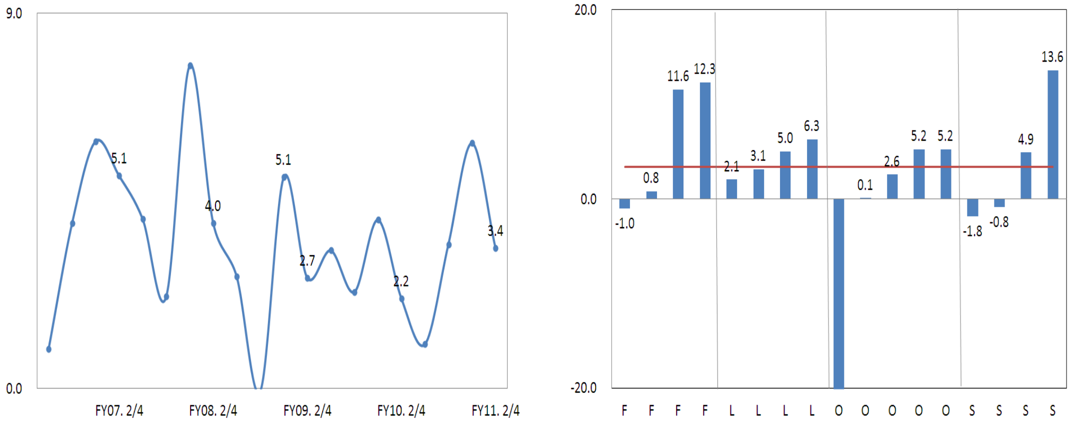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의 경우 대형사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E_t^o: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S_t: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A_t^o: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E_t^o: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국내외 17개 회사임.

-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부문의 적자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그림 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기준 시 대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모든 그룹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3.8%를 기록하였으며, 전업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18.1%p 상승한 2.8%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1.1%p 하락한 0.8%, 3.3%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표 2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2)	1/4	2/4
대형사	16.8	4.2	2.8	2.6	4.3	14.8	5.8	3.8
중소형사	11.2	4.5	1.6	-4.2	1.4	3.1	6.3	0.8
외국사	-37.7	-4.9	4.4	-2.0	-2.2	-1.8	9.1	3.3
전업사	-10.4	0.3	-15.3	-17.0	-8.9	-31.4	4.7	2.8
국내외 17개사	13.9	4.0	2.2	1.1	3.5	11.3	5.9	3.4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전체 자본이익률 변화는 주로 매출이익률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매출이익률이 각각 4.2%, 6.1%를 기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표 30〉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대형사	7.2	6.7	6.5	14.0	13.7	13.8	2.7	6.3	4.2
중소형사	11.2	13.7	13.3	16.3	15.4	14.7	0.8	3.0	0.4
외국사	4.2	3.1	2.5	26.6	24.6	22.1	5.9	11.9	6.1
전업사	5.0	4.8	4.9	21.9	19.8	18.8	-14.1	4.9	3.1
국내외 17개사	7.7	7.5	7.1	14.7	14.2	14.1	1.9	5.5	3.3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이들 대형사 및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각각 2.1%p, 5.8%p 하락한 수준임.
- 또한, 외국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및 자산회전율도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하여 자본이익률이 5.8%p 하락함.

○ 중소형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13.3배로 큰 편이나, 매출이익률이 0.4%로 저조하여 자본이익률은 0.8%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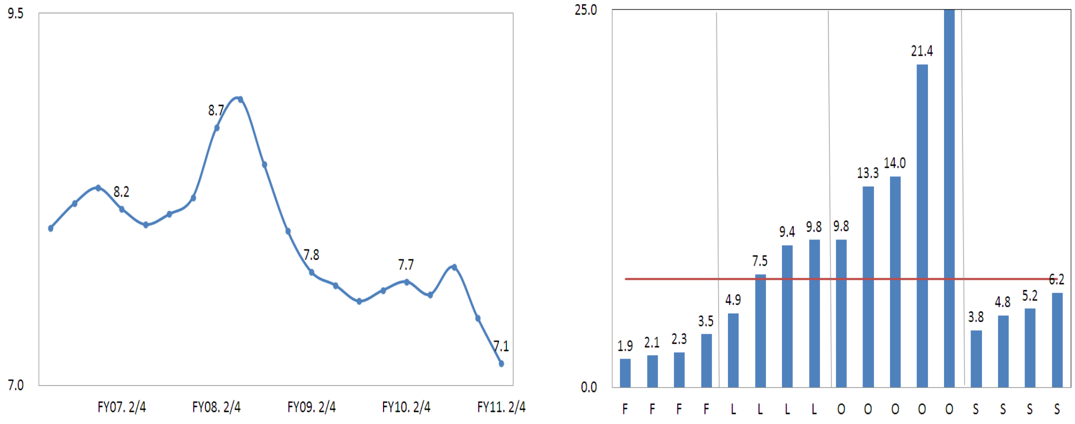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7.1배로 FY2010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의 경우 중소형사 및 대다수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7.1배)을 상회한 반면, 외국사 및 전업사의 경우 동 평균수준을 하회함.

〈그림 10〉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는 전분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한 반면, 전업사는 소폭 상승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자본증가 효과로 인해 전분기대비 하락함.

- 중소형사의 경우 FY2010 1/4분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레버리지비율이 FY2011 2/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함.

- 특히, 외국사의 경우 전분기대비 40.2%에 달하는 높은 자본증가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2.5배로 나타남.

〈표 31〉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형사	7.7	7.2	7.2	7.1	7.1	7.4	6.7	6.5
중소형사	11.5	11.1	11.2	11.3	12.8	12.8	13.7	13.3
외국사	3.9	4.3	4.2	4.2	4.4	4.4	3.1	2.5
전업사	4.4	4.5	5.0	5.3	4.9	4.5	4.8	4.9
국내외 17개사	8.1	7.6	7.7	7.6	7.8	8.0	7.5	7.1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2〉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1)]		자본증가율[1)]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3.9	6.7	37.9	11.1
중소형사	25.3	6.7	5.4	9.8
외국사	30.4	11.1	124.7	40.2
전업사	24.7	9.2	26.5	7.2
국내외 17개사	24.3	6.7	33.8	11.3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국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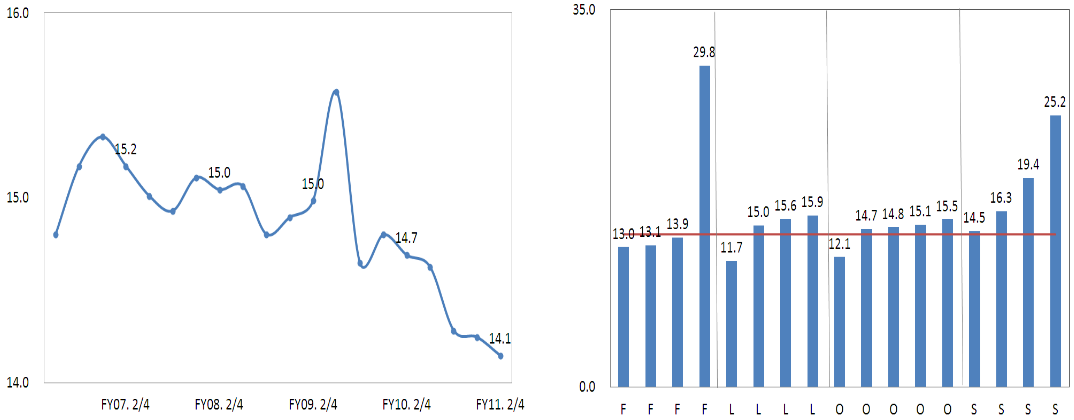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FY2010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4.1%를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의 경우 전업사 모두는 산업평균수준(14.1%)을 상회하고 있으며, 외국사 다수는 산업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외국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산회전율에도 불구하고 29.8%에 달하는 특정 외국사의 높은 자산회전율로 인해 외국사 전체 자산회전율은 22.1%를 기록함.

〈그림 11〉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12.6%, 1.5%를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 전체 자산회전율 하락은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외국사와 전업사의 보험영업회전율이 타 그룹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전년동기대비 4.4%p, 3.4%p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표 33〉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대형사	14.0	13.7	13.8	12.6	12.2	12.2	1.3	1.5	1.6
중소형사	16.3	15.4	14.7	15.1	14.1	13.4	1.2	1.3	1.3
외국사	26.6	24.6	22.1	25.9	23.9	21.5	0.7	0.7	0.7
전업사	21.9	19.8	18.8	21.0	18.8	17.6	0.9	1.0	1.2
국내외 17개사	14.7	14.2	14.1	13.4	12.8	12.6	1.3	1.4	1.5

주 :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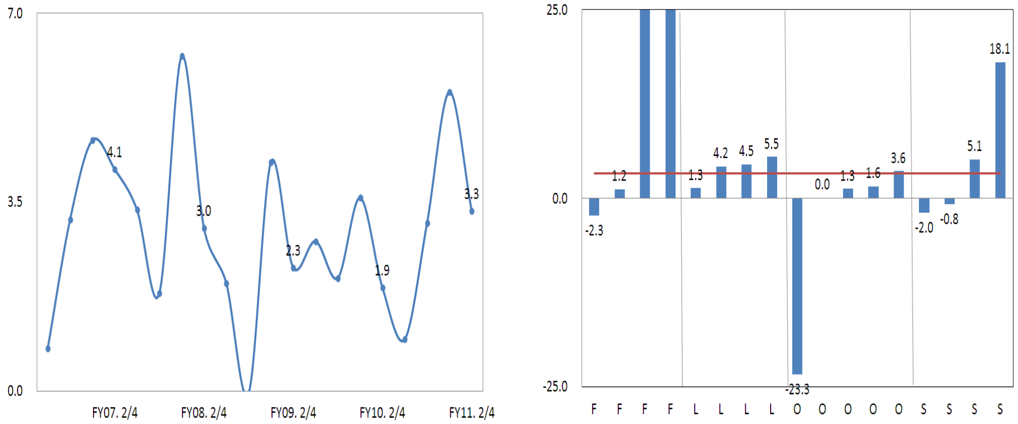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3.3%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2.2%p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산업평균 수준(3.3%)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 대부분은 낮은 매출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 한편, 일부 외국사의 40%대를 상회하는 매출이익률에 힘입어 외국사 전체 매출이익률은 6.1%로 나타남.

〈그림 12〉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2/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이익률은 -1.3%, 투자영업이익률은 6.1%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모든 그룹이 전분기에 비해 이익률이 하락하였으며, 그 중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는 각각 -0.7%, -3.2%, -1.9% 등 마이너스 이익률을 기록함.

- 그러나 동 보험영업이익률 수준은 FY2010 2/4분기 동안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중심으로 초래된 낮은 보험영업이익률보다는 나은 편임.

○ 투자영업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및 중소형사의 이익률 하락이 손해보험산업 전체 투자영업이익률 하락을 주도함.

〈표 34〉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1/4	FY2011 2/4	FY2010 2/4	FY2011 4/4	FY2011 2/4
대형사	2.7	6.3	4.2	-3.7	0.8	-0.7	7.6	7.6	6.7
중소형사	0.8	3.0	0.4	-5.1	-1.8	-3.2	6.3	5.7	4.3
외국사	5.9	11.9	6.1	4.9	10.6	2.9	2.6	2.9	2.9
전업사	-14.1	4.9	3.1	-18.1	1.5	-1.9	4.3	4.5	5.6
국내외 17개사	1.9	5.5	3.3	-4.3	0.4	-1.3	7.2	7.0	6.1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1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임직원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과 대리점 채널은 축소됨.

○ 임직원 원수보험료 모집 비중은 퇴직연금 고성장세로 0.9%p 증가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채널 모집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각각 0.5%p, 0.9%p 감소함.

○ 방카슈랑스채널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판매실적이 증가하면서 0.4%p 증가한 7.6%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64,725	16,892	15,250	30,526	19,023	81,690	22,603	19,022
		14.8	14.0	12.5	20.9	14.3	15.6	16.1	13.4
설계사		145,894	40,166	41,265	43,085	43,873	168,389	45,467	47,161
		33.3	33.2	33.7	29.4	33.0	32.2	32.3	33.2
대리점		197,584	54,290	55,964	62,068	60,255	232,577	62,156	63,637
		45.1	44.9	45.7	42.4	45.3	44.5	44.2	44.8
중개사		3,372	905	971	1,402	898	4,176	1,107	1,113
		0.8	0.7	0.8	1.0	0.7	0.8	0.8	0.8
방카슈랑스		24,971	8,404	8,754	9,040	8,493	34,692	9,208	10,824
		5.7	7.0	7.2	6.2	6.4	6.6	6.5	7.6
공동인수		1,777	172	200	200	350	922	183	217
		0.4	0.1	0.2	0.1	0.3	0.2	0.1	0.2
전체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2	522,445	140,723	141,9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1 2/4분기 말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설계사 및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상위 4사 및 국내사의 정규직 직원 증가로 523명 증가한 3만 60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상위 4사 및 국내사 모두 전속설계사 채널이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가 감소함에 따라 729명 감소한 16만 1,129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상위 4사의 경우 개인 및 법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고, 국내사의 경우 개인대리점이 감소함에 따라 485개 줄어든 4만 1,034개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1/4	2/4
임직원	28,796	28,917	29,206	29,400	28,951	29,537	30,060
설계사	164,203	162,693	162,985	161,767	162,144	161,858	161,129
- 전속	83,020	83,562	83,765	83,597	84,144	85,372	86,517
- 교차	81,183	79,131	79,220	78,170	78,000	76,486	74,612
대리점	45,049	44,139	43,343	42,927	41,963	41,519	41,034
- 개인	32,976	32,270	31,650	31,003	30,091	29,647	29,254
- 법인	12,073	11,869	11,693	11,924	11,872	11,872	11,780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1]

가. 생명보험

■ 2011년 3/4분기(7~9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2]는 정기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함.

○ 종신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가 10% 증가한 가운데, 동 보험은 2000년대 들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종신보험은 1~2%대의 보험료 감소세를 기록한 2004~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8년간 플러스 성장하였는데, 이는 금융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해약환급금(cash value)을 보장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임.
- 1990년대에는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고성장으로 종신보험 연납화 보험료가 1991~199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 바 있음.

○ 유니버셜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는 3%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지수에 연동되면서도 최저이율을 보장하는 인덱스 유니버셜보험이 30%대의 고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임.

- 인덱스 유니버셜보험은 2006년 전체 유니버셜보험 중 5%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20%대로 비중이 증가함.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는 기업소유 생명보험(corporate-owned life insurance)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과임.

---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함.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2011년 3/4분기 신계약 보험료 기준 누적 점유율의 경우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2010년 말 대비 확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낸 유니버셜보험과 보험료가 감소한 정기보험의 비중이 감소함.

○ 종목별 점유율의 경우 유니버셜보험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이 각각 29%, 21%, 9%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CY2010					CY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셜	11	8	13	10	42	14	1	3	41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2	-6	-25	-7	8	14	3	34	9
정기	-11	-16	-16	-12	22	-11	-5	-4	21
종신	23	6	14	15	28	15	5	10	29
계	7	0	2	4	100	8	1	6	100
연납화 보험료	2,398	2,247	2,671	9,541		2,370	2,419	2,38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1년 3/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신규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604억 달러를 기록함.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16.2% 증가한 40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다우존스지수가 전분기대비 12.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5.6% 감소한 202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정액연금 중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2.2	35.2	34.6	38.5	140.5	39.8	40.9	40.2
	증가율	3.9	9.7	8.5	16.7	9.8	23.6	16.2	16.2
	비중	62.5	61.8	61.8	66.5	63.2	66.3	65.5	66.6
정액연금	보험료	19.3	21.8	21.4	19.4	81.9	20.2	21.5	20.2
	증가율	-47.4	-25.3	-9.3	-8.1	-25.9	4.7	-1.4	-5.6
	비중	37.5	38.2	38.2	33.5	36.8	33.7	34.5	33.4
합계	보험료	51.5	57.0	56.0	57.9	222.4	60.0	62.4	60.4
	증가율	-23.9	-7.0	0.9	7.0	-6.8	16.5	9.5	7.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Annuities.*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속설계사가 2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독립중개인이 21.2%, 독립설계사가 17.6%,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4.9%, 14.9%, 7.6%로 나타남.

○ 변액연금의 경우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29.1%, 24.6%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은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CY2010			CY2011		
	2/4	3/4	4/4	1/4	2/4	3/4
은행	15.6	14.6	14.0	16.3	15.9	14.9
전속설계사	20.8	20.9	21.3	20.3	21.0	21.7
직접판매	8.1	7.3	7.3	7.0	8.0	7.6
독립중개인	20.7	20.4	21.5	22.6	21.0	21.2
독립설계사	18.0	19.6	17.8	15.6	17.0	17.6
증권중개인	12.8	13.0	14.2	15.1	14.9	14.9
기타	4.0	4.1	4.0	3.2	2.2	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1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변경권이 있는 Guaranteed Renewable[3]과 Non-cancellable[4]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5.5% 증가함.

○ Non-cancellable은 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Guaranteed Renewable 신규보험료는 1.3% 증가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105,731	74,268	83,742	80,365	344,106	107,171	76,002	81,636
		증가율	0.6	2.7	44.6	0.0	9.0	1.4	2.3	-2.5
		구성비	77.5	69.2	69.0	67.3	71.0	76.2	69.0	66.6
	Non-cancellable	건 수	30,775	33,110	37,552	39,043	140,480	33,427	34,075	40,852
		증가율	-8.0	-8.8	-8.8	-2.6	-7.0	8.6	2.9	8.8
		구성비	22.5	30.8	31.0	32.7	29.0	23.8	31.0	33.4
	전체	건 수	136,506	107,378	121,294	119,408	484,586	140,598	110,077	122,488
		증가율	-1.4	-1.1	22.4	-0.8	3.9	3.0	2.5	1.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0,396	48,896	50,856	50,985	211,133	64,144	48,781	51,525
		증가율	-1.3	14.1	12.1	3.3	6.2	6.2	-0.2	1.3
		구성비	49.2	42.2	40.4	40.1	42.9	49.1	40.0	38.8
	Non-cancellable	보험료	62,468	66,959	74,967	76,277	280,671	66,577	73,101	81,160
		증가율	-7.2	-9.2	-6.5	-5.3	-7.0	6.6	9.2	8.3
		구성비	50.8	57.8	59.6	59.9	57.1	50.9	60.0	61.2
	전체	보험료	122,864	115,855	125,824	127,261	491,804	130,721	121,882	132,685
		증가율	-4.4	-0.6	0.2	-2.1	-1.8	6.4	5.2	5.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1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원수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관련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손실이 801.4% 증가한 10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4.1% 증가하여 1,1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는 4.4% 증가함.

○ 지급보험금은 자연재해 관련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15.3% 증가한 899억 달러로 나타남.

- 자연재해 관련 지급보험금은 2010년 3/4분기 29억 달러에서 2011년 3/4분기 9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합산비율은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4%p 상승한 108.6%로 나타났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7.0%p 상승한 105.9%로 나타남.

■ 총 투자영업이익은 1.7% 감소한 13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 이익은 2억 달러 적자에서 11억 달러 흑자로 전환됨.

○ 총 투자영업이익 중 이자수입과 배당금 등의 투자영업이익은 1.4% 증가한 117억 달러, 실현자본이익은 17.8% 감소한 19억 달러로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8.7% 감소한 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5.3%p 하락한 2.3%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FY2010 3/4분기 -16.8%에서 -95.9%로 악화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도 8.2%에서 4.4%로 하락함.

○ 2010년 2/4분기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급보험금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금리환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부진으로 당기순이익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11,135	98,918	422,065	108,589	109,746	115,740
	증가율	2.6	1.2	0.8	3.4	1.6	4.1
지급보험금	금액	77,922	79,655	309,109	78,459	95,404	89,883
	증가율	0.3	6.3	0.8	5.3	22.9	15.3
보험영업이익	금액	-855	-3,020	-8,160	-4,008	-19,262	-10,548
	증가율	12.1	-358.1	671.3	209.7	532.8	1,133.7
계약자 배당금	금액	345	1,162	2,270	456	348	260
	증가율	14.2	14.8	14.3	-10.9	34.4	-24.6
총 보험영업이익	금액	-1,199	-4,182	-10,430	-4,463	-19,610	-10,808
	증가율	12.6	-2,746.8	242.6	147.1	493.7	801.4
투자영업이익	금액	11,520	12,221	47,246	12,561	12,222	11,681
	증가율	-6.2	9.9	0.5	8.4	1.3	1.4
실현자본이익	금액	2,265	1,254	5,688	984	2,617	1,862
	증가율	47.7	-24.6	-171.5	0.3	103.8	-17.8
총 투자영업이익	금액	13,784	13,475	52,935	13,545	14,839	13,544
	증가율	-0.2	5.4	35.5	7.7	11.2	-1.7
세전 영업이익	금액	10,082	8,678	37,834	8,610	-7,347	2,007
	증가율	-12.1	-20.9	-15.5	-15.6	-181.7	-80.1
당기순이익	금액	10,299	7,993	34,670	7,807	-3,065	3,221
	증가율	-1.0	-34.2	21.9	-11.8	-139.5	-68.7
자기자본(surplus)	금액	547,191	556,852	556,852	564,656	559,058	538,627
	증가율	11.5	8.9	-70.7	4.4	4.9	-1.6
지급준비금	금액	559,934	557,710	557,710	560,795	574,977	578,117
	증가율	1.4	0.9	-74.8	1.4	2.8	3.2
합산비율		100.2	105.9	102.4	103.3	117.6	108.6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 보험영업이익 + 총 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 P/C Insurers' Underwriting And Overall Financial Results For Nine-Months 2011 Show Deterioration Driven By Spike In Catastrophe Losses(2011. 12).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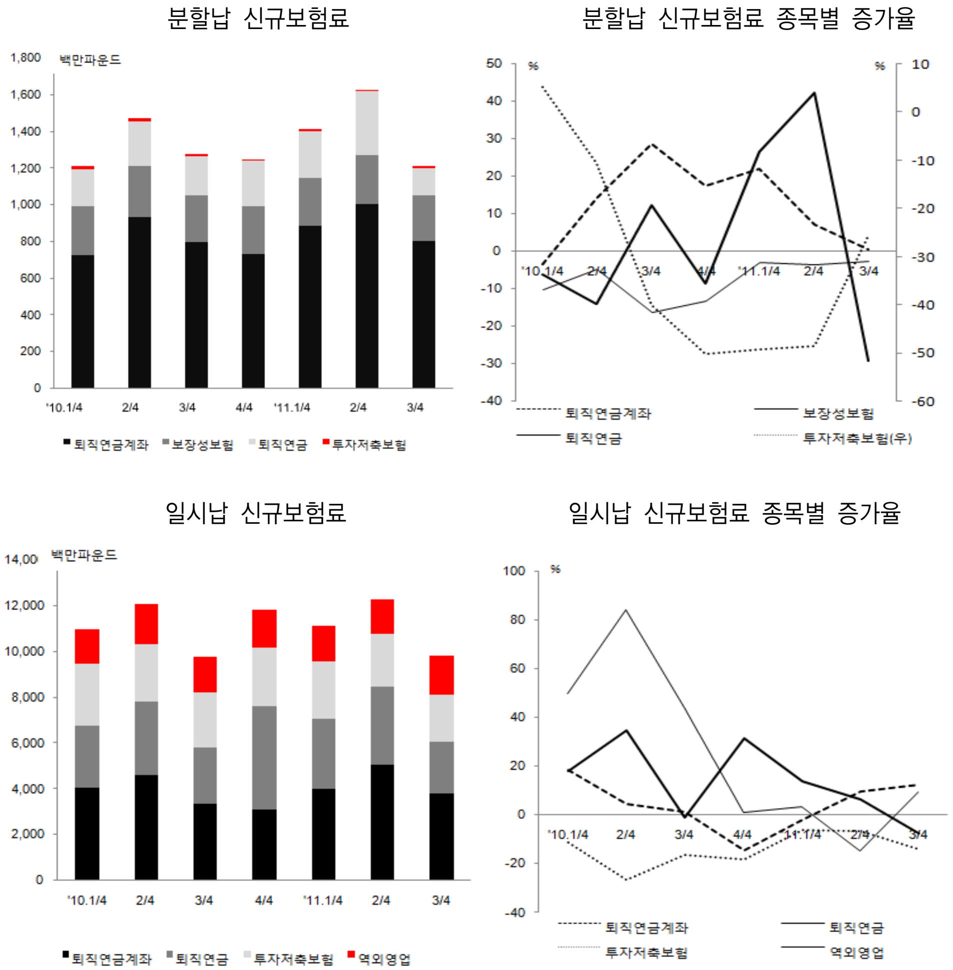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5)]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2011년 3/4분기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신규보험료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110억 5,300만 파운드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와 종목별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5)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 역외영업 등이 감소세를 보여 5.3% 감소한 12억 1,84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와 역외영업이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0.3% 증가한 98억 3,420만 파운드가 거수됨.

〈투자 ·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1년 3/4분기 투자 · 저축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주로 어린이신탁(stakeholder child trust)보험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신탁[6]의 3/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87.6% 감소함.

■ 3/4분기 투자 · 저축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 투자자산(distribution bonds) 등에서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9% 감소함.

○ 투자 · 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액연동채권은 독립재정자문가(IFA)의 판매 저조(12.6% 감소)로 12.7% 감소함.

○ 이밖에 유배당채권, 소득인출이 정기적으로 가능한 투자자산도 각각 12.2%, 49.2%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3/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기타 종목의 판매 저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pensions)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함.

○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함.

6) 어린이신탁보험의 대부분은 stakeholder 어린이신탁보험임.

■ 3/4분기 퇴직연금계좌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 등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함.

○ 단체개인연금계좌의 경우 독립재정자문가(IFA)를 통한 판매가 56.4% 증가하면서 신규보험료가 59.5% 증가함.

○ 개인연금계좌는 IFA(7.6%)를 통한 판매 호조로 5.2% 증가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3/4분기 분할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기타 퇴직연금(other pension business)의 신규보험료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9.3% 감소함.

○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계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1건 증가했으나, 판매된 신규보험료는 49.1% 감소함.

○ DC형 퇴직연금은 계약건수가 9건 증가했으나, 신규보험료는 16.1% 감소함.

○ 기타 퇴직연금은 계약건수가 3건 감소하였으며, 신규보험료도 36.8% 감소함.

■ 3/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판매가 부진하여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함.

○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과 DB형 퇴직연금의 신규보험료는 각각 21.3%, 72.8% 감소한 반면, Bulk Buyouts[7]은 36.4% 증가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3/4분기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공동투자채권(personal bonds (pooled))[8]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함.

○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동투자채권은 11.5% 증가함.

---

7) DB형 퇴직연금의 관리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구입함.

8) 뮤츄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 한편,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0.4%에 해당하는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3/4분기 보장성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mortgage-related term)의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함.

○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은 계약건수가 10.1% 감소하면서 신규보험료도 8.2% 감소함.

■ 3/4분기 분할납 보장성 보험료의 20.2%에 해당하는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16.9	12.7	9.9	57.3	9.0	8.7	9.4
	증가율	-10.6	-39.9	-50.2	-25.4	-49.2	-48.6	- 25.7
	구성비	1.1	1.0	0.8	1.1	0.6	0.5	0.8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934.6	794.4	730.2	3,185.6	886.2	1,003.6	800.2
	증가율	14.2	28.6	17.5	13.4	22.0	7.4	0.7
	구성비	63.1	61.8	57.9	60.7	62.3	61.3	65.7
퇴직연금	보험료	246.2	210.2	249.1	909.6	258.6	350.7	148.6
	증가율	-14.0	12.3	-8.7	-5.6	26.7	42.5	-29.3
	구성비	16.6	16.3	19.8	17.3	18.2	21.4	12.2
역외영업	보험료	8.7	9.3	10.8	36.7	10.9	8.7	7.1
	증가율	73.1	76.2	74.6	73.7	38.2	-0.1	-23.6
	구성비	0.6	0.7	0.9	0.7	0.8	0.5	0.6
보장성보험	보험료	274.9	259.7	260.9	1,060.7	257.5	265.2	253.1
	증가율	-4.7	-16.4	-13.5	-11.3	-2.9	-3.5	-2.6
	구성비	18.6	20.2	20.7	20.2	18.1	16.2	20.8
합계	보험료	1,481.2	1,286.3	1,261.0	5,249.8	1,422.2	1,636.8	1,218.4
	증가율	4.6	12.7	3.2	3.6	16.4	10.5	-5.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500.1	2,404.7	2,557.1	10,153.9	2,523.5	2,333.8	2,069.9
	증가율	-26.6	-16.4	-18.3	-18.4	-6.3	-6.6	-13.9
	구성비	20.6	24.5	21.6	22.7	22.6	18.9	21.0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4,601.8	3,369.2	3,119.5	15,155.0	3,984.3	5,033.2	3,785.6
	증가율	4.2	1.0	-14.6	2.1	-2.0	9.4	12.4
	구성비	38.0	34.4	26.4	33.9	35.7	40.8	38.5
퇴직연금	보험료	3,203.4	2,450.5	4,477.0	12,802.1	3,040.8	3,402.6	2,264.7
	증가율	34.7	-1.1	31.3	21.6	13.8	6.2	-7.6
	구성비	26.4	25.0	37.8	28.6	27.3	27.6	23.0
역외영업	보험료	1,758.4	1,520.0	1,621.5	6,403.4	1,554.3	1,498.1	1,662.8
	증가율	84.0	43.9	0.7	38.4	3.4	-14.8	9.4
	구성비	14.5	15.5	13.7	14.3	13.9	12.2	16.9
보장성보험	보험료	54.0	55.9	58.0	229.5	53.9	54.3	51.2
	증가율	-17.4	1.4	-12.3	-3.2	-12.6	0.5	-8.5
	구성비	0.4	0.6	0.5	0.5	0.5	0.4	0.5
합계	보험료	12,117.6	9,800.3	11,833.2	44,743.8	11,156.9	12,322.1	9,834.2
	증가율	8.0	0.0	-0.3	4.8	1.5	1.7	0.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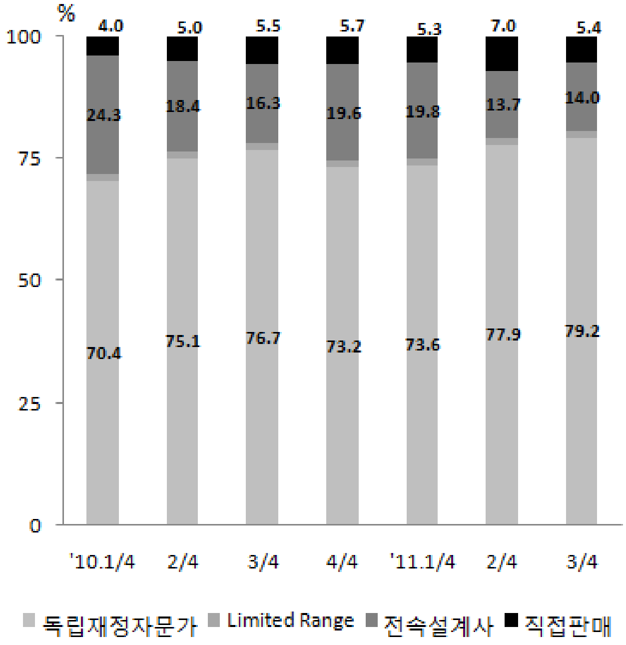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2011년 3/4분기 판매채널별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와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함.

- ○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보장성보험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2.5%p 증가한 79.2%를 기록함.
- ○ 직접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부진으로 0.1%p 감소하여 5.4%로 나타남.
- ○ 전속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개인 보장성보험 판매 부진으로 2.3%p 감소한 14.0%를 기록함.

〈그림 2〉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9)]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9)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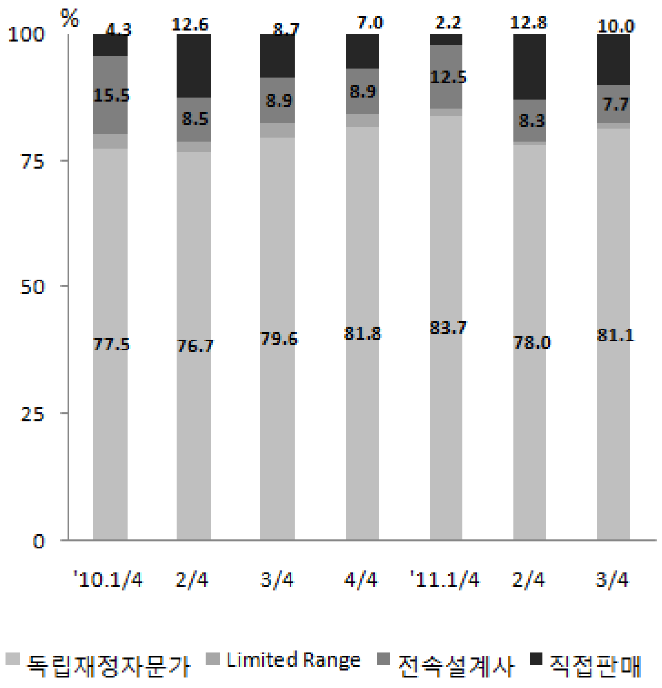
■ 3/4분기 판매채널별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직접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는 퇴직연금과 역외영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일시납 신규보험료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p 증가한 81.1%를 기록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가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판매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동 비중은 1.2%p 감소한 7.7%를 나타냄.

○ 직접판매는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 판매 증가로 1.3%p 증가한 10.0%를 기록함.

〈그림 3〉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한편, 방카슈랑스를 통한 3/4분기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방카슈랑스 분할납 신규 판매액은 개인 보장성보험의 판매 부진(-6.3%)으로 9,800만 파운드를 기록하면서 1.0% 감소함.

○ 3/4분기 방카슈랑스 일시납 신규 판매액은 9억 6,300만 파운드로 3.8% 감소함.

- 방카슈랑스를 이용한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판매는 각각 1.5%, 1.7%, 44.9%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10)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1 2/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과 단체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개인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지진으로 인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9조 6,792억 엔을 기록함.

〈표 7〉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연간	1/4	2/4
개인성	개 인	금 액	169,250	172,207	155,430	653,871	154,803	174,097
		증가율	5.7	5.7	-3.6	3.9	-1.4	2.9
		구성비	87.4	90.1	87.0	87.3	85.1	88.5
	- 사 망	금 액	137,729	141,569	126,877	532,941	126,306	145,014
		증가율	7.3	7.6	-2.0	5.7	-0.4	5.3
		구성비	71.1	74.1	71.0	71.2	69.4	73.7
	- 생 사 혼 합	금 액	30,278	29,191	27,309	115,697	27,080	27,407
		증가율	-0.8	-2.5	-10.6	-3.3	-6.4	-9.5
		구성비	15.6	15.3	15.3	15.5	14.9	13.9
	- 생 존	금 액	1,243	1,447	1,244	5,233	1,417	1,676
		증가율	-0.1	4.6	-1.6	1.8	9.1	34.8
		구성비	0.6	0.8	0.7	0.7	0.8	0.9
	개인연금	금 액	19,708	16,135	16,290	69,759	16,487	18,615
		증가율	-7.8	-17.9	-25.7	-16.2	-6.5	-5.5
		구성비	10.2	8.4	9.1	9.3	9.1	9.5
단체보험		금 액	4,689	2,807	6,909	24,828	10,561	4,063
		증가율	-49.1	-29.2	-5.6	-15.2	1.3	-13.3
		구성비	2.4	1.5	3.9	3.3	5.8	2.1
합계		금 액	193,667	191,174	178,665	748,579	181,908	196,792
		증가율	1.6	2.5	-6.3	0.9	-1.7	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이 9.5%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큰 사망보험이 직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5.3% 증가하고 생존보험도 34.8%나 증가하여 전체 2.9% 증가한 17조 4,097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정기부종신보험이 각각 29.4%, 4.6%, 24.7% 증가함에 따라 5.3%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양로보험이 2.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보험이 17.8% 감소함에 따라 9.5% 감소함.

○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비중이 큰 정액연금보험이 0.8% 증가하였으나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이 수익률 악화로 50.4%나 감소함에 따라 전체 5.5% 감소한 1조 8,615억 엔을 기록함.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단체정기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이 감소함에 따라 13.3% 감소한 4,063억 엔을 시현함.

〈자산 현황〉

■ FY2011 2/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과 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1% 감소한 318조 8,034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과 단기자금의 경우 유동성 강화를 위한 자금 수요 증가로 각각 47.0%, 16.4% 증가함.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 관련 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주식이 감소하면서 0.4% 감소함.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2.2% 감소함.

〈표 8〉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전분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2,241	27.7	28,765	-31.9	56,560	96.6	31,286	-44.7	46,006	47.0
단기자금	21,264	4.1	22,249	4.6	20,096	-9.7	18,496	-8.0	21,533	16.4
매입금전채권	32,778	-0.6	32,146	-1.9	30,458	-5.3	31,552	3.6	30,515	-3.3
금전신탁	20,428	-9.1	20,478	0.2	20,712	1.1	20,067	-3.1	19,517	-2.7
유가증권	2,465,755	1.7	2,469,106	0.1	2,479,810	0.4	2,493,798	0.6	2,483,074	-0.4
- 국 채	1,311,052	1.6	1,315,255	0.3	1,323,987	0.7	1,344,865	1.6	1,374,469	2.2
- 지방채	114,033	2.5	115,055	0.9	119,164	3.6	122,923	3.2	126,128	2.6
- 사 채	265,240	-0.1	261,014	-1.6	252,836	-3.1	252,272	-0.2	252,680	0.2
- 주 식	163,027	-4.4	167,731	2.9	162,149	-3.3	151,322	-6.7	140,236	-7.3
- 외화증권	447,978	5.2	444,877	-0.7	457,384	2.8	459,622	0.5	438,671	-4.6
대출금	452,978	-2.0	449,448	-0.8	438,772	-2.4	436,174	-0.6	426,622	-2.2
부동산	68,500	3.3	68,192	-0.4	66,909	-1.9	65,965	-1.4	66,223	0.4
운용자산	3,115,005	1.4	3,107,627	-0.2	3,131,288	0.8	3,112,022	-0.6	3,108,847	-0.1
비운용자산	70,179	-11.2	77,295	10.1	75,623	-2.2	77,948	3.1	79,187	1.6
총자산	3,184,275	1.1	3,183,287	0.0	3,206,912	0.7	3,189,970	-0.5	3,188,034	-0.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1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1조 9,558억 엔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가 각각 0.9%, 1.0% 증가한 8,448억 엔, 2,211억 엔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재해 관련 보험 수요 확대와 FY2010 2/4분기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3% 증가한 3,234억 엔을 시현함.

〈표 9〉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3,163	3,441	3,239	13,159	3,384	3,234
	증가율	-3.9	-11.7	-4.6	-5.9	2.1	2.3
	구성비	16.6	17.9	17.3	17.0	16.5	16.5
해 상	보험료	483	473	495	1,965	521	481
	증가율	8.1	5.7	2.3	5.8	1.4	-0.5
	구성비	2.5	2.5	2.6	2.5	2.5	2.5
운 송	보험료	144	151	146	608	166	148
	증가율	-3.3	-3.3	-2.3	-2.9	0.1	2.6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376	8,643	8,489	34,314	8,812	8,448
	증가율	0.8	0.3	0.6	0.5	0.1	0.9
	구성비	44.0	44.9	45.2	44.3	42.9	43.2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189	1,897	1,996	8,063	2,222	2,211
	증가율	1.8	-5.5	1.1	0.1	2.7	1.0
	구성비	10.5	9.9	10.6	10.4	10.8	11.3
상 해	보험료	2,686	2,482	2,293	10,403	2,895	2,747
	증가율	3.4	-3.7	-2.4	1.4	-1.6	2.3
	구성비	14.1	12.9	12.2	13.4	14.1	14.0
특 종	보험료	2,189	2,145	2,103	8,966	2,539	2,289
	증가율	0.4	3.4	-2.5	0.5	0.4	4.6
	구성비	11.5	11.2	11.2	11.6	12.4	11.7
합계	보험료	19,048	19,232	18,761	77,478	20,541	19,558
	증가율	0.5	-2.7	-1.0	-0.5	0.5	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요 회복으로 2.3% 증가한 2,747억 엔을 시현하여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도 4.6% 증가한 2,289억 엔을 기록하여 대지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냄.

〈자산 현황〉

■ FY2011 2/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등의 감소로 운용자산이 전분기대비 2.8% 감소하고 비운용자산도 31.7% 감소함에 따라 전체 7.2% 감소함

○ 단기자금은 대지진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94.9% 증가함.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가 1.9% 증가한 반면 주식, 기타증권, 지방채가 각각 11.4%, 10.4%, 9.9% 감소하여 전체 4.5% 감소함.

〈표 10〉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전분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007	19.1	7,871	-12.6	9,043	14.9	7,235	-20.0	7,107	-1.8
단기자금		4,040	9.9	2,498	-38.2	7,574	203.1	3,136	-58.6	6,114	94.9
환매조건부채권		3,149	73.1	2,509	-20.3	1,675	-33.3	2,384	42.4	2,125	-10.9
매입금전채권		11,362	21.7	9,511	-16.3	9,489	-0.2	7,693	-18.9	7,971	3.6
금전신탁		1,093	0.8	1,184	8.3	780	-34.1	762	-2.3	794	4.1
유가증권	국채	51,191	2.1	52,017	1.6	50,984	-2.0	51,390	0.8	52,386	1.9
	지방채	5,350	-6.8	5,613	4.9	5,311	-5.4	5,207	-2.0	4,693	-9.9
	회사채	35,875	-3.7	34,241	-4.6	32,925	-3.8	31,981	-2.9	31,282	-2.2
	주식	63,302	-0.9	66,666	5.3	64,394	-3.4	62,804	-2.5	55,645	-11.4
	외화증권	47,919	-1.2	47,788	-0.3	47,518	-0.6	47,146	-0.8	45,725	-3.0
	기타증권	4,047	-2.3	3,486	-13.9	3,242	-7.0	3,200	-1.3	2,869	-10.4
	소계	207,683	-0.9	209,810	1.0	204,374	-2.6	201,729	-1.3	192,600	-4.5
대출금		23,098	-1.5	22,547	-2.4	21,679	-3.8	21,240	-2.0	20,291	-4.5
부동산		10,877	-0.8	10,788	-0.8	10,718	-0.6	10,637	-0.8	10,571	-0.6
운용자산		270,310	-0.9	266,718	-1.3	265,331	-0.5	254,817	-4.0	247,572	-2.8
비운용자산		30,717	-1.6	29,784	-3.0	31,401	5.4	45,757	45.7	31,255	-31.7
총자산		301,028	-1.0	296,503	-1.5	296,733	0.1	300,575	1.3	278,827	-7.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覧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4. 중국 동향[11)]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 2011년 3/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3,19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으며, 증가율 하락세가 확대됨.

○ 2011년 들어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인보험의 실적부진으로 1/4~3/4분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각각 1.7%, -0.5%, -3.9%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음.

〈표 11〉 중국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3,457	3,326	3,204	14,528	4,617	3,440	3,197
	증가율	27.6	28.2	25.3	30.4	1.7	-0.5	-3.9
지급보험금	금액	741	789	938	3,200	980	979	914
	증가율	-5.6	7.5	19.8	2.4	33.9	32.1	15.8
사업비	금 액	357	369	493	1,538	385	437	466
	증가율	27.0	20.9	27.7	24.7	20.6	22.4	26.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1년 3/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지급보험금은 9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며, 동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8.3%p 상회한 수준임.

1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바람.

○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 규모는 1/4~2/4분기 동안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3/4분기 들어 보험금 지급 압력이 다소 완화되어 15.8% 증가에 그침.

■ 한편, 3/4분기 사업비는 46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6.3% 증가함.

〈자산운용〉

■ 2011년 3/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4% 감소한 5조 7,257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이 1.1% 증가한 5조 2,611억 위안, 비운용자산이 14.3% 감소한 4,646억 위안으로 나타남.

■ 2011년 3/4분기 운용자산 중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은행 예치금은 전분기대비 2.7% 감소하여 동 비중이 0.7%p 하락한 30.0%를 기록함.

○ 반면, 투자금은 3.0% 증가하여 그 비중이 61.9%에 달하는 등 투자금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됨.

■ 2011년 1/4~3/4분기 중국 보험업의 평균 자금운용 수익률은 전년동기보다 0.6%p 하락한 2.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중 중국 자산운용시장의 불황에 기인한 것임.

○ 3/4분기 동안 중국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의 A주 총합지수와 상하이 기업채권 지수는 각각 21.2%, 1.3% 하락함.

○ 이에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도 크게 떨어져 상위 3사는 3/4분기 동안 약 400억 위안(7조 원), 1/4~3/4분기 전체 600억 위안(11조 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함.

○ 반면, 2004~2010년간 1/4~3/4분기 중국 보험업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5.0% 이상을 유지하였음.

〈표 12〉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운용자산 계	금액	41,654	44,323	46,047	46,047	50,067	52,051	52,611
	증가율	5.4	6.4	3.9	0.0	8.7	4.0	1.1
	구성비	92.1	92.3	91.2	91.2	92.6	90.6	91.9
- 예치금	금 액	12,700	13,070	13,910	13,910	16,257	17,658	17,183
	증가율	9.5	2.9	6.4	32.2	16.9	8.6	-2.7
	구성비	28.1	27.2	27.6	27.6	30.1	30.7	30.0
- 투자금	금 액	28,954	31,253	32,137	32,137	33,810	34,393	35,428
	증가율	3.6	7.9	2.8	19.5	5.2	1.7	3.0
	구성비	64.0	65.1	63.7	63.7	62.5	59.8	61.9
비운용자산 계	금액	3,581	3,672	4,435	4,435	3,997	5,419	4,646
	증가율	5.6	2.5	20.8	37.8	-9.9	35.6	-14.3
	구성비	7.9	7.7	8.8	8.8	7.4	9.4	8.1
총자산	금 액	45,235	47,995	50,482	50,482	54,064	57,470	57,257
	증가율	5.4	6.1	5.2	24.2	7.1	6.3	-0.4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의 누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들어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3/4분기 수입보험료는 2,082억 위안[12]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함.

12)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가 포함됨.

○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0.5%p[13] 하락한 수준임.

○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시행에 따른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중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가 크게 위축됨.
- 이와 더불어 지준율의 지속적 인상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의 경우 예금 흡수를 위해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반면,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대폭 하락함.

○ 2011년 1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시행으로 변액보험과 유니버셜 수입보험료 대부분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된[14] 것도 인보험 수입보험료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

■ 2011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 중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비중이 커진 반면,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의 급격한 감소로 그 비중이 작아짐.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1,829억 위안으로 15.1% 감소함에 따라 동 비중도 2.4%p 하락한 87.8%을 기록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2.5% 증가하여 165억 위안을, 상해보험은 20.5% 증가한 88억 위안을 기록함.

13) 2011년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급격한 감소폭은 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기간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14) 동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험률 차익률이 5년 이상 10%를 초과하고,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절반 이상 보험기간의 위험률 차익률이 10%를 초과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만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산입됨.

〈표 13〉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2,434	2,389	2,263	10,632	3,484	2,213	2,082
	증가율	27.0	27.6	18.2	28.7	-1.8	-9.1	-12.9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명보험	보험료	2,179	2,154	2,054	9,680	3,210	1,943	1,829
	증가율	28.1	29.5	18.5	29.8	-2.5	-10.8	-15.1
	구성비	89.5	90.2	90.8	91.0	92.1	87.8	87.8
- 건강보험	보험료	180	161	152	677	187	181	165
	증가율	16.6	12.7	11.4	18.0	1.3	0.6	2.5
	구성비	7.4	6.7	6.7	6.4	5.4	8.2	7.9
- 상해보험	보험료	75	73	56	275	87	89	88
	증가율	23.7	10.9	26.7	19.7	23.3	18.7	20.5
	구성비	3.1	3.1	2.5	2.6	2.5	4.0	4.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362억 위안으로 나타나 2011년 1/4~2/4분기 동안의 높은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완화됨.

○ 1/4~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의 높은 증가세는 기저효과, 상품 만기 도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됨.

- 3~5년 만기 보험상품들의 만기일이 1/4~2/4분기에 집중되었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허용범위 축소 등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 등이 지급보험금 급증을 초래함.

○ 3/4분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0.0%, 18.2%, 10.5% 증가함.

〈표 14〉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346	348	382	1,444	551	471	362
	증가율	-18.0	4.9	18.0	-6.8	49.7	36.1	4.0
- 생명보험	보험금	269	263	287	1,109	437	332	263
	증가율	-24.1	2.0	13.3	-12.6	50.7	23.4	0.0
- 건강보험	보험금	60	66	76	264	96	120	78
	증가율	16.8	17.1	38.6	21.7	54.8	100.0	18.2
- 상해보험	보험금	16	19	20	71	18	19	21
	증가율	5.5	8.0	21.5	11.7	5.9	18.8	10.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인보험 상위 5개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외자계 보험회사는 감소함.

○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15]는 2,03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감소함.

○ 중국계 인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96.6%로 2.3%p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위 5개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0.4%p, 1.9%p 증가한 72.1%, 24.5%로 나타남.

○ 한편,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3%p 감소한 3.4%를 기록함.

15)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인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 및 상해보험과 연금보험회사의 인보험상품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를 제외한 것임.

〈표 15〉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3.5	71.7	69.5	72.8	75.4	72.4	72.1
		중소형사	21.0	22.6	23.6	21.6	21.2	23.0	24.5
		소계	94.6	94.3	93.1	94.4	96.6	95.4	96.6
	외자계		5.4	5.7	6.9	5.6	3.4	4.6	3.4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핑안인수생명보험, 신화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인수생명보험, 타이캉인수생명보험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11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하였으나, 동 증가율은 2010년 3/4분기에 비해 10.8%p나 하락한 수준임.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는 기저효과와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실적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일부 대도시의 자동차구매 자격제한[16]과 유가상승 등으로 2011년 3/4 분기 중국 자동차의 매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1.3%p 하락한 4.4%로 나타남.

16) 베이징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를 베이징 호적인 자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사람'의 경우에도 10~3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통해 구매자격을 가질 수 있음.

〈표 16〉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1,023	937	941	3,896	1,133	1,227	1,115
	증가율	29.0	29.8	46.6	35.5	13.9	19.9	19.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한 552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동 증가율은 2010년 3/4분기에 비해 15.6%p 상승한 수준임.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경우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395	441	556	1,756	429	508	552
	증가율	8.9	9.6	21.1	11.4	17.9	28.6	25.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포함)가 1,16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한 가운데, 중국계 회사와 외자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3/4분기 중국계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148억 위안으로 98.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외자계 보험회사는 12억 위안으로 여전히 1.1%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 타이핑양재산, 핑안재산이 각각 35.7%, 18.0%, 12.5%의 점유율로 총 손해보험시장의 66.2%를 차지함.

〈표 18〉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5.0	66.2	67.0	66.4	68.2	66.2	66.2
		중소형사	33.9	32.7	31.9	32.5	30.7	32.8	32.7
		소계	99.0	98.9	98.9	98.9	98.9	98.9	98.9
	외자계		1.0	1.1	1.1	1.1	1.1	1.1	1.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핑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

■ 2011년 3/4분기 중국 연금보험회사의 총 수탁보험료는 8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 규모는 1,26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0% 증가함.

○ 중국 연금보험시장의 경우 2007년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수탁업무가 전국에 걸쳐 허용되면서 4년간 급성장하였음에도 기업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중국은 2004년 5월 기업연금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업무가 정식으로 허용됐으며, 현재 5개의 연금보험회사가 존재함.

○ 2011년 12월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19〉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탁보험료	금액	74	77	71	135	357	169	45	87
	증가율	15.5	51.1	-	-	35.2	128.4	-41.6	22.5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781	835	920	1,039	1,039	1,147	1,216	1,265
	증가율	10.3	6.9	10.2	12.9	46.8	10.4	6.0	4.0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3) 2010년 3/4~4/4분기 수탁보험료 증가율은 결측치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셜),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0호 (10. 4)	**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우려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제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 해명, 기재부, 9/26)
第150호 (10. 4)	**정부, 2012년 예산(안) 편성** ·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309조 1,000억 원보다 5.5% 늘어난 326조 1,000억 원으로, 정부 총수입은 올해 314조 4,000억 원보다 9.5% 늘어난 344조 1,0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됨. (2012년 예산(안) 등, 기재부, 9/27)
第151호 (10. 10)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정부 대응** · 2011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3% 상승하여 8월 5.3% 보다 1.0%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과 비교하여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기상여건 변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불안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2011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재부, 10/4)
第151호 (10. 10)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 기조로 전환될 전망임. · 신용위험의 경우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출수요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임.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한은, 10/5)
第152호 (10. 17)	**9월 고용동향 발표** · 2011년 9월 취업자 수는 2,43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000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인 59.1%, 실업률은 0.4%p 감소한 3.0%를 기록함. (2011년 9월 고용동향, 기재부, 10/12)
第152호 (10. 17)	**금감원, K-IFRS 주요이슈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K-IFRS와 K-GAAP(기존 회계처리기준) 간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한 경우 기존 K-GAAP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 설문 결과 및 대응방안, 금감원, 10/10)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3호 (10. 24)	**한 · 일 통화스왑 700억 달러로 확대**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0월 19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통화스왑을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한 · 일 통화스왑 700억 달러 확대 합의, 기재부, 10/19)
第153호 (10. 24)	**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 2011년 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 4조 4,000억 원에서 8월 5조 원으로 6,000억 원 늘어났으며, 이는 2011년 상반기 평균 증가액인 3조 6,500억 원 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임. (2011년 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은, 10/18)
第154호 (10. 31)	**2011년 3/4분기 실질 GDP 3.4% 성장** · 2011년 3/4분기 실질 GDP가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하였으며, 전기대비로도 0.7% 성장을 기록함. (2011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한은, 10/27)
第154호 (10. 31)	**대한상공회의소, 재정위기 관련 국내 영향 설문조사**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 EU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외 경제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 · 기업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쟁기업 변화를 주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 (제조업체 57% 재정위기 내년 상반기 본격 영향, 연합뉴스, 10/25)
第155호 (11. 7)	**2011년 10월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11년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한 474억 달러, 수입은 16.4% 증가한 4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2011년 10월 수출입 동향, 지경부, 11/1)
第155호 (11. 7)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현황**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9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 대출금리와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 · 대출금리가 모두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은, 10/29)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6호 (11. 14)	**대한생명, 중국 합작 생명보험회사설립 인가 취득** · 대한생명은 중국 저장(浙江)성 정부 산하 국영기업인 저장성국제무역그룹과 합작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고 2012년부터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임. (대한생명, 중국 생명보험시장 내년 진출, 동아일보 등, 11/9)
第156호 (11. 14)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일부 해제** · 금융위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취해진 공매도 금지 조치를 11월 10일부터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함.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등, 금융위 등, 11/8)
第157호 (11. 21)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액이 2010년 2월 말보다 각각 7.5%,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통계청 등, 11/11)
第157호 (11. 21)	**2012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1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5.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1년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8% 인상하기로 결정함.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보건복지부, 11/15)
第158호 (11. 28)	**엥겔지수 3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4분기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는 15%로, 고유가로 물가가 급등하였던 2008년 3/4분기 1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2011년 3/4분기 가계동향 등, 통계청 등, 11/18)
第158호 (11. 28)	**금융위,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 · 금융위는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함.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 11/23)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9호 (12. 5)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자본적정성 관리 필요** ·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국내은행의 바젤Ⅱ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14.17%로 6월 말 14.4% 대비 0.23%p 하락하였고, Tier1 비율도 6월 말(11.61%) 대비 0.16%p 하락한 11.45%를 나타냄. (9월 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금감원, 11/28)
第159호 (12. 5)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증가함. · 소매판매액은 승용차 등 내구재(-0.5%), 의복 등 준내구재(-0.5%)는 감소한 반면,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2.2%)의 판매호조로 전월대비 0.6% 증가함. (10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통계청, 11/30)
第160호 (12. 1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생명표 발표**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2060'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 가정*의 경우 총인구 규모 정점이 2030년이고, 고위 가정의 경우 2041년, 저위 가정의 경우 2016년인 것으로 나타남.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등, 통계청, 12/7)
第160호 (12. 12)	**한국형 헤지펀드, 12월 중순 출범** · 금융위는 12월 5일 13개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하였으며, 12월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등, 12/6)
第161호 (12. 19)	**11월 수출입물가지수 전월 대비 하락** · 2011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가 모두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상승세가 둔화됨. ·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가치 상승이 나타나 수출입물가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2011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한은, 12/13)
第162호 (12. 26)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점검회의** · 12월 20일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경제 · 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 기재부, 12/20)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50호 (10. 4)	**크루그먼 교수,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제안**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버금가는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Huffington Post, 9/28)
제151호 (10. 10)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대** · 버냉키 연준 의장 등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침체,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 (Reuters, 10/5)
제152호 (10. 17)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 감소폭 확대** · 전 통계국 간부인 고든 그린과 존 코더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가계소득이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기간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New York Times, 10/9)
제153호 (10. 24)	**주택가격 하락, 경기전망 신뢰도 약화** · 뉴욕타임즈는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미국인들의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New York Times, 10/18)
제155호 (10. 31)	**오바마 대통령,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 10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과 공동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대출 개선 방안을 발표함. (Wall Street Journal 등, 10/24)
제156호 (11. 7)	**미 연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보고서를 통해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실업률 전망은 상향 조정함. (New York Times, 11/2)
제157호 (11. 14)	**미국 빈곤층, 새로운 추정방법 사용에 따라 300만 증가** · 11월 7일 미 통계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정한 빈곤층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4,90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Financial Times, 11/7)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8호 (11. 21)	**미국 대도시, 소득계층 간 주거지역 분리현상 심화** · 스텐포드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지역과 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지역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평균 가계소득이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New York Times, 11/15)
第159호 (11. 28)	**미국 3/4분기 GDP성장률, 2.0%로 하향 조정** · 11월 22일 미 상무부는 2011년 3/4분기 GDP 성장률을 잠정치 2.5%에서 0.5%p 하향 조정한 2.0%로 수정하였음. (New York Times, 11/22)
第160호 (12. 5)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 11월 30일 미 연준은 10월부터 11월 중반까지 데이터로 작성된 베이지북을 통해 세인트 루이스 지역을 제외한 11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Bloomberg, 11/30)
第161호 (12. 12)	**11월 미국 실업률,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8.6%) 기록** · 미국 노동부는 2011년 11월 미국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낮은 8.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9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LA Times, 12/2)
第162호 (12. 19)	**국제결제은행(BIS), 미국 양적완화정책 효과 평가** · 12월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은 미국과 영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정책이 채권 금리 인하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12/11)
第163호 (12. 26)	**미국 주택시장 회복 움직임** · 12월 21일 전미부동산협회(NAR)는 11월 기존주택 판매 수가 계절조정 연율 기준 442만 채가 증가하면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전월대비 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12/11)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50호 (10. 4)	**유럽안정기금(EFSF) 증액안 통과와 역할 확대 방안**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2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은 9월 29일 하원 표결을 통해 2,500억 유로의 EFSF기금을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함. (Wall Street Journal, 9/29)
제151호 (10. 10)	**유럽의 금융위기 조짐과 EU의 조기 대응** ·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또는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됨. · EU는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Financial Times, 10/5)
제152호 (10. 17)	**독일 · 프랑스,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방안 마련 합의** ·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9일 유로지역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Financial Times, 10/9)
제153호 (10. 24)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전망과 그에 따른 영향** · 무디스는 10월 17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 ·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EFSF의 실질적 기금을 축소하게 되어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유럽 핵심국 은행권에 손실을 가져와 유럽 은행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Financial Times, 10/17)
제154호 (10. 31)	**독일과 프랑스,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강조** · 독일과 프랑스는 10월 23일 열린 EU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ECB는 그리스 위기 이후 신용경색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국채매입을 시행해 왔으나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대되자 더 이상의 국채매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 (Bloomberg, 10/24)
제155호 (11. 7)	**유럽경제, 총체적 난국** · 그리스發 재정위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은 실물 및 체감 경기 부진,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1년 하반기 들어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으며, 경기체감지수와 경기선행지수들도 악화되고 있음. (Financial Times, 11/3)
제156호 (11. 14)	**이탈리아 금융시장 위기 고조로 유럽중앙은행 이탈리아 국채 매입** · 이탈리아는 총리사퇴 언급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정치 안정이 요원해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유로출범 이후 최고수준에 도달함. · 국채 수익률이 7%를 상회한 것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비추어 볼 때 이탈리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구제금융이 임박한 것을 의미함. (Financial Times, 11/9)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7호 (11. 21)	**유로지역, 경기후퇴 우려 고조** · 3/4분기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보다 0.2% 성장하여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EU는 2012년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치는 가운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Wall Street Journal, 11/16)
第158호 (11. 28)	**유럽 은행권 대출 회수가 아시아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럽 은행은 재정위기 여파로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했던 신흥시장 대출을 급속히 축소함. · 유럽 은행들의 대출 회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신흥시장은 동유럽지역이며 아시아지역은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Financial Times, 11/22)
第159호 (12. 5)	**주요 중앙은행들,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 결정** · 유럽 재정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11월 30일 주요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목적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조 조치를 취함. (Wall Street Journal, 12/1)
第160호 (12. 12)	**유럽 정상회의, 유럽 위기 해결 방안 수립 난항** · 12월 9일 EU 정상회의에서 재정 불량 운영국에 대한 제재 강화, 재정통합을 위한 조약 개정, 유로본드 발행, 구제금융기금 확충,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변경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어느 한 가지도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임. (Wall Street Journal, 12/8)
第161호 (12. 19)	**유럽연합(EU) 정상 합의, 재정동맹 실행 전망 불투명** ·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2월 10일 어렵게 '재정동맹' 추진에 합의했으나, 핵심인 법제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나면서 재정동맹 실행 전망이 어두워짐. (Financial Times, 12/13)
第162호 (12. 26)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권 장기 대출 영향** · 12월 20일 스페인은 ECB의 장기 대출 결정에 힘입어 신규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하락함. ·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 프로그램 규모가 예상보다 많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위기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Wall Street Journal, 12/21)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0호 (10. 4)	**일본 금융청, 파생상품 리스크 공시 의무화 추진** · 일본 금융청은 파생상품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늦어도 2012년 12월까지 적용할 방침임. (일본경제신문 9/28)
第151호 (10. 10)	**일본 기업, 3/4분기 경기체감지수 큰 폭으로 개선** · 일본은행이 9월 전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4분기 설문조사에서 대형 제조업체의 단칸지수가 2를 기록함에 따라 지난 2/4분기 -9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10/4)
第152호 (10. 17)	**일본 보험사, HSBC 손보사업 부문 인수전 참여** · 영국의 HSBC 홀딩스가 매각을 위해 내놓은 손해보험사업 부문 인수를 위해 일본계 손해보험회사 그룹 3사(미츠이스미토모해상, 동경해상홀딩스, NKSJ홀딩스)가 10월 12일 각각 입찰에 참여함. (요미우리신문 등, 10/13 뉴스 종합)
第153호 (10. 24)	**일본 재무성, 4년 만에 지진보험제도 전면 개정** · 일본 재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진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산케이신문 등, 10/20 뉴스 종합)
第154호 (10. 31)	**일본 사무라이본드 발행 사상 최대치 갱신 전망** · 유럽 재정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정부나 기업들이 엔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무라이본드의 발행이 크게 늘어 2011년 중 동 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됨. (로이타 등, 10/20 뉴스 종합)
第155호 (11. 7)	**일본 후생성,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 계획** · 일본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고소득 직장인의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을 위해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 산출 기준인 표준보수 상한을 개정할 것을 발표함. (산케이신문 10/23, 11/1 마이니치신문 11/1 뉴스 종합)
第156호 (11. 14)	**일본, 2011년도 상반기 무역적자 사상 최대** · 일본 재무성은 지난 9일 2011년도 상반기(4~9월) 1조 2,517억 엔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무역통계가 적용된 1985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마이니치신문 등, 11/9)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7호 (11. 21)	**다이이치생명, 중국 내 생명보험회사 설립 인가 취득** · 일본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11월 11일 중국 보험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 내 5대 전력회사인 중국화전집단공사와 공동 설립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중국 보험당국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발표함. (시사통신 등, 11/11 뉴스종합)
第158호 (11. 28)	**일본 정부, 부유층 증세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인상하여 조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임. (아사히신문 등, 11/21 종합)
第159호 (12. 5)	**일본 금융회사,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 국채 경쟁적 매각** · 일본은행 니시무라 부총재는 30일 교토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 국가부채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일본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밝힘. (NHK 등, 11/28 뉴스종합)
第160호 (12. 12)	**일본 대형 손보사와 지주계열 생보사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 · 2011년 들어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와 보험지주회사(손해보험회사 자본) 산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12/6)
第161호 (12. 19)	**일본기업, 엔고 영향으로 M&A 실적 세계 3위로** · 2011년 일본이 전 세계 M&A 시장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12/14)
第162호 (12. 26)	**일본은행, 경기판단 하향조정과 기존 통화정책 유지** · 일본은행은 2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경기판단을 종전보다 하향조정하고, 현행 0~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마이니치신문 등, 12/21 뉴스 종합)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0호 (10.4)	**중국 최초 민영 · 외자 보험합자회사 등장과 시사점** · 중국 최초의 민영 · 외자 보험합자회사합자회사인 복성보덕신 생명보험회사(复星保德信人寿公司)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는 그동안 주로 국유기업과의 합작을 많이 해 온 민영보험회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경로가 될 전망임. (화쉰 9/23, 증권시장주간 9/27, 중금재선 9/28 등)
第151호 (10.11)	**대중국 환율법안, 미 상원 통과** · 10월 3일 미국 상원은 위안화 절상을 종용하는 「2011 환율 감독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중국 중앙은행, 외교부, 상무부 등이 즉각 반발하였고, 미국 하원 의장과 백악관도 동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봉황재경, 매일경제신문, WSJ, 인민은행, 10/04 등)
第152호 (10.17)	**중국 경제성장률, 2012년 7%대로 하락 우려** · 국내외 여러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수출부진,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위험, 은행 부실 등 문제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으로 보임. (신화사 10/04, 화쉰재경 10/10, 연합뉴스10/12 등)
第153호 (10.24)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 · 3/4분기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은 9.1%로 각 경제전망기관의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9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 통화정책의 완화 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중신망 10/08, 국가통계국 10/04, WSJ, 10/04 등)
第154호 (10.31)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의무화와 인건비 상승 우려** · 2010년 10월 중국 「사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중국 내 취업 외국인도 2011년 10월 15일부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됐으며, 이에 따라 외자계 회사의 중국진출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매일경제신문 10/25, 화쉰망 10/25, KOTRA 10/07 등)
第155호 (11.07)	**중국, 유럽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 · EFSF에 대한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유럽 지원 의사는 있으나 EFSF으로부터 채권 매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이 금번 유럽 지원을 계기로 유럽의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IMF 내 위상 제고 등 여러 정치 및 경제적 조건을 내걸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매일경제신문, Market Watch, Bloomberg News, WSJ, 11/2 등)

■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56호 (11.14)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긴축통화정책 완화 기대 형성** · 10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가격 상승률 둔화에 따라 9월보다 0.6%p 하락한 5.5%(전년동월대비)로 나타나 현저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인민망, 인민은행, WSJ, 11/09 등)
第157호 (11.21)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경제 성장 저해 우려** · 주택 거래 감소, 재고 증가, 자금 경색 등 이유로 인해 중국 부동산 가격이 9월 이래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과열 해소정책이 지속 시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봉황재경, 매일경제신문, WSJ, 11/14 등)
第157호 (11.21)	**3/4분기 보험사업, 생명보험 실적 부진 지속** · 올해 3/4분기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는데, 생명보험의 지속적 실적 부진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며, 올해 1/4~3/4분기 중국 보험업 평균 투자수익률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2.7%에 그쳤음. (경제참고보, 신화망, 11/04 등)
第157호 (11.21)	**국내 경제전망 기관, 2012년 경제성장률 8.7%로 전망** · 해외 경제전망 기관들은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7%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국 국내 경제전망 기관들은 8%대의 낙관적 성장률 전망을 내놓음. (회통망 11/07, 텐쉬 재경 11/15 등)
第158호 (11.28)	**중국 생명보험회사, 실적 제고 위한 판매채널 확대에 집중** ·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인상 등으로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는데, 2012년 실적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전화판매, 인터넷 판매 등 판매채널 활용을 확대하고, 설계사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매일경제신문, 화쉰, 11/23 등)
第 159호 (12.5)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 11월 PMI가 49.0으로 50.0에 해당하는 임계점을 하회했으며, 11월 30일 지준율이 0.5%p 인하되어 중국 통화정책의 중심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전이됨. (화쉰 재경, WSJ, 중국인민은행, 12/01 등)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60호 (12.12)	**위안화 환율 상승세 멈춤, 절상기대 사라짐** · 그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달러/위안 환율이 12월 7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루 하락 제한폭인 0.5%에 달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위안화 절상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됨. (증권시보, 제일재경일보, 금융계, 12/06 등)
第160호 (12.12)	**외자계 보험회사, 저조한 시장점유율 기록** · PWC이 발표한 '중국의 외자계 보험회사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1년 외자계 보험회사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저조하나, 향후 수입보험료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보험시장은 외자계 보험사에게 도전이자 기회인 것으로 지적됨. (중국정권보, 12/06 등)
제161 (12.19)	**11월 중국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본격 하락 전망** · 11월 중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4.2%로 2010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동 상승률은 10월보다 1.3%p 하락한 것으로 올해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함. (재신망, WSJ, 인민은행, 12/09 등)
제161 (12.19)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점유율 20% 초과** ·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다는 일반적 관점과 달리 중국 보험 및 사회보장 연구센터는 중국 진출 외자계 보험회사, 중 · 외 합작보험회사,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자본 지분비율을 모두 감안하면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점유율은 22.1%(2010)에 달한다고 주장했음. (인민망, 신랑재경, 12/13 등)
第162호 (12.26)	**중국 도시화 수준 50% 상회로 경제발전 자극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50%(도시/농촌 인구 기준)를 넘어서며, 공업화 및 시장경제화 이후 도시화가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됨. (봉황재경, 매일경제신문, 12/20 등)

Ⅵ.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6.3	8.5	7.5	4.4	4.7	4.2	3.4	3.5
경상수지		8,077	68	10,735	10,122	8,469	2,610	5,492	6,896
수 출		102,332	100,951	117,120	116,756	126,617	127,691	142,723	141,394
수 입		91,753	96,655	104,813	105,190	114,704	121,849	135,062	134,196
실업률		3.3	4.7	3.5	3.5	3.3	4.2	3.4	3.1
금리	국고채(3년)	4.34	4.14	3.74	3.70	3.30	3.80	3.68	3.60
	회사채(3년)	5.46	5.25	4.61	4.63	4.16	4.59	4.46	4.34
소비자물가지수		97.7	99.0	99.6	100.4	100.9	102.8	103.6	104.7
환율	원/달러	1,167.60	1,130.80	1,210.30	1,142.00	1,138.90	1,107.20	1,078.10	1,179.50
	원/엔화	1,262.82	1,217.68	1,364.56	1,363.34	1,397.08	1,331.89	1,335.69	1,536.61
KOSPI		1,682.8	1,692.9	1,698.3	1,872.8	2,051.0	2,106.7	2,100.7	1,769.7
외환보유고		269,995	272,331	274,219	289,775	291,571	298,618	304,485	303,384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 생 보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 손 보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은 행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 일 반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 신 탁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증 권	-44,842	45,027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투 신	-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종 금	-7,191	38,000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2,093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53,119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40,937	43,061
	증가율	8.8	17.2	12.9	8.6	8.8	11.6	1.5	3.1
	구성비	19.9	21.0	21.7	19.0	21.0	20.6	19.4	20.8
사망	보험료	289,498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71,520	71,649
	증가율	-1.7	-0.2	-1.1	-1.0	-1.0	-0.8	-0.3	-0.3
	구성비	37.6	37.3	37.4	30.8	33.8	34.6	34.0	34.6
생사혼합	보험료	82,052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27,350	28,489
	증가율	23.6	33.6	28.7	28.8	23.1	28.2	13.1	14.5
	구성비	10.7	12.6	12.9	11.7	13.6	12.7	13.0	13.8
변액보험	보험료	171,882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52,972	54,714
	증가율	-2.3	10.0	8.3	14.0	18.9	12.9	17.8	20.0
	구성비	22.3	23.4	23.7	21.7	25.0	23.4	25.2	26.4
개인계	보험료	696,551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192,778	197,913
	증가율	2.8	9.7	7.6	8.4	9.2	8.7	6.4	7.5
	구성비	90.5	94.2	95.8	83.2	93.3	91.2	91.5	95.6
단체	보험료	73,017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17,839	9,040
	증가율	25.7	12.6	-3.1	-11.9	38.6	-0.5	59.9	12.5
	구성비	9.5	5.8	4.2	16.8	6.7	8.8	8.5	4.4
합계	보험료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증가율	4.6	9.8	7.1	4.4	10.8	7.9	9.5	7.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85,090	20,570	21,441	27,107	26,149	95,267	22,312	26,191
	증가율	-29.0	-1.3	2.7	27.4	18.3	12.0	8.5	22.2
	지급률	55.6	51.0	51.3	61.2	58.8	55.7	54.5	60.8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149,298	36,009	36,698	36,739	37,843	147,289	36,023	37,941
	증가율	1.6	-3.1	-6.1	2.5	1.8	-1.3	0.0	3.4
	지급률	51.6	50.2	51.1	51.1	52.8	51.3	50.4	53.0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70,557	12,028	12,509	18,789	14,872	58,198	12,250	13,020
	증가율	-1.5	-6.0	-15.7	-18.8	-24.8	-17.5	1.8	4.1
	지급률	86.0	49.7	50.3	68.6	51.7	55.3	44.8	45.7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81,281	25,859	28,701	39,263	35,562	129,385	33,532	26,282
	증가율	36.4	73.3	36.4	79.1	52.1	59.2	29.7	-8.4
	지급률	47.3	57.5	62.9	77.6	67.2	66.6	63.3	48.0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386,227	94,466	99,349	121,899	114,425	430,139	104,117	103,433
	증가율	-3.0	10.2	3.6	19.3	11.7	11.4	10.2	4.1
	지급률	55.4	52.1	54.0	62.8	57.8	56.8	54.0	52.3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87,562	18,597	12,617	42,941	32,797	106,952	28,259	13,788
	증가율	13.2	16.8	8.5	17.4	40.0	22.1	52.0	9.3
	지급률	119.9	166.7	157.1	109.4	230.3	147.2	158.4	152.5
전체	지급보험금	473,789	113,063	111,966	164,841	147,222	537,091	132,376	117,221
	증가율	-0.3	11.2	4.2	18.8	17.0	13.4	17.1	4.7
	지급률	61.6	58.8	58.3	70.6	69.4	64.7	62.9	56.6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사업비	30,460	7,837	7,797	8,336	8,972	32,942	8,802	9,138
	증가율	-6.6	13.9	1.6	0.6	17.7	8.1	12.3	17.2
	사업비율	19.9	19.4	18.7	18.8	20.2	19.3	21.5	21.2
사망보험	사업비	73,791	18,672	18,329	18,185	20,460	75,645	19,017	20,312
	증가율	3.9	5.7	0.1	-6.9	11.9	2.5	1.8	10.8
	사업비율	25.5	26.0	25.5	25.3	28.6	26.3	26.6	28.3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20,005	4,779	5,089	5,745	6,232	21,844	6,058	6,147
	증가율	-22.9	-1.9	4.5	9.7	24.0	9.2	26.8	20.8
	사업비율	24.4	19.8	20.5	21.0	21.6	20.8	22.2	21.6
개인보험계	사업비	124,256	31,288	31,215	32,265	35,663	130,431	33,877	35,597
	증가율	-4.1	6.4	1.2	-2.4	15.3	5.0	8.3	14.0
	사업비율	17.8	17.3	17.0	16.6	18.0	17.2	17.6	18.0
단체보험계	사업비	3,729	1,097	955	953	1,212	4,216	979	1,052
	증가율	6.0	25.5	10.8	-5.5	23.0	13.1	-10.7	10.2
	사업비율	5.1	9.8	11.9	2.4	8.5	5.8	5.5	11.6
전체	사업비	127,985	32,385	32,170	33,218	36,875	134,647	34,857	36,649
	증가율	-3.8	6.9	1.4	-2.5	15.5	5.2	7.6	13.9
	사업비율	16.6	16.8	16.7	14.2	17.4	16.2	16.5	17.7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2,763	622	602	779	657	2,660	624	598
	증가율	-2.5	-5.0	-4.7	-2.4	-3.2	-3.7	0.4	-0.7
	구성비	0.6	0.5	0.5	0.5	0.5	0.5	0.4	0.4
해상	보험료	8,049	2,084	1,970	1,939	1,728	7,721	2,393	2,138
	증가율	-5.4	-5.9	-2.0	4.4	-12.1	-4.1	14.8	8.5
	구성비	1.8	1.7	1.6	1.3	1.3	1.5	1.7	1.5
자동차	보험료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33,128
	증가율	2.6	7.6	8.3	12.7	13.8	10.6	9.1	8.3
	구성비	25.6	24.3	25.0	21.9	24.2	23.8	22.7	23.3
보증	보험료	12,287	3,194	2,978	3,417	3,483	13,074	3,547	3,634
	증가율	6.6	0.9	3.1	10.0	11.4	6.4	11.0	22.0
	구성비	2.8	2.6	2.4	2.3	2.6	2.5	2.5	2.6
특종	보험료	33,293	9,665	9,030	9,955	8,469	37,120	10,409	10,270
	증가율	14.3	15.8	7.2	11.6	11.4	11.5	7.7	13.7
	구성비	7.6	8.0	7.4	6.8	6.4	7.1	7.4	7.2
해외 원보험	보험료	2,078	433	568	702	623	2,326	636	667
	증가율	16.7	13.1	13.6	6.2	16.6	11.9	46.9	17.4
	구성비	0.5	0.4	0.5	0.5	0.5	0.4	0.5	0.5
장기 손해	보험료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증가율	23.4	25.5	21.2	21.4	16.5	21.0	15.3	16.9
	구성비	53.2	55.2	56.7	49.3	55.3	53.9	54.6	57.2
개인 연금	보험료	17,841	5,527	5,818	6,444	6,908	24,697	7,586	8,200
	증가율	38.8	51.3	43.7	29.6	33.6	38.4	37.2	40.9
	구성비	4.1	4.6	4.8	4.4	5.2	4.7	5.4	5.8
퇴직 보험	보험료	8,680	960	273	3,940	111	5,284	516	4
	증가율	27.5	26.7	-47.5	-42.3	-80.7	-39.1	-46.3	-98.6
	구성비	2.0	0.8	0.2	2.7	0.1	1.0	0.4	0.0
퇴직 연금	보험료	8,119	2,385	1,123	14,890	5,218	23,616	6,218	2,169
	증가율	144.4	346.4	107.4	194.9	161.7	190.9	160.7	93.2
	구성비	1.9	2.0	0.9	10.2	3.9	4.5	4.4	1.5
계	보험료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증가율	16.9	20.8	16.5	21.8	17.5	19.2	16.5	16.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1/4	FY2010 2/4	FY2010 3/4	FY2010 4/4	FY2011 1/4	FY2011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21.2	50.1	-7.2	300.2	47.4	61.0
	사업비율	60.0	51.3	49.6	55.1	49.8	55.9
	합산비율	81.2	101.4	42.4	355.3	97.2	116.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36.1	55.2	143.6	109.6	58.7	42.2
	사업비율	28.7	31.5	37.1	30.8	22.3	35.2
	합산비율	64.8	101.4	180.7	140.4	81.1	77.4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98.2	70.9	27.8	33.8	43.9	43.0
	사업비율	17.7	20.8	20.7	19.4	8.1	11.0
	합산비율	-80.6	91.8	48.5	53.2	52.0	54.0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2.8	66.4	62.2	66.4	61.6	69.2
	사업비율	24.9	23.1	21.9	27.5	21.1	19.4
	합산비율	77.8	89.5	84.1	93.9	82.7	88.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2.6	36.1	43.8	41.9	43.5	56.6
	사업비율	59.3	56.9	60.7	70.0	50.0	41.3
	합산비율	102.0	93.0	104.5	111.9	93.5	97.9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71.8	51.1	82.3	69.9	54.4	78.5
	사업비율	25.2	26.5	25.1	26.8	26.7	27.5
	합산비율	97.0	77.6	107.5	96.7	81.1	106.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5.7	82.5	85.9	77.1	79.6	83.3
	사업비율	30.3	31.1	30.2	30.0	20.7	20.2
	합산비율	106.0	113.6	116.1	107.1	100.2	103.5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3	81.3	81.6	80.5	81.7	82.6
	사업비율	17.6	17.8	17.4	17.8	16.8	16.8
	합산비율	99.0	99.2	99.0	98.4	98.5	99.4
전체	경과손해율	72.8	79.3	80.2	77.8	78.2	80.7
	사업비율	21.9	22.3	21.7	22.3	18.3	18.2
	합산비율	94.6	101.6	101.9	100.1	96.5	98.9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 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 .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 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 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 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 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 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 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 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 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 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 7

■ 정책보고서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 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 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 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 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 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 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 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 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 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 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 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 5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 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 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 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 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 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 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 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 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 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 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 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 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 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 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 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 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 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 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 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 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 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 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 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 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 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 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 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 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 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 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 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 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 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 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 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 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 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 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 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 11

■ 영문발간물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 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 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 9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 9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 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 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 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 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 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 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 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 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 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 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 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 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 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 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 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 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 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 8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 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 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 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 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 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 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 .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 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1년 겨울호 (통권 60호)

발행일	2012년 1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